

제1권 감전동 사람들 이야기

낙동강과 어울려 살아가는 감전동 사람들의 삶, 사상공단의 조성과 마을 변화에 관한 구술을 담아내었다.

제2권 학장동 사람들 이야기

학장동에 거주하는 열 분의 구술자를 통해 마을 풍경의 변화, 마을공동체의 생업과 변화상을 수록하였다.

제3권 덕발골 사람들 이야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 마을의 모습과 형성, 덕발골 사람들의 생활상과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구술을 담고 있다.

제4권 매죽지마을 사람들 이야기

여섯 분의 구술자를 통해 매죽지마을 정착 이전의 경험과 생계 수단 그리고 마을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등을 수록하였다.

제5권 아미동 비석마을 사람들 이야기

아미동에 거주하는 열 분의 구술자를 통해 아미동 공동체의 일상과 생활상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담고 있다.

제6권 100년의 한(恨)숨을 쉬다

외양포·대항마을 사람들 이야기

외양포와 대항에 거주하는 열 분의 구술자를 통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경현, 일본식 주택구조와 숭어들이 등의 마을 생활상을 수록하였다.

제7권 400년 자연마을의 근대화 풍경

임기마을 사람들 이야기

임기마을 4H운동과 새마을운동, 한철사 제사로 대표되는 마을의 주요 행사와 풍습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일상을 열 한 분의 구술을 통해 풀어내었다.

제8권 남산에 살어리랏다

남산동마을 사람들 이야기

남산동마을의 주요성씨 가문의 문화, 도시화 이전의 남산동의 옛 흔적, 마을공동체의 자치 조직과 활동, 요산 김정환과 요산 문학관 이에 관한 마을민의 인식 등을 수록하였다.

남산에 살어리랏다

남산동마을 사람들 이야기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는 구술자료와 구술사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그 사료적 가치 등을 염두에 두고 금정구에 속한 남산동마을 현지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8개월간의 마을 조사로 도출된 결과물 중에서 다시 역사성·시의성 있는 내용을 가려 뽑아 읽기 쉽게 편집과 정을 거친 것이 이번에 출간하는 『남산에 살어리랏다-남산동마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남산동마을의 주요성씨 가문의 내력과 문화, 도시화 이전의 남산동의 옛 모습, 마을공동체의 자치 조직과 활동, 요산 김정환과 요산 문학관 그리고 그에 대한 마을민의 인식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산에 살어리랏다
남산동마을 사람들 이야기

●김종호

1956년 남산동(본동) 출생, 전 금정문화원 사무국장 역임

●이영자

1946년 경남 사천 출생, 1969년 부산 이주

●최일부

1940년 남산동(본동) 출생, 현 포구사 운영

●김연옥

1960년 남산동(본동) 출생, 전 남산동에서 횃집 운영

●조성로

1958년 남산동(본동) 출생, 현 팔송살집 운영

●송진모

1950년 남산동(신암) 출생, 현 성균관유도회 부산광역시본부 회장

●송용호

1957년 남산동(신암) 출생, 현 계명 건축사무소 운영

●신수연

1959년 남산동(본동) 출생, 현 남산동에서 노래방 운영

●조정두

1942년 남산동(본동) 출생, 전 삼신교통(주)에서 근무

●나여경

1966년 서울 출생, 2000년 부산으로 이주, 현 요산 문학관 사무국장

표제설명

청산별곡의 가사를 차용한 '남산에 살어리랏다'란 표제를 통해 거친 역사의 흐름과 부침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살아가는 남산동 사람들의 의지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 심현호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8

남산에 살으리랬다

남산동마을 사람들 이야기

남산에 살으리랴다

일러두기

이 책의 편집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이루어졌다.

1. 구술의 내용

- (1) 이 구술자료집은 부산시의 2020년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결과물인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보고서 : 남산리마을 구술자료」에서 수집된 열 분의 구술자료들을 수록한 것이다.
- (2) 이 구술자료집은 각 구술자로부터 사전에 자료 이용 및 도서 발간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에 발간하였다.
- (3) 구술내용 중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일부 내용은 편집자가 일부 삭제하였다.
- (4) 이 구술 자료집의 내용을 편집함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했으며 동일한 주제의 내용을 산발적으로 언급한 경우에는 진술을 하나로 모아 정리하였다.

2. 본문의 형식

- (1) 본 구술자료집은 구술자가 말한 그대로를 옮긴 녹취록이 아니라, 읽기 쉽게 재정리한 편집본이다.
- (2) 구술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구술자별 구술자료 본문 초두에 구술내용에 관한 요약문을 수록하였다.
- (3) 독자의 편의를 위해 수정을 하였으나 가급적 구술 녹취문을 살리는 바탕 위에 윤문 및 편집함으로써 구술의 현장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4) 사투리나 속어 등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살려두고 [] 안에 표준어나 의미를 간단히 밝혀 두었다.
- (5) 구술내용 가운데 독자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각주를 달아 보충하였다.
- (6) 자료집 앞부분에 해제를 수록하여 구술내용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는 부산역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조사·발굴하고, 이를 근간하여 연구 및 편찬사업 그리고 부산역사 대중화를 모색하고자 2010년부터 마을 현지 조사를 통한 구술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술자료 수집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남북분단과 6·25전쟁, 지난했던 민주화의 여정 및 압축적 산업화의 경험 등 지난 1세기 동안 격동의 시절을 살았지만, 문자화된 기록을 남기지 못해 한국 근현대 역사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보통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을 복원하려는 취지 아래 추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술자료는 구술자와 면담자 간의 끊임없는 상호과정을 통해 도출된 이른바 공동작업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료 생산 과정은 일차적으로 구술자의 기억과 경험에 의지해야 하는 까닭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내용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카데미즘의 일각에서는 개인의 경험 세계는 주관적 인식일 뿐임으로 역사 서술의 바탕이 되는 객관적 사실로서 기능할 수 없고, 따라서 개인의 기억과 경험에 기반한 구술자료는 사료(史料)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몇 발 양보하여 구술자료를 사료로 받아들이다고 할지라도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역사상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내력을 밝히는 역사라기보다 구술자의 사적(私的)인 역사일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흔히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여겨지는 문헌자료 또한 기록자의 주관이 투영된, 즉 기록자 나름의 목적의식과 지향이 담긴 주관적 인식의 산물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문헌자료 역시 구술자료와 마찬가지로 ‘주관성’이 내재된 기록물이기에 처음부터 양자를 등급화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처사이며, 오로지 연구자의 비판적 독해 이른바 사료 비판을 통해서만 문헌자료와 구술자료의 진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이 구술자료와 구술사는 기본적으로 사적이고 개인적인 역사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역시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구술자료가 한 개인의

살아온 내력, 그러니까 구술자의 기억과 경험이 도출된 기록물임은 분명하지만, 실상 구술자 역시 사회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의 경험 세계의 집합체인 구술자료에서도 특정 사건 및 역사적 사실의 구성요소를 넉넉하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로 구술사는 개인 생활 전반에 응축된 당대의 역사와 문화를 추출하는 작업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한국 근현대사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은 문헌자료의 유실 및 생산과 보존의 미비는 구술자료와 구술사가 지닌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문헌자료의 부족을 구술자료가 보완함으로써 과거 사실을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또는 하층민이 구술채록의 주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아래로부터의 역사 쓰기가 가능해져 종래의 국가·민족 중심의 역사담론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앙과 전중 수 있는 지역의 역사 쓰기가 현실화될 수 있었던 이유도 구술자료 수집과 구술사 연구방법론이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구술자료 수집과 구술사 연구가 지닌 현재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술자료와 구술사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그 사료적 가치 등을 염두에 두면서부산시 금정구 남산동마을 공동체의 형성과 변천 그리고 주민 생애사 등에 관한 구술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예비접촉과 예비면담을 통한 사전질문지 작성, 그에 기반한 구술자와의 심층면담 진행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남산동마을 공동체에 관한 유의미한 구술사 자료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물 중에서 다시 역사성·대중성·시의성 있는 내용을 가려 뽑아 읽기 쉽게 운문 및 편집 과정을 거친 것이 이번에 출간하게 되는 『남산에 살았었다-남산동마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남산동마을의 주요성씨 가문의 문화, 도시화 이전의 남산동의 옛 흔적, 마을공동체의 자치 조직과 활동, 요산 김정환과 요산 문학관 그리고 이에 대한 마을민의 인식 등을 생생하게 엿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구술자료 수집사업을 진행해 주신 여러 면담책임자 선생님과 구술에 응해 주신 선생님들, 자료집 발간을 위해 해제 및 편집 등을 맡아준 선생님들과 발간을 진행한 상임 및 연구위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5월

목차



요산 문학로[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004	발간사
008	남산동마을 풍경 그리고 사람들
012	해제
049	김종호 “예전에는 다 농사를 지어서 남산에 다 살았는데 지금은 서울도 가고, 학교 공부해서 다 취직해서 나가고 많이 없죠”
075	이영자·최일부 “아버지 생각하면 목이 메지. 남산동에 와서 고생, 고생을 다 했는데...”
091	김연옥 “여기 남산동은 다 부지런해서 배고픈 사람이 없었어요”
107	조성로 “우리 마을이 위계질서가 참 잘되어 있었는데 바둑판이 되고 완전히 해체됐어요”

125	송진모 “옛날에 물 좋기로 우리 남산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초음, 세번째는 연지라는 말이 있어요”
141	송용호 “마을이 변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문중 제사를 지내고 조상들을 모시면서 계속 살고 싶어요”
159	신수연 “우리 새마을 운동하면 아침에 나와서 빗자루 들고나와서 청소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즐거웠어요. 음악만 나오면 나가야 하는 건가 그랬지”
173	조정두 “소나무 여덟 그루가 있어서 팔송이라고 했어요”
189	나여경 “문학관을 가지고 있는 남산동은 참 좋은 곳이에요”

부산근현대미술자료집 8
남산에 살어리랏다
남산동마을 사람들 이야기

남산동마을 풍경 그리고 사람들

남산동마을의 지명은 금정산 동쪽 기슭 아래 솟아있는 구릉성 산지인 ‘남산(南山)’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남산동을 이루는 자연마을로는 남산[본동], 남중[머들], 반남산[외남산] 그리고 신암[서검뚝]마을이 있다. 과거 남산동마을은 동래군 북면에 속하였기에 토박이들은 여전히 ‘북면 사람’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다. 남산동은 북면에서도 기와집이 많았던 마을이면서 범어사 소유 전답을 빌려 경작했던 소작인 또한 많았던 마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문중 행사, 정월대보름의 당제 그리고 동민 체육대회 등을 통해 공동체적 결속을 도모해 왔다. 해방 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은 남산동마을을 극적으로 변모시켰다. 1970년대 인근지역에 태광산업이 들어선 것을 계기로 남산동은 숨 가쁜 변화를 거듭하였다. 그 압축적 성장의 결과 남산동마을은 상전벽해라는 비유가 적절할 만큼 큰 변화를 경험했지만, 이제 옛 마을의 자취는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남산동마을 전경[1968년, 부산역사문화대전]



남산들 모내기 모습[1930년대,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옛 청룡초등학교 풍경
청룡초등학교는 1096년 범어사 경내에서 설립된 명정학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22년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옛 금정중학교
명정학교에 연원을 두고 있는 금정중학교는 3·1운동 참여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당하기도 하였다.



남산동 주택지



사라호 태풍으로 유실된 신암마을 다리 복구 공사[1959년]



남산마을 입구에 서 있던 거릿대[1965년]



제2회 남산동 주민 노래자랑 행사[2000년,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동래군 북면 시절부터 청룡초등학교는 남산동 주민들의 공동체 행사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다.



남산동 전경[2004년,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남산동마을 정월대보름 행사[1980년대, 송진모 제공]



과거 남산동 온천천 모습[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최근의 청룡초등학교[2021년, 이창섭 촬영]



최근의 금정중학교[2021년, 이창섭 촬영]



남산동 주민 연찬회[1991년,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남산동 온천천 복개도로 준공식 모습[1998년,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최근의 요산 문학로[2021년]



최근의 남산동 전경[2021년]

심 현 호(한국국학진흥원)

목차

- 1. 개관
 - 1) 남산동의 유래와 변화
 - 2) 남산동의 주요 공간과 인구 추이
- 2. 조사과정
 - 1) 질문지 작성
 - 2) 구술자 섭외
- 3. 구술 자료 개관
 - 1) 구술자 개관
 - 2) 구술 내용 개관
- 4. 구술 자료를 통해 본 남산동
 - 1) 남산동 김해 김씨와 은진 송씨
 - 2) 구술 자료 속 남산동의 옛 모습

1. 개관

1) 남산동의 유래와 변화

① 남산동 유래

남산동은 조선 시대부터 사용되던 남산리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남산동 명칭의 유래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원래 이곳은 인접한 범어사의 사전(寺田)을 소작하는 농민이 많이 살았던 곳으로 범어사에서 보면 이곳이 남쪽 산등성이에 해당하는 곳으로 남산(南山)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지역의 전체적인 지세가 북쪽이 높고 남쪽의 집들이 모두 남향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남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래부지』에 남산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북면 남산리[읍성으로부터] 18리’라고 기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과거 남산동은 신암, 남산, 남중, 반남산[외남산]의 4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

1904년 간행된 『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에 따르면 북면 남산리에는 김(金), 송(宋), 최(崔), 한(韓) 등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가장 오래된 성씨는 김씨와 송씨라고 밝히고 있어 은진 송씨와 김해 김씨가 각각 신암마을과 남산마을 일대에 동족 문중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산은 과거 본동(本洞), 안동네로 불렸으며 현재의 1, 14통 일대이다. 임진왜란 후 김해 김씨[삼현파] 문중이 정착하며 집성촌을 이루었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분산되었다. 신암은 과거에는 서검(書劍) 혹은 서검뜸으로 불렸으며 현재 남산동의 5, 6통 일대이다. 이곳은 은진 송씨[장사랑공파 유익공 종중] 문중 18세손이 1720년 정착한 후, 과거 서검서당이 있던 자리에 후손들이 거주 중이다. 남중은 과거 머들로 불렸으며 현재 2, 9, 11, 12통 일대이다. 원래 은진 송씨 문중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분산되어 자취를 찾기 힘들다. 남산마을과 신암마을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으며 과거 북면사무소가 있었으며 현재 청룡초등학교 일대이다. 반남산은 외남산 혹은 바깥 마을로 불렸으며 새벽시장 위쪽에 자리한 범어지구대 일대의 작은 마을이었다.

② 남산동의 변화

1914년에 행정구역 개정에 따라 동래군 북면 남산리로 되었고, 1942년에 부산부로 편입되었다. 이 시기 남산동은 범어사를 중심으로 김해 김씨와 은진 송씨 문중에서 각각 마을의 토지를 경작하는 전형적인 사하촌 형태의 농촌 마을 모습이었다. 해방 후인 1963년에는 부산직할시에 편입되면서 북면 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75년에는 동래구에 편입되었다. 1988년에 금정구 관할로 바뀌었으며 1995년 부산광역시 개편과 함께 금정구 남산동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마을에서도 기존의 문중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 활동이 증대되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는 마을 일부 지역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으며 1970년대 초에는 금정산 수원을 이용하는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었다. 이 즈음 신암마을에서는 1973년 마을회관 건립¹⁾, 1978년 5, 6통 진입로 포장공사 등의 마을 단위 사업이 실시되기도 했다.

1) 1997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개축하였다.



금정구 남산동마을 전경[2017년,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이처럼 남산동은 1960년대 말을 기점으로 기존의 농촌 마을에서 산업화의 영향을 받으며 현재의 모습으로 점차 변해왔다. 특히 1966년부터 실시된 남산동 1~2차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통해 기존의 농토들이 주택지로 전환되며 마을의 외형이 크게 바뀌었으며 1985년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은 마을의 인구 유입을 더욱 증가시키며 현재 남산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95년, 부산광역시 개편으로 금정구 남산동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에는 남산동에서 출생한 요산 김정환을 기리는 요산 문학관이 건립되었다.

【 남산동 간략 연표 】

시기	내 용
조선 시대	17세기 중반 삼족당 김대유의 5세손 김석희 남산동 입향
	1720년 경 유익공 송준업 신암마을 입향
	1740년 『동래부지』에 복면 남산리로 표기
대한제국	1906년 범어사 금어암에 사립 명정학교 개교
	1908년 요산 김정환 복면 남산리에서 출생
일제강점기	1914년 동래군 복면 남산동으로 행정명 변경
	1919년 동래장터 3·1운동 발발
	1942년 부산부로 편입

시기	내 용
대한민국	1963년 부산직할시 복면 출장소 설치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1960년대 후반 신암마을 전기시설 도입
	1970년대 초 시수도(市水道) 시설 가설
	1970년 3·1운동 유공비 건립
	1971년 간이상수도설치위원회 발족 및 간이상수도시설 설치
	1973년 신암마을 새마을회관 건립
	1975년 동래구에 편입
	1978년 5, 6통 진입로 포장공사 실시
	1981년 신정릉 추모비 ²⁾ 건립
	1985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1988년 금정구로 편입
	1995년 부산광역시 승격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으로 변경
	1997년 새마을회관 개축
	2006년 요산 문학관 건립

2) 4월혁명 중에 경찰의 총탄에 사망한 청년 신정릉(辛政隆, 1941~1960)의 뜻을 추모하기 위해, 1981년 4월 18일 복면지구청년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뜻을 모아 금정중학교 교정에 건립한 추모비(追慕碑)이다.



금정중학교에 있는 신정릉 추모비[2021년, 이창섭 촬영]

2) 남산동의 주요 공간과 인구추이

① 남산동 주요 공간

남산동은 금정구 중심에서 북서쪽으로 치우쳐있으며 위로는 청룡노포동, 선두구동, 좌측으로는 금성동과 경계하고 있으며 아래로는 구서2동 및 구서1동과 맞닿아있다. 남산동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를 비롯해 남산고등학교, 남산중학교, 금샘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남산동 토박이들이 대부분 졸업한 청룡초등학교는 청룡노포동 행정구역에 있다. 의료시설 및 상가 등의 편의시설은 대부분 부산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중앙대로 좌우로 자리 잡고 있으며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왼쪽에 주거지 대부분이 몰려 있다.

남산동 명칭의 연원이 되는 남산마을은 현재 범어사역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상단으로 연결되는 지역이며 현재는 대부분 주택과 빌라로 재건축되어 옛 모습을 찾기는 힘들다. 남산동 행정구역이 부산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에서 남산역으로 연결되는 세로로 긴 지형에 형성되어 있는데 범어사역과 남산역을 중심으로 범어사역 일대는 과거 남산마을 구역이며 남산역 일대는 과거 신암마을의 구역이다. 두 지역 사이에 과거 반남산[외남산], 남중[머들] 지역이 있으며 남산과 신암은 각각 김해 김씨와 은진 송씨의 세거지였다.



남산동마을을 구성하는 본동, 남중, 반남산, 신암의 대략적 위치[지도배경 출처 :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

② 남산동 인구 추이와 분석

남산동은 1963년 북면 출장소 설치 이후 농촌 마을에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도시 주거지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산동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63년 이후 남산동의 인구변화를 2년 단위로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 남산동 인구변화 】

연 도	가 구	인 구		
		총 계	남 자	여 자
1963	151	975	483	492
1965	180	1,080	564	516
1966	180	1,036	512	524
1968	221(농가126, 비농가95)	1,266	641	625
1970	346	1,649	828	821
1972	505	2,298	1,118	1,180
1974	540	2,525	1,254	1,271
1976	768	3,463	1,710	1,753
1978	886	4,050	1,983	2,067
1980	1,225	5,523	2,724	2,799
1982	1,759	7,736	3,775	3,961
1984	2,364	10,137	5,020	5,117
1986	2,956	12,012	6,015	5,997
1988	4,089	16,087	7,998	8,089
1990	6,970	25,945	13,196	12,749
1992	9,362	32,888	16,516	16,372
1994	10,666	37,196	18,550	18,646
1996	11,805	40,715	20,264	20,451
1998	11,949	40,050	19,938	20,112
2000	11,829	38,704	19,303	19,401
2002	12,172	39,358	19,554	19,804
2004	12,869	40,054	19,870	20,184
2006	12,924	39,108	19,388	19,720
2008	12,896	37,508	18,452	19,056
2010	12,930	36,184	17,730	18,454
2012	13,191	35,255	17,304	17,951
2014	13,084	33,867	16,574	17,293
2016	13,624	33,903	16,394	17,509
2018	13,912	33,309	16,109	17,200
2020	14,018	29,674	14,531	15,143

자료: 부산시, 『부산통계연보』, 각 연도 판

남산동은 1963년 부산직할시 북면 출장소 소속으로 전체 151가구에 975명이 사는 농촌 마을이었다. 이후 편입 3년 만인 1966년 토지구획정리가 실시되면서 일부 농지가 주거지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65, 66년 남산동 총 세대수가 180세대로 변화가 없다가 1968년에는 221세대에 1,306명으로 2년 사이 41세대, 230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68년 인구조사에는 유일하게 농가(農家)와 비농가(非農家)를 구분하여 병기하였는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농촌 마을이었던 남산동이 점차 도시화하여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변화는 송진모, 송용호 등의 구술에서 1960년대 후반 신암마을에 전기시설이 도입되었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산동에서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구술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1970년대 초, 시수도(市水道) 시설이 도입되었고 1971년에는 산에서 물을 끌어다 각 가정에 공급하는 간이상수도설치 위원회가 발족되어 같은 해, 간이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1963년 북면 출장소 편입 당시 151세대, 975명이었던 남산동의



신암마을 간이상수도 교체 전 모습[1972년,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남산동 지하철 공사 현장[1983년, 송진모 제공]

인구는 1970년대 초 505세대, 1,649명을 돌파하고 1976년에는 768세대, 3,463명에 이르렀다. 이는 약 13년 만에 약 3배가 넘는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980년에는 1,225세대, 5,523명의 인구수를 보여주며 남산동은 기존의 농촌 마을을 탈피하고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의 전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남산동의 또 다른 변화는 도시철도 1호선의 개통이다. 1981년 6월 23일 1단계 구간인 노포동역-범내골역 구간의 착공이 시작되어 1985년 7월 19일 1단계 구간이 완공되었는데 이 시기를 즈음해 남산역이 위치한 남산동은 급격한 인구변화를 겪었다. 도시철도 착공 1년 전인 1980년 남산동 인구는 1,225세대, 5,523명으로 2년 전인 1978년보다 339세대, 1,473명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도시철도 1단계 구간이 완공된 뒤 1년이 지난 1986년에는 2,956세대, 12,012명으로 6년 사이 무려 약 3배의 인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남산동은 1990년대 초반까지 2,000~7,000명 사이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거 농촌 마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했다. 남산동의 이러한 변화는 구획정리로 인한 거주공간의 확장 및 인근 지역에 공장들이 들어서며 소비력이 높은 상주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1980년대 중반 부설된 도시철도는 남산동의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시켰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꾸준히 증가하는 세대 수보다 인구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남산동 구성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여성 노인 1인 가구 혹은 노인 부부의 단독 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남산동의 총 세대수는 2년 전인 2018년에 비해 80세대 정도 증가하였으나 인구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남산동은 1963년 북면 출장소 설치 이후 점차 도시화가 진행되며 198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다. 이후 부산도시철도 개통을 전후하여 전체 인구 1만 명을 돌파하며 지속해서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세대 수 증가에 비해 총인구수는 감소하는 전형적인 노령화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조사과정

1) 질문지 작성

본 구술은 점차 사라져가는 과거 남산동의 자연부락에 대한 지역 구성원들의 기억과 마을구성원으로서 살아온 다양한 경험을 구술 자료로 남기기 위해 진행되었다. 체계적인 조사 및 구술을 위해 남산동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적, 역사적, 정서적 키워드들을 분류하여 큰 주제로 선별하였다. 가장 큰 주제로는 마을사와 생애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하위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마을사의 하위 항목으로는 앞서 언급한 김해 김씨, 은진 송씨 외에도 4개의 자연마을의 정확한 위치 비정, 명칭 유래, 공간의 변화, 범어사와 관계, 범어사 소유 토지와 소작농,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시기별 마을의 특징적 공간과 변화양상, 청룡초등학교 및 교육기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마을의 변화 양상, 동시대 마을 청년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간이상수도 설치와 관리 및 요산 김정환과 요산 문학관 등 광범위한 주제를 설정하여 세부질문을 작성하여 구술을 위한 사전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생애사와 관련해서는 구술자의 출생 시기별 생활상, 당시 마을풍경, 교육과정, 결혼 및 경제활동, 남녀 차이에 따른 사회활동 및 주민 관계, 각종 친목 활동, 향후 마을의 미래에 대한 개인적 견해 등의 주제를 설정하여 사전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마을사의 하위항목으로 남산동의 과거 공간에 대한 정확한 위치 비정과 지명 유래 및 현재 공간과의 비교에 대한 사전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더불어 생애사 항목에도 역시 이러한 과거 공간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과거 남산동 마을 시절 각 자연마을과 관련한 개인적인 에피소드, 과거 풍경과 변화에 대한 단상, 공간과 거주민의 상관관계 및 각 자연마을 주민 간의 상호인식, 공간별 경제활동 및 농업 활동의 차이 등에 대한 사전질문을 구성하였다. 다만 남중과 반남산 등의 자연마을은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리적 경계가 허물어지며 현재는 과거의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남산[본동]과 신암 역시 토박이나 노인층들에는 아직 느슨한 정서적 경계는 남아있지만, 물리적인 경계는 이미 사라져 찾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술을 통해 과거 자연마을의 위치와 지명, 주요 장소 등을 확인하고자 노력했다. 남산동의 경우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하여온 거주공간으로 마을사와 생애사를 명확하게 구분할만한 특징이나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마을사와 생애사를 무리하게 구분하여 진행함으로써 주제 구분

에 구술의 목적과 질문이 종속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2) 구술자 섭외

① 추천을 통한 섭외

이러한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우선 조사 대상으로 남산동의 양대 세거씨족인 김해 김씨와 은진 송씨 집안의 인물을 섭외하여 구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산동 김해 김씨는 임진왜란 이후 부산 동래와 남산동 일대에 정착한 삼헌파 문중으로 남산동에 가장 먼저 정착한 성씨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은진 송씨는 장사랑공파 유익공종중 문중의 18세손이 1720년, 남산동에 정착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검뚝회관을 중심으로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지속되며 개인 간의 접촉이 어려워지고 경로당 및 집합시설이 폐쇄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한 면담자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정구 출신이며 부산외대 한국어문화학부에 재직 중인 박경수 교수의 추천을 받아 김종호, 송진모, 송용호, 신수연 등의 구술을 추진하였다. 이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전방문 및 사전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사전질문지를 구성해 면담을 하였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조상 대대로 남산동에 거주하였으며 현재도 남산동에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다만 추천을 통해 진행되는 구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성의 부재 및 구술의 편협성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번의 사전 조사를 통해 남산동 지역 전체를 답사하며 현장에서 직접 예비면담을 실시하여 예비 구술자들을 확보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② 현지조사를 통한 섭외

다음으로는 면담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사전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구술자로 선정한 경우이다. 우선 본동의 중심지인 농협 인근과 남산본동교³⁾ 일대에서 구술대상자를 조사하고 방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남산본동교 인근에서 표구상을 운영 중인 최일부·이영자, 공공

3) 과거에는 유석교라고 불렀다.

주차장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신연옥, 팔송 인근에서 미곡상을 운영 중인 조성로를 섭외하였다. 이후 1940년대 출생 여성이 필요하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현지 방문 조사과정에서 조정두를 섭외하였다. 최일부·이영자는 부부관계이며 마을 사전 조사 과정 우연히 만나 사전인터뷰를 진행한 뒤 구술을 하였다. 신연옥은 공공주차장 근무 중 섭외를 진행하여 남산동의 복지 및 행정 정책 등에 대한 사전인터뷰 실시 후 면담을 진행했다. 조성로는 신연옥의 추천을 받고 미곡상을 직접 방문한 뒤, 면담을 시행하였다.

③ 자문 회의 후 섭외

상기 인원들의 구술 작업이 종료된 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회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우선 범어사 및 사하촌에 대한 의견을 직접 조사, 수집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구술대상자의 연령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과 요산 김정환과 및 요산 문학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또한, 1960년대 마을의 모습과 1970년대 여성들의 생활을 구술해 줄 여성의 구술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1940년대 초반 출생의 여성 및 요산 및 요산 문학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의 구술을 수집할 것을 결정하고 사전 조사 및 인터뷰를 시행하여 조정두와 신수연, 나여경에 대한 구술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구술자 및 구술 내용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3. 구술 자료 개관

1) 구술자 개관

구술조사 대상자는 모두 10명이다. 최일부, 이영자, 조정두는 1940년대 출생이며 김종호, 김연옥, 조성로, 송진모, 송용호, 신수연, 나여경은 1950~60년대 사이에 출생했다. 남성 중 최일부만이 1940년대 출생이며 김종호, 조성로, 송진모, 송용호는 1950년대 출생이며 이들 중 김종호, 조성로는 본동에서 출생했으며 송진모와 송용호는 신암에서 출생했다.

여성 중 이영자, 조정두는 1940년대 출생이며 김연옥, 신수연, 나여경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중반 사이에 출생했다. 이들 중 김연옥과 신수연, 조정두는 남산 본동에서 출생했고 이영자와 나여경은 다른 지역에서 출생해 이주한 경우다. 세대를 통한 구분으로는 김종호, 김연옥, 조성로, 송진모, 송용호, 신수연 등을 1950년대 이후 출생한 남산동 토박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일부, 이영자, 조정두는 1940년대 남산동 출생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이영자는 외부에서 이주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성별로는 1940년대 출생 남성의 최일부, 1950년대 출생으로 김종호, 조성로, 송진모, 송용호로 구분할 수 있으며 1940년대 출생한 여성은 이영자, 조정두이며 1950~60년대 중반에 출생한 여성은 김연옥, 신수연, 나여경 등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술자 정리표 】

성명(성별)	출생 연도	출생지역	직업	비고
김종호(남)	1939	부산 남산동(본동)	전 금정문화원 사무국장	남산 본동 김해 김씨
이영자(여)	1946	경남 사천 출생 후 부산 이주	전업주부	1969년 부산 이주
최일부(남)	1940	부산 남산동(본동)	표구사 운영	남산동 남성의 삶(1950)
김연옥(여)	1960	부산 남산동(본동)	주거지 주차관리요원	남산동 여성의 삶(1960)
조성로(남)	1958	부산 남산동(본동)	미곡상 운영	1960~70년대 남산동 청년의 삶
송진모(남)	1950	부산 남산동(신암)	성균관유도회 부산본부회장	남산동 은진 송씨(1950)
송용호(남)	1957	부산 남산동(신암)	건축사	남산동 은진 송씨(1950)
신수연(여)	1959	부산 남산동(본동)	자영업	남산동 여성의 삶(1970)
조정두(여)	1942	부산 남산동(본동)	분식점	남산동 여성의 삶(1970)
나여경(여)	1966	서울 출생 후 부산 이주	요산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요산 김정한과 문학관

이처럼 다양한 연령 및 성별, 지역적 특성을 가진 구술자 중, 구술 자료의 역사성 및 시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은 구술자의 연령이다. 남산동의 초창기 모습과 생활상,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한계로 잡은 것은 일제강점기까지 구술해 줄 수 있는 1930년대 생의 구술자였다. 이를 위해 80세 중반에서 90세까지의 구술자를 수소문⁴⁾하였으나 고령으로 구술 진행이 불가능했다. 결국 첫 번째 구술자로 남산동 세거씨족인 김해 김씨 문중 사람으로 1956년생인 김종호를 선정하여 구술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1950년생인 송진모를 통해서는 신암마을에 정착한 은진 송씨들에 대한 구술과 신암, 본동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1940년대 출생인 최일부, 이영자, 조정두를 제외하여 1950년대 남산동의 모습과 생활상을 확보하고자 했다. 동시에 김연옥, 조성로, 송용호, 신수연 등을 통해서는 1960~70년대 남산동 청소년들의 생활상과 진학, 상호인식, 주민생활상 등을 확보했으며 나여경을 통해서는 외부인이 바라보는 남산동의 모습과 요산 문학관에 대한 구술을 확보하였다.

2) 구술 내용 개관

① 김종호

김종호는 김해 김씨 차종손으로 남산동 본동에서 출생한 토박이다. 김종호는 1950년대 이후 남산동의 변화 및 생활상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었다. 더불어 남산동에 정착한 김해 김씨 문중의 내력과 문중 모임, 남산동 마을 구성원과 김해 김씨 문중과의 관계, 범어사와 김해 김씨 문중의 관계, 신암마을 은진 송씨와 관계 등에 대해서 가감 없이 구술해 주었다. 또한 1986년부터 남산동 청년회 활동 통해 금정구를 지역구로 하는 정치인과 관련한 일을 하기도 했으며 2000년대 초에는 금정문화원 사무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종호의 구술을 통해 김해 김씨 문중의 활동을 통한 남산동의 과거 모습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남산동의 정치, 문화 영역에서 직접 활동한 실무자의 시각에서 남산동의 변화 및 발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조사 과정 중 90세가 넘는 김해 김씨 문중의 김○주를 제외하였으나 연로한 까닭에 정상적인 구술이 불가하였다.

② 최일부

최일부는 남산동에서 출생한 토박이다. 조부 때 정관에서 이주했는데 조부는 농기구를 만드는 실력이 뛰어난 기술자였고 먼 곳에서도 일부러 조부의 가게로 농기구를 제작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과거 남산동 일대에서 농사를 짓는 땅이 많았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추후 김연옥의 구술에서도 이와 관련된 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최일부는 구술 전반에 걸쳐 김해 김씨 문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김종호의 남산동 김해 김씨 가문에 대한 구술에 대한 교차 검증으로 사용할 수 있어 특히 의미가 있다. 최일부의 구술을 통해서 1960년대 남산동 청년의 삶 및 타 성씨 집안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당시 본동 일대의 풍경, 농사 방법, 공간 변화 등에 대한 구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③ 이영자

이영자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어렵던 시기 과감하게 고향을 떠나 타이프라이터 교육을 받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양재(洋裁)일을 배우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이후 부산으로 이주해 미용업에 종사하다 최일부와 결혼하며 남산동에 정착한 경우다. 이영자의 구술에 의하면 사천읍 일대는 비행장 건설로 인해 인근 지역보다 사회기반시설이 빠르게 구비되었다고 기억했다. 자신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타이프라이터[타자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 통영에서 배를 타고 거제도⁵⁾로 왔다가 배우지 못하고 양장기술을 배운 뒤, 부산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이영자의 이러한 행적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농촌 여성들의 사회진출 및 대도시 이주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남산동으로 정착 후 남산동 미용실을 하며 겪었던 당시 남산동 여성들의 생활 모습 및 상호관계 등은 과거 남산동 여성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구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영자의 구술을 통해 농촌 지역 출신 여성이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 생활하며 해당 도시지역 남성을 만나 정착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남산동 노인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④ 김연옥

김연옥은 남산 본동 태생으로 증조부 때, 남산동에 정착해 살아온 토박이다. 앞선 김종호의 구술을 통해 남산동 세거씨족인 김해 김씨에 대한 구술을 확보하였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구술 자료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동성 씨족이지만 20세기 초반에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연옥 집안의 이주사와 이에 얽힌 김해 김씨 가문과의 상호인식에 대한 구술을 확보하였다. 김연옥의 증조부는 언양에서 거주했는데 가세가 기울자 남산동에는 김해 김씨가 세를 이루고 살고 있으니 그곳으로 이주하면 어떻게든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남산동으로 이주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는 19세기 말과 20세기 걸친 시기 남산동 김해 김씨 문중의 인지도가 인근 지역에 널리 알려질 만큼 컸다는 것과 농사를 기반으로 비교적 풍족하게 가세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김연옥의 경우 남산동 외부에서 이주한 김해 김씨라는 특이점이 있는데 가첩을 매개체로 하여 남산동 토착 김해 김씨와 접촉하며 정착하는 과정은 전근대 시기 성씨 및 혈연을 통한 이주와 정착과정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김연옥과 이영자의 구술을 비교해 봄으로써 남산동 각 세대 간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달랐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⑤ 조성로

조성로는 남산동 출신이며 과거 반남산 인근의 팔송⁵⁾에서 출생했다. 조성로의 조부 대 함안에서 이주했으며 아버지 대에 반남산에서 팔송으로 분가하며 이곳에서 성장했다고 한다. 조성로는 1960~70년대 본동, 신암에서 세를 이루던 김해 김씨와 은진 송씨가 아닌 타 성(他姓) 청소년들의 성장기를 구술해 주었다. 특히 김종호의 2년 후배로 1960~70년대 남산동 청소년들이 어떠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위계질서의 형성 이면에 남산동 김해 김씨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말해주었다. 더불어 힘들게 자녀들을 키워냈던 어머니의 일화와 미곡상 운영 등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남산동의 경제구조의 한 면을 잘 보여준다. 조성로는 1958년생으로 앞선 김종호와 거의 동일한 세대로서 함

5) 현재의 금정중학교 일대이다.

께 성장하며 비슷한 시대를 겪었으며 이러한 조성로의 구술을 통해 세거 씨족인 김해 김씨 집안과 타성 집안의 청소년, 청년들이 서로 어떻게 인식하며 남산동에서 성장하고 생활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⑥ 송진모

송진모는 과거 남산동 신암마을에 정착한 은진 송씨 출신으로 조상 대대로 신암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송진모의 자택은 과거 은진 송씨 집안에서 운영하던 서당이었는데 할아버지 대에 분가하면서 자택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은진 송씨 가문의 이주 및 변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 학업과 취업으로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결혼을 한 뒤에는 주말마다 고향으로 돌아와 남산동과 신암마을의 변화를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은퇴 이후에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역사학에 전념하여 현재는 성균관유도회 부산광역시본부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은진 송씨, 남산동, 신암마을 등의 향토사에 관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송진모의 구술을 통해 은진 송씨에 관한 구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1950~60년대 사이에 출생한 남산동 청년들의 생활과 진학, 취업과 결혼과정, 선·후배 관계, 김해 김씨와 은진 송씨의 상호인식, 은진 송씨와 범어사의 관계, 남산동 각 지역의 지명유래와 위치 비정 등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구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⑦ 송용호

송용호는 신암마을 출신으로 1957년 출생했다. 앞서 언급한 송진모와는 친척 관계인데 항렬로 따지면 본인은 26세손, 송진모는 28세손이라고 했다. 송진모와는 문중 회의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본인이 총무를 맡고 송진모가 현재 회장을 맡고 있어 친밀한 관계라고 한다. 송용호 역시 은진 송씨 집안사람끼리의 관계나 별초 및 모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다. 송용호는 현재 건축사무소를 운영 중인데 이러한 경력 덕분인지 1960년대 남산동 구획정리 당시의 진행 및 과거 모습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1960년대 중반 이후 학창 시절, 학우 관계, 생활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더불어 1960년대

남산동 가옥의 구조나 남산동 출신의 특징적인 인물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송용호의 구술을 통해 1960년대 남산동 사람들의 의식주에 대한 구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⑧ 신수연

신수연은 1959년 남산동 본동에서 출생했다. 신수연은 영산 신씨로 당시 남산동에 김해 김씨, 은진 송씨 외에 영산 신씨 집안사람들이 10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신수연의 조부 때도 남산동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더 weit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어린 시절 넓은 농지를 소유하고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유추해보면 훨씬 weit부터 세를 이루고 살았을 가능성이 커 보였다. 신수연은 구술을 통해 1960~70년대 남산동의 풍경과 생활상, 여성들의 삶, 진학과 사회활동 등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또한, 1970년대 후반, 인문계 학교를 졸업하고 인근 공장에서 일했던 기억과 농촌에서 취업을 위해 상경한 여공들에 대한 기억은 산업화 시기 경제활동에 뛰어들었던 여성들의 삶을 잘 보여주었다. 이후 신수연은 백화점 근무, 카페 운영, 노래방 운영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남산동 사람들의 생활상과 관계 형성, 경제구조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구술해 주었다.

⑨ 조정두

조정두는 1942년 남산동에서 출생했으며 조성로의 친누나이다. 자문회의 결과 구술자의 연령을 조금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1940년대 초반 출생인 조정두를 섭외하여 구술을 진행하였다. 조정두의 할아버지 대에 함안에서 남산동으로 이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9남매의 장녀로 20살에 결혼한 뒤,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일제강점기였던 어린 시절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삼촌에 대한 이야기나 요산 김정환의 집에서 일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준다. 또한 남산동 일대의 옛 이름에 대해서도 자세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6·25전쟁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남산동으로 왔던 피란민이나 소죽 끓이는 방에 임시로 거주

하며 야간순찰을 하던 젊은이들도 기억하고 있었다. 더불어 남산동 마을의 당산과 우물, 체육대회, 인근 시장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한 기억을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과거 직접 경험했던 김정한에 대한 기억과 요산문학관에서 공공근로 일을 하며 겪었던 경험도 말해주었다. 조정두의 이러한 구술은 1950~60년대 출생 구술자들의 자료들보다 조금 더 과거의 기억으로 일제강점기에서 6·25전쟁 당시 남산동의 다양한 모습을 알게 해 주었다.

⑩ 나여경

나여경은 1966년 서울 출생으로 2000년, 부산 남구 용호동으로 이주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다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소설가이며 현재는 요산 문학관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나여경은 남산동 출생이 아니며 부산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구술 주제와의 관계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요산 김정한과 요산 문학관에 집중된 구술을 확보하기 위해 구술을 진행한 경우다. 나여경은 부산에 내려와 전업 작가의 길을 걸으며 특히 요산과 관련된 부산 문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한다. 나여경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요산 문학관 사무국장직을 맡게 되면서 요산 문학관에서 일하게 되었다. 특히 나여경은 문학관 건립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말해주었고 요산 문학관의 정체성과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적인 정보도 함께 언급해 주었다. 나여경의 구술을 통해 외부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남산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요산 문학관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향후 요산 문학관의 전시 방향 및 발전 방향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구술 자료 개관

1) 남산동 김해 김씨와 은진 송씨

남산동은 17세기 중반, 김해 김씨 문중이 정착하여 세거 씨족을 이룬 이후 은진 송씨 문중이 신암마을에 정착하여 대를 이어온 곳이다. 남산동은 마을 형성 초반, 자연스럽게 형

성된 4개의 자연마을이 합쳐져 만들어진 행정구역으로 남산마을(본동)을 중심으로 하는 김해 김씨, 신암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은진 송씨의 두 집단과 범어사의 관계 형성을 통해 유지된 곳이다. 다만 현재 오랜 시간이 지나 이러한 초기 정착 과정에 대해 깊이 있는 구술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지만 두 성씨 집단의 정착 및 존속과정을 두 집단을 대표하는 두 명의 구술자를 통해 교차 검증하며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여기에 20세기 초, 외부에서 이주한 김해 김씨 및 최씨, 신씨 등의 구술을 추가해 더욱 객관적인 구술 자료를 확보하였다.

① 김해 김씨

김해 김씨는 17세기 중반 남산동에 정착했다. 남산동에 정착한 김해 김씨의 계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판도판서공파 절효공 김극일(金克一)⁶⁾은 여섯 아들을 두었는데, 각 김건(金健), 김맹(金孟), 김용(金勇), 김순(金順), 김늑(金勒), 김현(金鉉)이다. 여섯 형제 중 둘째 아들 참판공[이조참판남계공휘맹파] 김맹의 아들 가운데 큰아들이 동창공 김준손(金駿孫)이고, 둘째 아들이 매헌공 김기손(金驥孫)이며, 셋째 아들이 탁영공 김일손(金駟孫)이다. 1600년대 중반, 김준손의 아들 삼족당 김대유(金大有)의 5세손 김석희(金碩禧)가 동래 복면 남산동(현 남산동)의 입향조이다.⁷⁾ 김종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원래 삼현파는 판도판서공파예요. 그 판도판서공파 중시조 할아버지가 관자 할아버지 [김관(金管)]인데, 여기 남산동에 제일 처음 내려온 할아버지[김석희]⁸⁾가 그 관자 할아버지 13세손⁹⁾인가 그래요. 그 김극일 할아버지 아들이 6남매인데 그 중에 둘째 아들 김맹 선생님의 큰아들이 김준손 선생님이고 이 분 아들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삼족당 김대유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절효 선생님[김극일], 그리고 그 밑에 김대유 할아버지 5세손¹⁰⁾인 우

6)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용협(用協), 호는 모암(慕庵). 할아버지는 김항(金抗)이고, 아버지는 의흥현감(義興縣監) 김서(金淸)이며, 부인은 한성부윤 이간(李干)의 딸이다. 어릴 때부터 조부모와 부모를 지성으로 봉양하였고, 장성한 뒤에는 장인의 간곡한 사관 요청이 있었으나, 양친의 봉양을 이유로 거절하고 성심을 다하여 봉양하는 등 효행으로 명성을 떨쳤다. 또한, 아들 김맹(金孟)은 물론 손자 김준손(金駿孫), 김기손(金驥孫), 김일손(金駟孫)의 교육에도 정성을 기울여 이들 모두가 문과에 급제할 수 있는 학식과 절행으로 명성을 떨치는 토대를 이루게 하였다.

7) 부산역사문화대전 ‘남산동 김해 김씨 세거지’ 항목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

8) 입향조 김석희를 말한다.

9) 판도판서공파 1세조인 김관(金管)은 고려(高麗)에서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歷任)하고 학교(學校)를 설립(設立)하여 유학(儒學)을 진흥(振興)시키는 등 나라에 많은 공(功)을 세웠으며, 그의 현손(玄孫) 김극일(金克一)은 효행(孝行)으로 이름을 떨쳤다.

10) 정확히는 김대유가 김관의 8세손이며 김석희는 김대유의 5세손으로 김관으로부터 김석희는 13세손이 된다.

리 석자 희자 할아버지[남산동 입향조]가 여기 먼저 내려왔거든요”

입향조 이후 이어진 계보 가운데 김석희의 6세손 김봉휘가 잘 알려져 있다. 김봉휘(金鳳暉)가 1902년[고종 39년]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된 후 가세가 더욱 번창했다고 한다. 김봉휘의 아들 김용우(金壙瑠)는 범어사로 출가하여 대선사(大禪師)가 되었는데 법호는 송호당(松虎堂)이며, 법명은 전흠(典洽)이다. 송호당은 대한제국 시기 범어사 국채 보상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많은 재산을 모아 부농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특히 김용우가 길러낸 후손 가운데는 동래 안락서원 원장을 지낸 김기선(金基善)과 문학계의 큰 별인 요산(樂山) 김정한(金廷漢)이 있다. 김정한은 193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사하춘』이 당선되며 등단하였으며 부산지역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글로 풀어내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그의 사후인 2003년에 김정한 생가를 남산동에 복원했으며 2006년, 같은 장소에 요산문학관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김기선 선생님이라고 안락서원 원장도 하신 분인데 이 분이 제 친할아버집니다. 그 요산 선생 부친이 기자 수자 쓰시는 기수고, 우리 할아버지 기자 선자 쓰세요. 그렇게 두 분이 4촌지간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3형제였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10남매예요”

남산동 김해 김씨의 가세가 커지게 된 것에는 범어사 주지를 역임했던 송호당의 역할이 컸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남산동은 범어사의 경제력에 큰 영향을 받았던 곳이었으며 김해 김씨 출신의 송호당 대선사가 주지가 되면서 남산동 김해 김씨의 영향력도 비례하여 커졌음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호도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송호당 어르신은 항렬로는 우리 한참 밑에 할아버지고, 예전에 송호당 할아버지가 정한 이 아재를 공부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때 뭐 송호당 할아버지가 논밭도 많고 이래가지고 정한이 아재가 일본에 유학 갈 때 돈을 대주고 했다고. 아마도 4촌 조카? 그 정도 될 겁니다”

김해 김씨의 이러한 영향력은 부산 북부지역의 인근 마을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범어사의 영향력 아래 ‘북면 남산리’는 부유하고 풍족한 마을로 주변에 인식되었다. 이는 김연옥의 구술에서도 확인된다.

“언양에 우리 고조할아버지께서 노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집안이 쫓딱 망했데. 진짜 좋은 집안에서 잘 살았는데…. 인제 우리 집안의 어르신이 언양에서 “택하야 니는 그래도 이런데 있지 말고 못 먹고 사니까 저 동래구 범어사 골짜기에 가면, 그 밑에 가면 스님들 그 땅…. 소작농, 그런데 가면 머슴은 살아도 밥은 안 굶는다”라는 말을 듣고 남산동으로 오면

서 이 가첩을 가지고 나왔대요”

구술에 의하면 당시 ‘남산동과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던 울주군 언양 지역에도 이미 남산동의 풍족함이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그러한 ‘풍족함’의 배경이 ‘스님들 그 땅’, ‘소작농’이라는 단어로 치환되는 것 역시 당시 범어사와 남산동의 경제적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연옥의 고조할아버지는 가세가 기울어 먹고 살기 위해 김해 김씨가 세거하고 있는 남산동으로 이주,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같은 성씨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첩을 함께 가지고 왔던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다. 다만 남산동 김해 김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남산동 내에서는 조금씩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쌓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김연옥과 김종호의 다음 구술에서 확인된다.

“내가 아버지보고 ‘우리도 김가인데 저 집도 김해 김가면 우리는 저 집에 친척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다, 우리는 그 집하고 친척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야 옛날에 너희 남산 김씨들 대단했다”이러는 겁니다. 세가 많다보니 유세가 좀 있었겠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또 나하고 친했고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 어떤 사람도 “야, 그때는 뭐 우리 꿈쩍도 못 했다”이러더라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게 문중이 크면 다른 문중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겠지”

김연옥의 집안은 외부에서 생계를 위해 남산동으로 이주해와 김해 김씨 집안에서 소작농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연옥의 부친은 남산동 김해 김씨와는 같은 성씨이면서도 자신의 자식에게는 그 집단과 동질성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김종호 역시 과거를 회상하며 남산동의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음을 기억하고 스스로 그러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납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남산동 김해 김씨는 남산동에 입향한 이후부터 세거 씨족으로 융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권을 확보하고 있던 범어사의 주요세력 집단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토착집단과 이주집단 사이에 어느 정도의 알력도 존재하였지만, 결론적으로 김해 김씨는 남산동의 경제권을 주도하며 대내외적으로 남산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구술자 김연옥이 소장 중인 김해 김씨 가첩[2020년, 구술조사팀 제공]



남산동 김해 김씨 재실 남산재(南山齋) 전경[2013년, 부산역사문화대전]

② 은진 송씨

대략 18세기 초반 남산동에 정착한 은진 송씨(恩津宋氏)는 고려 판원사부군 송대원(宋大原)¹¹⁾이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은진 고을에 세거지를 정한 뒤, 그의 증손자인 집단공 송명익(宋明諱)가 회덕 땅에 은거하면서 후손이 번창하였다. 송대원의 5세손 쌍청당 송유(宋愉)는 송계사(宋繼祀), 송계중(宋繼中) 형제를 두었는데, 그중 송계사의 아들인 송요년(宋遙年), 송순년(宋順年)이 각각 목사공파(牧使公派)와 정랑공파(正郎公派)로 갈리고, 송계중의 아들인 송미년(宋眉年), 송호년(宋胡年)이 각각 주부공파(主簿公派)와 장사랑공파(將士郎公派)로 나뉜다. 이 중 송계사의 후대에서 다시 38파로 갈리며, 또한 별보로 영천공파(榮川公派)가 있다.

송계중의 후예로 동지중추부사 송인수(宋仁壽), 사과(司果) 송예수(宋禮壽), 임진왜란 원종공신 2등 훈인 송응현(宋應賢)과 송결(宋傑)이 있다. 송계중의 후예들은 주로 무인으로 성장하였으며, 후손이 그다지 많지 않다. 금정구 남산동의 은진 송씨는 장사랑공파에 속하는 송인수의 후손으로 조직된 유익공종중(有益公宗中)이다.

송인수의 아들 송응지(宋應祉)가 임진왜란 전 회덕에서 동래 장산 아래에 복거(卜居)한 후, 동래 삼성대(三姓臺)에서 처음으로 서당을 개설하여 후학을 교훈하면서 살았다. 16세기 말 송응지의 아들 송종조(宋宗祚), 송수경(宋守卿) 대에 동래 동면[현재의 해운대구] 재송동 뒷골 마을로 들어왔다. 후손들은 주로 동래 무청에 출입하여 훈련원 판관, 중군, 교련관, 대술군관 등을 배출하였다. 송응지의 5세손 훈련원 판관 송초건(宋楚健)은 아들 넷을 두었는데 송준방(宋俊芳), 송준호(宋俊豪), 송준업(宋俊業), 송준평(宋俊枰)이다.

이들 중 셋째아들 송준업은 18세기 초반에 남산동에 입향해 동래 무청의 영하를 역임하였으며, 아들 송재장(宋再章)은 동래 무청 교련관, 손자 송주흥(宋周興)은 동래 무청 대술군관을 지냈다. 후대에 와서 동래향교와 동래 안락서원에 출입하여 유림모성계안(儒林慕聖契案)¹²⁾에 들어 동래 유림 발전에도 기여하였다.¹³⁾ 이러한 남산동 은진 성씨의 입향

11) 시조 송대원(宋大原)의 자는 천지(川至)로, 처음 이름은 송견(宋堅)이었다고도 한다. 고려조에 판원사(判院事)를 지냈고, 은진군(恩津君)에 봉해졌다. 『여산 송씨 세보』에 은진 송씨(恩津宋氏)는 여산 송씨(礪山宋氏)와 근원이 같아, 여산 송씨의 시조 송유익(宋惟翊)의 아우 송천익(宋天翊)이 은진에 세거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증할 문헌이 없고, 송천익에서 송대원까지 몇 대인지도 알 수가 없어 후손 송대원을 시조로 삼고 본관을 은진으로 하였다.

12) 지역 유림이 유교의 진작을 위해 향교의 역사를 비롯해 향교 건물의 기문을 수록하고 해당 지역의 모성계원을 조사, 기록한 것을 말한다.

13) 부산역사문화대전 '남산동 은진 송씨 세거지' 항목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과정에 대해서 송진모는 구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우리 선대가 1700년대 초반에 재송동에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는 주로 은진 송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로 우리 송가들이고 지금은 타 성씨가 몇 집 들어와 있지만 아직은 우리 송가들이 주로 많이 사는 집성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남산동의 은진 송씨는 주로 18세기 초반 입향한 주로 무과 출신자로 시작을 했지만 학문 역시 같이 연마하여 이른바 문무겸전을 주요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남산동 은진 송씨 재실명이 서검재(書劍齋)라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암마을 일대를 일컫는 옛 이름인 서검뜸에 대해서 송진모는 ‘서검’이란 명칭보다 ‘뜸’과 ‘뜸’의 구분에 집중했다. 최일부 역시 ‘서검뜸’이라는 명칭을 고수했는데 마을이라는 뜻에서 뜸을 붙인 송진모와 달리 부상당한 장군의 일화에서 등장한 치료 목적의 ‘뜸’에서 유래한 것으로 설명하는 차이를 보인다.

“우리는 서검이라고 하면 서검재 하듯이, 옛날에 서검뜸이라고 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다면 서검뜸이라 하는게 신암마을이란 이름보다 앞에 불렀다고 봐야죠. (중략) 옛날 사람들이 말로만 서검뜸, 서검뜸 이랬거든. 그러면 정확하게 서검뜸이라고 하면 또 안 되고 뜸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마을에다 뜸을 붙이거든? 다른 데도 지도를 보면 양지뜸, 음지뜸 쓴다고. 그래서 내가 뜸을 붙인 거야”

“신암의 유래를 찾아보면 서 장군이 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 뜸을 떼가지고 칼로 지졌다고 그래서 서검뜸이라 불렀다고 했어. 다른 곳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래로 이제 서검뜸이야 원래는... 그런게 다 집안 내력에 내려오니까 서로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요새는 서검뜸이라 하는데 원래는 서검뜸이라. 거기 송씨들이 그 이전에는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송씨들이 주를 이루고 살았지”

은진 송씨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과거 서검뜸, 혹은 서검뜸이라고 불렀던 ‘신암마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점은 아래 송진모의 구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우리 지역에 부유하다 하면 땅을 제법 많이 가지고 이래야 좀 부유하다고 하는데, 다른 집안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았지. 큰집 같은 경우에는 방앗간도 운영했는데 옛날에는

방앗간 운영을 하고 이러면 좀 잘살았던 거로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송가들은 각 집에 방앗간이 있었어. 제일 큰집에는 동력으로 돌리는 정미소가 있었고 제일 큰 증조부 집이랑 아랫집에도 디딜방아가 있었고 또 우리 집에도 물레방아가 있었죠. 각자 방앗간을 운영했다면 그래도 좀 살기가 괜찮다고 봐야죠. 방앗간을 우리 송가만 해도 네 집에서 운영을 한 거야”

농업이 주였던 전근대 시대 방앗간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남산동 일대에서 은진 송씨의 경제력이 무척이나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와 더불어 은진 송씨는 동래 무청 및 동래향교, 안락서원 등에 출입하며 지역 유지로서 정치적 입지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남산동 ‘신암마을’의 은진 송씨는 경작지와 방앗간 등의 경제적 배경과 지역 유지로서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며 ‘남산마을’의 김해 김씨와 함께 남산동을 지탱하는 한 축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다.



서검뜸 회관으로도 불리는 신암마을 회관과 서검뜸 회관 건립비[2021년, 이창섭 촬영]

② 타 성씨

구술에서 언급되는 타 성씨는 이씨, 신씨, 공씨, 박씨 등이다. 그 중 이씨들은 김해 김씨들이 남산동에 터를 잡기 전에 번성했으며 지나친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 가세가 기울었다고 언급된다. 이러한 전승은 김연옥이 할머니를 통해 구전된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예전에 이씨, 그러니까 이씨들이 번창했는데 여기 산을 깎는 바람에 이씨들이 몰락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를 백구토라 했거든요. 남산 아래가 백구토고, 그 밑에는 또 순무통이라 했는데, 여기도 언덕배기처럼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남산마을이 있고 그 앞이 딱 막혀있으니까 그럼 이씨들이 모여 사는 곳 앞이 꼭 막혀있는 거지. 돈도 있고 다 부잔데 막히니까 갑갑하잖아요? 저거 뚫어라 하고 산을 깎았대요. 깎고부터는 그 이씨들이 안 났데. 그 때 산을 싹 자르니까 연기가 팍 나면서 새가 범어사 골짜기로 날아가고 그 산허리에서는 피가 났다하더라 (중략) 그렇게 이씨들이 폭삭 망하고 김가들이 들어와서 살았지”

한때 번성했던 이씨들이 언덕, 즉 남산동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벌을 받아 가세가 기울게 되었다는 일종의 금기전승을 말해준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새가 범어사로 날아갔다는 것과 붉은 피다. 과거 남산동과 범어사의 관계는 일종의 호혜(互惠)적인 관계로 예로부터 하늘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인식되는 새가 범어사 방향으로 날아갔다는 것은 과거 남산동을 지켜주는 존재로 범어사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불어 주로 금기를 깨뜨렸을 때 나타나는 붉은 피 역시 뒤이어 연속되는 남산동 이씨의 몰락을 전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산동에 정착한 다른 성씨로는 최씨, 신씨, 공씨 등이 있다. 김연옥은 어렸을 적 마을에 기와집이 몇 채 없었는데 당시 보았던 기와집이 김씨, 최씨, 신씨 집이었다고 기억하며 송진모 역시 타 성씨들의 이주와 정착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딱 보면 요산 생각하고 그 강○진 선생님 집 그 집만 기와집이고, 그 집하고 기와집이 한…. 몇 개밖에 없었어요. 한 여섯 갠가? 김해 김씨 있고 최씨 집 하나랑 신씨 집 있고…. 지금 최씨는 다 이사 나갔어요. 옛날에 팔송탕 하던 최씨 아저씨 그 집도 이사 나갔지. 그런데 최 씨 집은 그렇게 넓은 게 없었어요”

“우리 마을부터 이야기 하자면 우리 은진 송가가 여기 들어온 지 약 25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앞에는 이씨랑 오씨가 살고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후손들이 다 사라지고 없으니 이씨가 살았는지, 오씨가 살았는지 말만 들었지 확실히는 몰라요. 여기에 또 밀양 박씨가 몇 집 삽니다. 온 지는 100년 정도밖에 안 났고…. 그리고 또 봉씨도 한 두집 살고 있어요. 거기는 온 지 얼마 안 되고,그리고 다른 집은 별로 없어요”

과거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던 남산동에서 부의 상징은 당연히 기와집이었다. 김연옥은 과거 남산동에 기와집을 짓고 살았던 성씨들이 김씨, 최씨, 신씨였으며 그 중에서 최씨는 다른 성씨들만큼 넓은 집은 없었다고 기억하며 김씨와 신씨의 세가 남산본동에서는 컸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구술은 영산 신씨였던 신수연이 많은 전답을 보유하고 부족함 없이 자랐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말해주는 것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남산동을 대표하는 세거 씨족은 김씨와 송씨이다. 두 성씨집단의 이주를 전후해 여러 성씨들이 남산동에 정착했지만 결국 현재까지 성씨집단의 성격이 유지되는 곳은 김씨와 송씨라는 점에서 볼 때 두 성씨 집단의 변천은 결국 남산동의 변화 및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구술 자료 속 남산동의 옛 모습

구술을 통해 확인한 남산동의 옛 모습은 남산동의 주요 공간과 지명 유래 등의 물리적인 장소에 해당하는 것과 주민들의 생활, 상호인식, 주민단체, 생활상 등의 정서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현재 과거 남산동의 공간은 구획정리 및 주택 신축으로 인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과거 존재했던 마을 내 주요 장소나 남산동을 구성하고 있던 4개의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토박이 대부분이 정확한 위치와 마을 이름, 지명유래 등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1950~60년대를 전후한 출생자들이 실제로 그러한 장소 및 지역명과 지역 구분을 사용했던 세대이며 자연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실제로 체험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과거남산동이라는 보다 넓은 공간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동질감을 전제로 한 뒤에 형성되는 구분으로 각 자연마을의 독립적인 소속감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남산동 주민들의 과거 생활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남산동에 존재했던 여러 시설과 조직, 인간관계, 주민 활동 등에 대한 구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우선 사전질문지 작성에 있어 큰 주제를 설정하였는데 사하촌, 소작농, 주민단체 및 활동, 남산동 남성 및 여성들의 삶과 사회활동 등의 주제를 설정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사전 조사를 통해 설정된 해당 키워드들을 통해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남산동 구성원으로서 생활했던 다양한 생활사 전반의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① 과거 남산동의 주요 지명

앞서도 말했듯이 과거 남산동은 남산[본동], 신암, 남중[머들], 반남산[외남산]의 4개 자연마을이 존재했던 지역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남산동의 중심은 본동으로 불렸던 남산이며 이 지역에 김해 김씨들이 처음 정착했다. 신암은 남산동 아래 지역으로 은진 송씨가 세거하였으며 나머지 지역은 남산의 가운데라는 뜻인 남중, 반만 남산, 남산의 바깥쪽이라는 뜻의 반남산 지역으로 구성된다. 특히 남중, 반남산은 모두 남산동과 관련된 지명으로 과거 남산동에서 남산본동이 차지하고 있던 중요성을 알게 해준다. 우선 남산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 김중호와 송진모는 구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산 지명 이야기할 때 저기 범어사 쪽에서 옛날에 보면 절에서 보면 고당봉이 있고, 요 밑에 노인봉이 있어요, 남산 바로 뒷산이 노인봉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봉에서 볼 때 이렇게 지나서 남쪽에 있다고 그때 남산이라 했거든. 근데 그게 뭐 학술지나 다른 데는 어떻게 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남산 이름을 지명이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 (후략)”

“우리 남산동 기준으로 하면은, 남산동 본동마을이 있고 남중마을이 있는데 지금 청룡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마을이 있었어. 그다음 신암마을이 있고. 그래 세 개의 마을인데 또 반남산마을도 있어. 그래서 크게 봐서는 세 개 마을이라 하고, 또 조그마한 마을까지 하면 마을이거든. 우리 신암마을은 뒤에 용호등 청디미[석벽의 방언] 그 산 이름이 지금 사람들은 무명봉이라고 그러는데 (후략)”

“그 마을이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본동으로 보는 거죠. 남산마을이라고 하니까. 남산마

을, 남중마을, 우리 신암마을, 반남산마을은 남산 본 마을 옆에 붙어가 있는 조금 몇 집 안 되는 거를 반남산마을이라 하거든. 본동에는 남산서당이라고 서당도 있었어”

위에서 말하는 ‘절’은 당연히 범어사를 말하며 남산동 지명의 핵심인 ‘남(南)쪽’의 주체가 ‘범어사’였음을 알 수 있다. ‘절’ 즉 범어사 쪽에서 봤을 때 고당봉과 노인봉을 지나 있는 산이 남산이며 남산동의 ‘남산’이 여기에서 유래했음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점은 과거 이 일대에서 범어사가 가졌던 영향력과 위상을 말해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송진모는 당시 신암마을 구성원의 관점에서 여러 자연마을을 설명한다. 특히 남산동은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며 중심과 시작을 의미하는 마을이라는 뜻의 본(本)+동(洞)과 남산마을이라는 지명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② 하천[온천천]과 다리

현재 남산동을 가로지르는 하천은 온천천의 상류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추억이 깃든 장소이다. 다만 지역 주민들은 온천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고 단순히 하천, 혹은 ‘그랑’, ‘넛그랑’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 이후 구술에 등장하는 하천 혹은 ‘그랑’, ‘넛그랑’ 등의 명칭은 모두 이 온천천을 말한다. 이 하천은 현재 정비를 거쳐 과거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여전히 금정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지금 농협 앞에 작은 그 다리[남산본동교]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폭이 좁아서 수해로 한 번 끊어졌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래서 다리를 못 건너니까 구멍 난 철을 놓아가지고 다녔어요. 그 길이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놔서 좀 오래 다닌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복개도 안 되어있었고요. 다리가 폭이 좀 좁고 안동네를 가려면 그 다리를 안 거치면 못 들어가는 시절이었어요. 길이 없으니까. 지금은 보수를 해서 넓운데 그때 하천은 지금처럼 넓지 않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거기서 떡도 감고 했거든”

③ 우물과 간이상수도, 당산

과거 남산동에는 몇 개의 우물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거의 소실되었고 현재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개소이다. 간이상수도는 남산동에서 확인되는 특이한 시설이다. 주민에

따라서는 시(市)에서 설치하는 상수도과 구분하여 산(山)수도라고도 부른다. 당산 역시 과거에는 존재했으나 현재는 소실되어 터만 남은 것으로 확인된다. 우물과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송진모와 김연옥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우물은 저쪽에 큰집 앞에 마을 우물이 있어요. 그게 제일 오래되었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남산초등학교 보면 가장골이라고 (중략) 거기가 마을 야산인데 가장골 하는데 거기에도 우물이 하나 있었지. 또 가정에 몇 개씩 우물이 있다고. 당산이랑 우리 선산에도 다 있었어. 저쪽에 보면 아파트 있는 지역이 있어. 아파트 있지요? 위쪽에 다 있었지. 지금은 다 뜯어져 버렸지.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물이 여러 곳에 있었어”

“산수도를 어떻게 했냐면 산에 가면 자갈이 있잖아요. 그걸 리어카(손수레)로 해서 실어다가 위에 물탱크를 만들었지. 우리 동네 자체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받아서 흘러오게 해서 공동으로 썼어요. 저 외국어 대학에서 물을 땡겨와서[당겨와서] 동네 위쪽에 물탱크, 금샘초등학교 앞에 물탱크를 만들었지...”

특히 김연옥은 구술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산에서 물을 끌어다 집에서 쓰는 설치를 처음 했는데 그 뒤로 이 방법을 개량해 간이상수도가 만들어졌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나 초등학교 4학년 때만 해도 우리집에 아버지가 산물을 넣어서 만든 수도가 있었어요. 그리하고 나니까 온 동네에 막 동네에 물탱크 만들어서 수돗물 넣는다고 그랬거든. 그런 물탱크가 동네에 있었는데 지금은 폭파했을 거예요. 그때는 남산, 남중, 신암 그렇게 세 군데에다 간이상수도가 있었어요. 신암에는 지금도 순복음교회 뒤에 간이상수도 물탱크 흔적이 있어요. 남중은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금샘초등학교 앞에 있었는데 그거 지금은 다 없어졌고 빈터만 있어요”

특히 남산동의 이러한 간이상수도는 설치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마을 주민들이 단체를 조직해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했다는 점에 남산동 마을공동체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조직적이고 긴밀하게 지속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신수연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여기도 예전에 간이상수도 썼어요. 간이상수도는 산에서 물을 모아서 소독해서 저장해두는 저장고가 있어요. 큰 물탱크가. 그리고 그걸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었어. 동

네 어르신들이 상수도 요금 모은 걸 가지고 돌아가면서 월급처럼 주고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더라고. 우리 오빠도 했지. 예를 들어서 물이 뭐 이상하다고 하면 올라가서 점검도 하고 했어요. (중략) 시수도가 있어도 우리는 [간이]상수도가 좋으니까. 그 가격이 싸니까 [간이]상수도를 썼지. 근데 못쓰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썼다는 거지. 10년 전까지만 해도 썼어요. 물이 너무 좋고 가격 싸니까. 간이상수도조합이 있었어요”

“당산 있었어요. 지금 남산, 뽕죽한 산, 거기 가면 지금은 다 흐트러졌는데 이끼가 낀 큰 바위가 있었어요. 요새는 당산제를 안 지내니까 바위가 흩어져 있던데 그게 당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를 지내니까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죠. 가운데 제단이 있고 양쪽에 돌을 세워서 당산을 모셨어요. 정월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당산제를 지내잖아요. 이제 제주가 어느 집이라고 하면은 그 집에서 제주를 돌아가면서 보고했죠. 건물은 없고요. 건물은 없고 그냥 바위만 이렇게 크게 있는데 줄도 이렇게 쳐주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죠”

이처럼 간이상수도 설치와 유지를 통해서 남산동은 김해 김씨와 은진 송씨 중심의 혈연공동체를 바탕으로 특정 목적을 위한 마을공동체 형성이 좀 더 조직적이고 긴밀하게 형성,



남산동마을 주민들이 사용했던 우물 터[2021년]



신암마을 간이상수도 개설 행사[1972년, 송진모 제공]

유지될 수 있었음을 알려준다. 다만 과거 마을 구성원들의 안녕을 기원하던 당산의 부재는 시대 변화에 따라 이러한 마을공동체가 점차 느슨해지고 결국은 해체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④ 요산 생가와 요산 문학관

요산 김정한은 실질적으로 남산동에 거주한 기간이 길지 않다. 남산동 주민들 역시 요산의 존재나 업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같은 공간에 살았던 이웃으로서의 인식은 크게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요산 생가 복원과 뒤이은 요산 문학관 건립 역시 구술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이 중립 혹은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김연옥과 조정두, 김종호는 과거에 봤던 요산 생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문학관 들어가는 입구가 김정한 씨가 태어난 집이고 그 안쪽은 새로 지었지. 지금 모습 이랑 조금 달라. 우리가 거기서 놀았을 때는 층계가 세 개가 있었는데 높아서 앉으면 다리가 안 닿았어. 근데 지금은 계단이 하나밖에 없거든. 마당에 다 묻혔지.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집이 역수로 높아서 범어사 절 같이 생겼더라고. 그 높다란 집이 낮아지고 평수도 작아졌지”

“옛날과는 판이하죠. 건물 자체부터가 엉터리죠. 옛날에는 진짜 있잖아요? 여기서 딱 보면 대감집 같은 그 집만 딱 눈에 보였어요. 지금은 복원했는데 복원도 순 엉터리 복원을 했어요. 그 집이 아니지. 그런 건물이 아니었어요. 지금 건물은 평범한 기와집처럼 만들어 놔는데요. 안에 내용 그 자체가 다 틀렸습니다. 그때는 좀 집이 뭐라 할까? 아주 그냥 고풍이 있고 품위 있는 집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아주 형편없는 조잡한 집이라 해야 해. 마을 사람들 안 가지. 잘 모르는 외지인들이나 가겠지. 나는 안 가”

“네, 한동네니까. [요산 선생님이 떠난 후]거기에 다른 사람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위채는 다른 사람한테 팔고 없었어요. 집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한집에 할아버지 뭐 손자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해서 몇 대가 함께 살았으니까요. 우리 할아버지 집도 굉장히 넓었거든요”

이러한 인식은 앞서 살펴봤던 김해 김씨 세거씨족의 마을 내 영향력과 관계가 있어 보인

다. 더불어 요산의 일가가 집을 팔고 일찍 마을을 떠나 오랜 시간 외부에 거주하며 마을 구성원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산 문학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나여경은 요산 문학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저뿐 아니고 문학관, 이 자체가 저희 문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머니의 집 같고, 고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문학인이 그럴 거예요. 타 도시의 문학관을 방문해도 문학하는 이들에겐 그 공간이 특별하게 다가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문학관이니 요산 문학관은 더 특별하지요. ‘어머니 집에 온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진다’, ‘마당에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어 눈이 시원하다’,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 등등의 각별한 감정은 문학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인데 글을 쓰는 문인들의 느낌은 더욱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요산 문학관에 가지고 있는 의견과는 정반대의 의견이다. 또한, 요산 문학관 건립과 생가 관리에 있어서도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호와 나여경의 구술을 확인할 수 있다.

“주차장도 없고 일단은 들어오는 입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문 있죠? 정문 바로 옆으로 펜스 쳐져있는 그 밑이 요산 뜰입니다. 거길 내려가는 계단을 넓게 만들어 벤치로 이용하고 방부목이나 그런 걸로 원형 무대를 만들어 시 낭송도 하고 관람객들에게 해설하는 자리로 사용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되는 공간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금정구에 있는 공간이니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요산 뜰을 그럴싸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면 좋겠어요. 문학로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건 그다음인 것 같아요. 문학관 안의 사정이 그런데 겉만 꾸미면 뭐 하겠어요.

금정구청에서 공원 조성에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문학관 홍보도 되고 관람객도 많이 찾을 텐데... 문학관에 대한 좋은 인상은 금정구와 부산시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내 기억으로는 그때 주민들은 별로 반발이 없었어요.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할 땐데, 그때 역할을 좀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조금 받았고, 부산은행에



요산 김정환 생가와 요산 문학관

이처럼 요산 문학관은 생가 복원 및 개관 이후 지역 주민과의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김해 김씨와의 연결성을 제외하면 남산동과의 유대가 거의 없었던 요산 김정환의 생애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차원의 지원과 함께 마을 주민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⑤ 청년회 활동

1980년대에 들어서며 남산동에는 청년회 활동이 무척 활발해졌다. 이러한 점은 산업화 및 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남산동 전체 인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남산동 청년회의 성장과 활동에 대해 김종호는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네, 옛날에 140명 정도 됐어요. 그때가 80년대 말? 86년도? 85년도? 87년도, 그때 정도에 남산동 청년회가 매우 컸고, 북면 지역에서는 부곡 청년회가 제일 컸어요. 그때는 결혼 적령기가 지금보다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회 활동을 할 만한 자원이 많았죠. 왜 그러냐면 그때가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장사하려면 처음 모르는 사람하고 친분을 쌓아야 하니까요. 여기 본토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뭐 땅도 있고 뭐 안 해도 굳이 왜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사람도 사귀어야 하고, 뭐 국수나 당근을 팔아 달라고 해야 하니까 (후략)”

이처럼 활발했던 남산동 청년회 활동의 이면에는 토박이들의 참여보다는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생존이 깔려 있었다.

⑥ 마을체육대회와 학우회

과거에는 이른바 북면 6개 동의 구성원이 모이는 체육대회가 열렸다. 구술자들 역시 당시 체육대회를 기억하고 있었다. 더불어 남산동에서 축구대회도 성황이었는데 축구대회는 학우회가 주축이었다. 당시 체육대회와 축구대회에 대해 신수연과 김종호는 다음과 같은 기억을 말해 주었다.

“가을 되면 동네별로 북면 이렇게 남산동, 구서동, 청룡동 해가 깃발 해가지고 동네별로 운동 잘하는 사람 뽑아서 그거하고 경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오래는 안 하더라고. 그리고 축구대회도 하고. 우리 둘째 오빠가 축구 선수라서 내 잘 알지. 그래서 결승까지 올라가고 우승하면 뭐 깃발 흔들고 그런 게 기억이 나”

“그게 청년회 축구대회가 아니고, 고등학생 모임으로 청운학우회라고 있었고, 또 대학생들 윗세대는 등운학우회라고 있었어요. 등운학우회에서 청운학우회 애들 잘 이끌어 줬죠. 그 때는 외지인들 별로 없을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6개 동(洞) 축구대회를 했는데 청운학우회에서는 고등학생들만 출전해서 하는 축구대회를 개최했고, 등운학우회는 일반인들까지 참가 하는 축구대회를 개최했어요. 청룡초등학교 아니면 금정중학교에서 하는데, 그 때는 북면 전체 잔치였어요. 굉장했어요. 그 기억이 있는 어른들이 지금도 많을 겁니다. 술도 걸어놓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동사무소 동장도 나오고, 동네주민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오고 그랬으니까 매우 큰 대회였죠. 그리고 그때 고등학생들도 그랬고 대학생들도 그랬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결속력이 좋았어요. 구서동부터 두구동까지 다 그랬죠. 대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 다음에 또 대학교 가면 자기 등운학우회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많이 이끌어 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랬죠”

특히 학우회는 세대별로 나뉘어 고등학생이 대상인 청운학우회와 대학생이 중심인 등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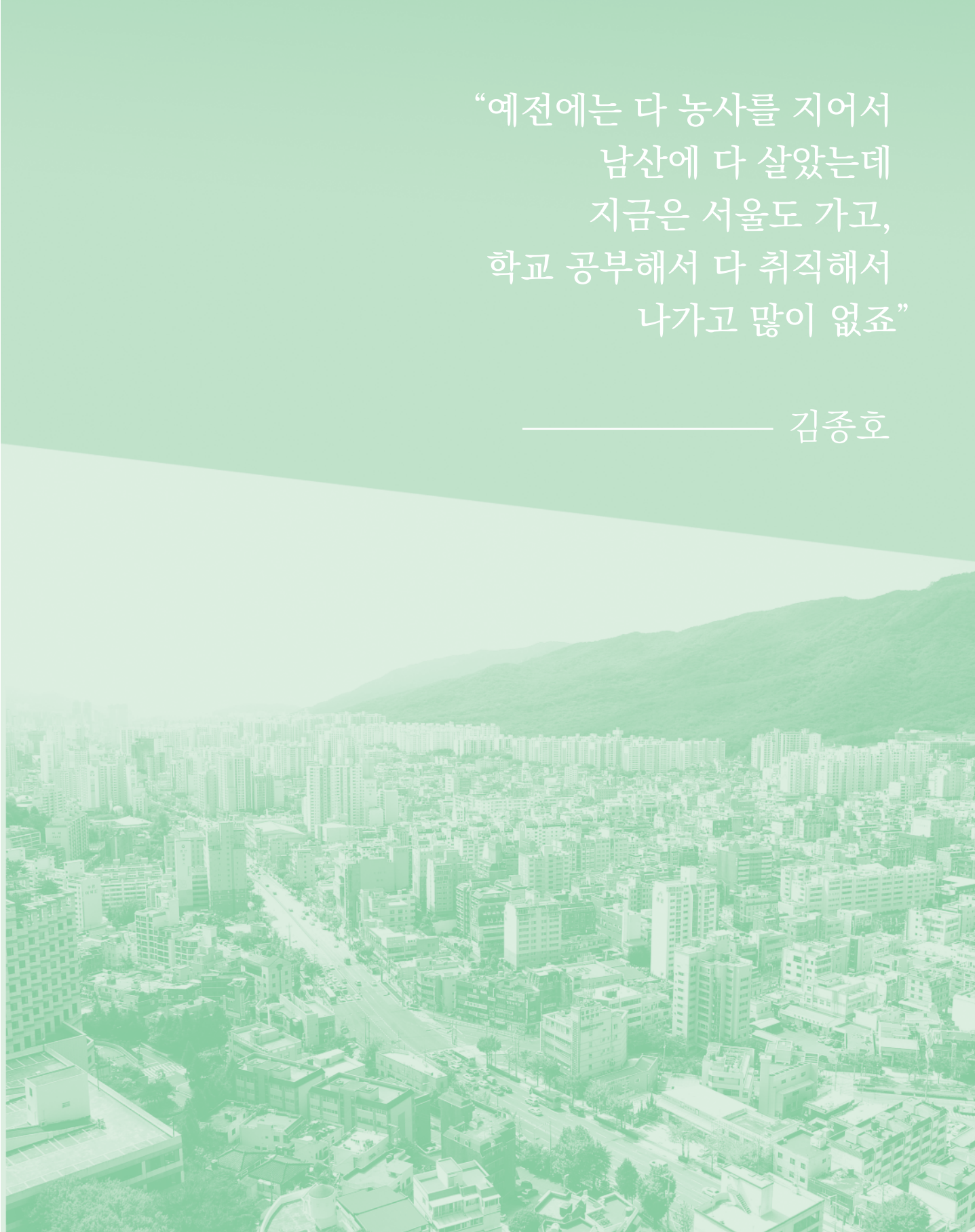
학우회가 존재했다. 상기했듯이 남산동의 활발한 청년회 활동은 이처럼 세대를 아우르는 끈끈한 학우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학우회가 주축이 된 축구대회는 청소년, 대학생, 기성세대와 행정기관까지 참여하는 남산동 전체의 잔치로서 마을 전체의 결속력을 단단하게 해주는 행사였다.



제5회 남산동 체육대회[1985년, 송진모 제공]

“예전에는 다 농사를 지어서
남산에 다 살았는데
지금은 서울도 가고,
학교 공부해서 다 취직해서
나가고 많이 없죠”

———— 김종호



김 종 호

- 1956년 남산동 출생
- 1980년 결혼
- 1986년 남산동 청년회 활동
- 2006~10년 금정문화원 사무국장 역임

김종호는 1956년 남산동에서 출생하였다. 김해 김씨 차종손 집안으로 어린 시절을 모두 남산동에서 보냈으며 청룡초, 금정중, 동의공고로 진학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파트 인테리어와 관련된 일을 했다. 1986년부터 남산동 청년회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련된 일을 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금정문화원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김해 김씨 집안으로 남산동 대소사에 두루 관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풍부한 구술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남산동의 1960~70년대 풍경과 주요 지명, 은진 송씨 및 기타 성씨와의 관계, 마을 청년회 활동 및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해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김종호의 김해 김씨 집안은 과거 남산동 본동 마을에서 크게 세력을 형성하였다. 현재 1924년생이신 모친이 생존해 계시며 7남매의 대가족이었다고 한다. 어렸을 적 보았던 남산동의 모습에 대해 자세하게 들려주었으며 특히 노인봉과 당산 및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던 청룡초등학교 옛 교정과 학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남산동은 과거 남산, 신암, 반남산, 남중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김종호는 구술을 통해 과거 자연마을들의 위치와 현재 위치를 비교해가며 설명해주었고 더불어 각 마을 명의 유래도 함께 말해주었다. 범어사는 남산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장소 중의 하나였다. 특히 절 소유의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사하촌이 형성되기도 했는데 남산동의 김해 김씨는 이러한 범어사와 인적, 물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

고 있었는데 김종호는 과거 김해 김씨 문종과 범어사의 인적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해 주었다.

남산동 주민들의 대부분은 청룡초등학교를 거쳐 대부분이 금정중학교로 진학을 했다. 중학교도 진학 시험을 치던 시절이었기에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한 해에 10명 안팎으로 동래중학교에 합격했다고 한다. 당시 부산중학교가 가장 명문이었었는데 남산동에서는 10년에 1명 정도가 입학할 정도로 진학하기 어려웠다. 고등학교는 부산고등학교가 가장 상위였고 동래고, 해광고 등으로 진학을 했다. 공고와 상고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여학생들의 경우 금정중학교가 남녀공학이었기에 함께 진학했고 동래고, 이사벨여고, 덕명여상 등으로 진학했고 경남여고가 가장 가기 힘든 학교였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기존의 농촌 중심의 경제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경제구조로 재편되고 있었다.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던 남산동 마을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농토에 공장이 들어서고 주택이 만들어지면서 마을의 모습과 주민구성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때마침 실시된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주민공동체 단위의 마을 활동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남산동에는 청년회와 애향회 및 각종 친목계가 형성되었다. 김종호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파트 실내장식 사업을 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한 업무를 맡기도 했다. 또한 금정문화원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으며 현재도 남산동에 거주하며 마을의 대소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과거 남산동마을 전경[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출생과 어린 시절의 기억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지금 65세[2020년 기준]인 김종호입니다. 그런데 호적에는 57년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체계적인 뭐 이런 공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가 고향이고, 조상 대대로 살면서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 교수님들이 잘 연구를 해서 후세에 남겨준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니가 아직 계세요. 어머니가 두구동 조리 마을 출생에 23년생이신데 호적에는 24년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딸 여섯에 아들 둘인데 다 내 위로는 다 누님들입니다. 그중에 한 명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지금은 7남매예요. 내 밑으로 남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동생은 59년생이에요. 제일 큰 누님은 이제 일흔 아홉입니다. 저랑 14년 차이가 나요. 옛날에 결혼도 빨리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열여덟 살 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시다 보니 나이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렸을 적 남산동 풍경 기억나십니까?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한 초등학교 1학년 그 정도부터는 기억이 좀 나요. 그때는 동네가 이렇게 안 복잡했다 아닙니까? 지금도 그대로고... 동네도 거의 뭐 구획정리를 했더라도 기억에는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기억은 하고 있지만 구석구석 나무가 어둡고, 돌맹이가 어

땡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죠.

말씀하신 뒷산이 금정산이죠?

그렇죠. 금정산이고, 남산 지명 이야기할 때 저기 범어사 쪽에서 옛날에 보면 절에서 보면 고당 봉이 있고, 그 밑에 노인봉이 있어요, 남산 바로 뒷산이 노인봉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봉에서 볼 때 이렇게 지나서 남쪽에 있다고 그때 남산이라 했거든. 그런데 그게 뭐 학술지나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고당 할미, 고당봉 쪽이 할머니 봉이고 노인봉, 그쪽이 할배봉인데 그 남쪽에 있다고 동네 이름도 남산으로 지었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고당봉 거기서 고당할미제를 지내요.

과거 남산동 행정구역이 어떠했습니까?

노포동, 두구동, 선동 이래서 6개 동이 동래군 북면 소속이었죠. 그때 면 소재지가 남산동입니다. 지금 그 남산동 동사무소 있는 그 자리에 원래는 면사무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랑 중학교도 거기 있었고... 그때 우리 초등학교[청룡초등학교] 바로 옆에도 논이었어요. 우리 5학년, 6학년들은 모심을 철이 되면 그 논에 우리가 모를 심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일부러 시켰겠죠?(웃음)

어렸을 적 남산동 인구가 많았습니까?

제가 청룡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우리 다닐 때는 여자 한 반, 남자 한 반해서 총 두 반밖에 없었어요. 원래 여기가 인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학년 때까지는 남녀가 다 같이 있었지. 5학년부터는 이제 따로 반을 했고, 그래서 뭐 예전에 여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거의 다 같은 반이니까 뭐 형님 되거나 동생 되거나 다 그랬지. 구서동 위로는 다 아는 사람이었지. 그러다가 우리 6학년 때인가 그때 희락원이라고 보육원이 생겼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희락원이 지금 양산 넘어가는데 보면 녹동마을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거기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전 청룡초등학교 모습이나 추억 같은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본관 자리에 있던 건물이 예전에는 2층 목조건물이었어. 지금 교문에서 본관을 보면 왼쪽

에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전에는 일본 사람이 살았겠죠. 우리 어렸을 적 학교에서 탄피하고 이런 거 막 주워서 가지고 놓고 그랬던 걸 보면 아마도 6·25전쟁 때 학교에 군인들이 주둔했던 것 같아요.

보육원이 근처로 오는 것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진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외지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다 농사짓고 나무하러 다니고 하느라 딱히 반대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 그런데 우리 남산동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부역이라 해서 한 집에 한 명씩 도로 막 이래 땅 고르고 하러 가고 한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는 안 갔지만, 그때는 어른들이 보육원 있던 녹동 거기로 부역하러 가고 그랬어.

청룡초등학교 전경[2021년]



부역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그때는 새마을운동 안 할 때니까, 뭐 “재건합시다”이러면서 사람들을 일시키고 그랬는데 요즘 처럼 돈을 지급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집에 한 명씩 반강제로 갔어. 그런데 그쪽에 갔던 어른들 말로는 녹동마을 그 뒤쪽이 옛날에 보도연맹이라고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인 곳이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어른들 이야기는 그쪽에 차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싣고 가서 죽였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도 내 생각에는 그 골짜기를 발굴하면 아마도 유골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기억은 정확하거든요. 북면 쪽도 그렇고 뭐 동래나 그 밑에서 차에 사람들을 싣고 와서 죽인 다음에 다 같이 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혹시 그곳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시나요?

대룡¹⁴이랑 녹동¹⁵ 사이라 이야기하더라고. 거기 아래쪽 마을이 대룡이고 위쪽이 녹동이거든? 거기 어디 중간이라 그러던데, 그 골짜기 정확한 명칭은 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해서 그쪽에서 총으로 쏘서 죽이고 했다고 하더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몇 년도인지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어른들이 부역 다녀오면 하던 이야기예요. 그 자리가 옛날에 보도연맹¹⁶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빨갱이도 아니고 공산당 그것도 아닌데 뭐 조금 협조하고 이랬다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서 죽였다 이래합디다. 저는 간 적이 없지만 어른들이 그쪽에 도로 보수하러 다녀오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 골짜기가 그런가보다 정도로 알고 있지.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자연마을을 말한다.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자연마을을 말한다.

16) 1949년 6월 좌익운동을 하다 전향을 한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다. 1950년 6·25가 발발하면서 보도연맹원들이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학살되는 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보도연맹원 중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평범한 민간인들이 포함돼 있어 대량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알려지게 됐다.

학창시절과 사회생활

남산동에서 진학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닐 적에는 동래중학교에 4명이 진학했고 우리 위에 선배들은 꼭 10명 이상은 갔는데 동래중학교가 시험 치면 1차였어. 그때 특별히 공부 잘한 애 중에 10년에 한 명 정도가 부산중학교 가고 안 그러면 다 동래중학교 갔지. 그리고 경남중학교는 여기서 너무 멀어서 거의 안 갔어. 부산중학교가 초량인가 거기 있으니까 그나마 다닐만한 거리였어. 부산중학교는 우리 한 학년 위에 선배가 한 명 갔었어. 그래도 부산중학교 가는 애는 거의 없었어. 동래중학교에 떨어지면 원예중학교, 금정중학교 갔지. 원예중학교가 지금 내성중학교야.

부산중, 고등학교가 당시 명문이었었는데 남산동에서도 진학자가 있었습니까?

부산중학교는 교통도 좀 불편하고 해서 우리 위에 선배들 중에 부산고등학교는 간혹 있었는데 부산중학교로 진학한 애들 거의 없었어요. 사실 중학교 때 그쪽으로 가는 건 사실 여기서 좀 힘들지. 그래도 그쪽으로 가려면 공부를 아주 완벽히 잘해야 했어요. 지금 거의 한 80살 넘는 분이 윤○천 씨라고 있는데, 한○였던가? 거기 사장도 하고 이랬거든? 그분이 지금 서울에 계신데, 그분이 부산고등학교에 부산공대를 나왔지. 그리고 제 4촌 형님 조카가 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분이 그때 부산고등학교를 갔다가 서울대학교 갔었고, 그 밑에 구서동에 있는 정○봉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한 네 해인가 다섯 해인가 위인데, 그 사람이 부산고등학교 가서 부산대학교 나와서 교수를 했던가 그랬어. 당시 부산고를 가면 그때는 못사는 시절이라 잔치를 벌이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했죠.

그럼 당시 여학생들은 어디로 진학을 했습니까?

여자 반에서는 동래여중이 최고였고, 대다수가 동래여중이었죠. 금정중학교가 그때는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금정중학교에 거의 갔지. 뭐 여학생들은 사실 자의(自意)로 선택할 학교가 적어서

갈 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자들은 주로 동래여고를 갔죠. 근데 뭐 우리 세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보냈어요. 그때 여기서는 동래여고 아니면 이사벨여고랑 덕명여상인가? 거기 하고, 혜화여고. 뭐 이 정도? 그때 학교가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중에 특히 경남여고는 머리가 좋아야 갔어요.

그럼 여학생의 경우 진학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어요. 우리 중학교 때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개가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집에서 학교를 안 보냈어요. 아버지나 엄마들이 그때는 못 배워서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뭐, 내 친구 하나도 병원에 취직해서 “야간고등학교 가라”이랬는데 결국은 못 견디고 안 가더라고. 그 당시는 여기가 거의 다 논이었으니까 취업 아니면 농사를 지었죠.

현재 나가시는 친목회나 모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동기회는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동기회. 우리 윗대나 밑에 이후로 동기회는 지금도 거의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사회활동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또 다 위에 누님들이 있고 이래서 취업이나 그런 것들을 막 급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좀 그랬었죠. 그래도 뭐 다른 데 좀 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갔고... 제대하고 나서는 혼자 무슨 장사도 하고 했죠. 그게 뭐 사실 요즘 애들처럼 뭔가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대하고는 어떤 장사를 하셨습니까?

처음에 완구장사도 해봤고, 나중에는 커튼 공사해서 아파트 구경하는 집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당시 제가 처음 할 때는 구경하는 집들이 없었는데 그쪽 시공하는 소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한 층을 얻어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그런 구경하는 집들이 막 생기더

라고. 그래서 그만뒀죠.

그때가 부산에 아파트 건설붐이 있었을 때죠?

그렇죠. 그전에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았는데 우리 제대하고 나서는 아파트를 많이 짓고 그랬어요. 그땐 뭐, 만덕도 가고 양산도 가고 했어요. 당시 아파트 한 층을 빌리면 우리는 커튼밖에 안 하니까 새시부터 뽕 돌리는 것을 하바키¹⁷⁾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¹⁸⁾ 그거 새시하고 뭐 이런 안에 인테리어 이런 거는 또 다른 업자들이 무료로 해줘요. 그럼 그 집은 우리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빌려서 그대로 다 두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시를 공짜로 하는 거고, 우리는 돈을 절약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서로 좋은 거였죠.

결혼은 몇 살 때 하셨습니까?

결혼은 좀 빨리했어요. 24살에. 아버지가 지금은 인제 우리가 환갑, 화갑이라 하면 나이가 아직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부모님 환갑 전에 결혼시켰어요. 그리해서, 내가 사실은 결혼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 뭐 그냥 시킨 대로 해서 결혼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위가 다 누님들이고 내가 장남이고 하니까 결혼도 빨리하게 됐죠. 내가 군대를 77년도에 갔다가 제대하고 6개월 뒤에 결혼했어요.

누가 중신을 서주셨나요?

우리 매형이 공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내가 공장에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일하러 왔었는데 사람이 참 괜찮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결혼했죠. 우리 집사람은 집이 선동인데 그때 나이가 스물네 살이었어요. 그땐 보통 남자가 스물여덟 이때 보통 많이 갔지. 스물일곱, 스물여덟. 나는 좀 빠른 편이었지.

17) 히바키(幅木), 벽면의 최하부에 바닥과 벽을 마무리하기 위해 붙이는 부재(部材)를 말한다.

18) 이러한 히바키를 한국말로 저지판이라고 부른다.

결혼하고도 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사셨나요?

저는 계속 같이 살았습니다. 재산 같은 경우 우리 집안은 특별히 논밭을 아버님이 다 처분하고 별로 없었지요. 그래서 뭐 별로 나눌 것도 없었고, 뭐 다른 집에도 그 당시는 거의 다 장남이 좀 많이 받고 했어요. 요즘은 다 똑같이 나누지만, 예전에는 장남이 제사도 모셔야 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니까 대다수 장남한테 많이 가고 차남이나 삼남, 이런 분들은 뭐 집 하나만 해준다든지 또 돈이 없는 집은 전세 하나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럼 다른 형제분들은 어떻게 분배를 했습니까?

저희는 거의 뭐 아버님 살아 계실 때 내 돈 조금 더해서 막냇동생한테 남산동에 땅을 100평 정도 사줬어요. 그때 제가 살던 집이 120평 정도였어요. 그렇게 거의 뭐 비슷하게 해주고... 두구동이나 남산동에 있던 논밭이 있었는데 그때 땅값이 막 오르고 이러니까 다 팔았어요. 아버님이 그런 쪽으로 좀 밖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때 누나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님들이 많으신데 관련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난 사실 기억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모이면 하더라고. 큰누나, 작은누나, 셋째 누나가 나랑 나이 차이가 크게 나니까, 학교 마치고 집으로 빨리 와서 나를 업으면 일을 안 시켰데요. 먼저 오는 누나가 나를 업으면 일을 안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때 이야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던데... 아마 엄마가 그렇게 했겠죠? 동생을 업고 있으면 애를 봐야 하니까 일 안 해도 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전기랑 원동기를 다루는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춘천댐 공사 할 때도 갔었고 조선 건직 공장에도 기술자로 갔었어요. 내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만 해도 기술 배우면서 엄하게 했겠죠? 그런데도 형제처럼 잘 지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매일 두 분이 집에 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 밑에서 기술 배운 분들이었어요.

아버님은 어떤 이유로 기술을 배우셨을까요?

아버님이 그때는 옛날에는 큰아들 말고는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아버지 말씀이 할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주고 책을 마당에서 다 불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제법 잘 살았거든요.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500석 가량 했대더라고. 그런데도 학교를 안 보내줘서 내려가

서 취직했는데요.

남산동에서 내려간다는게 어디로 간다는 뜻입니까?

시내로 간다는 거죠.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가서 기술을 배웠는데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래 밑으로 갔겠지. 그때는 동래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컸거든요. 향교나 이런 그게 다 거기 있었으니까. 서면도 밑으로 간다라고 해요. 아버지 말로는 막 해방될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일본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서면에 무슨 건물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일본 놈들이라고 안 가져왔다고 하신 기억도 나요.

김해 김씨 문종과 남산동마을

남산동에 입향한 김해 김씨 삼현공파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래 삼현파는 판도판서공파예요. 그 판도판서공파 중시조 할아버지가 관자 할아버지[김관(金管)]인데, 여기 남산동에 제일 처음 내려온 할아버지[김석희]가 그 관자 할아버지 13세손인가 그래요. 그 김극일 할아버지 아들이 6남매인데 그 중에 둘째 아들 김맹 선생님의 큰아들이 김준손 선생님이시고 이 분 아들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삼죽당 김대유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절효 선생님[김극일], 그리고 그 밑에 김대유 할아버지 5세손인 우리 석자 회자 할아버지[남산동 입향조]가 여기 먼저 내려왔거든요. 뭐 내가 말하는 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숫자에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뭐 정확하게 연도나 이런 존함이나 이런 건 잘 몰라요. 그 뒤에 송호당[김용위] 선생님부터 해서 김해 김씨가 남산동에서 세가 좀 커졌어요. 그리고 김기선 선생님이라고 안락서원 원장도 하신 분인데 이 분이 제 친할아버집니다. 그 요산 선생 부친이 기자 수자 쓰시는 기수고, 우리 할아

버지 기자 선자 쓰세요. 그렇게 두 분이 4촌지간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3형제였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10남매예요.

선생님 집안이 원래 종손이셨나요?

우리 할아버지까지 계속 종손으로 내려왔거든요. 거기가 종손이고 그 밑에 이제 우리 큰아버지, 필자 한자, 김필한인데 거기가 종손이고 또 그 집 아들이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주자 성자 쓰셨어. 그러니까 우리 4촌까지 계속 종손이었고, 우리 아들하고 그쪽 하고는 이제 4촌, 6촌이 되면서 자꾸 멀어지지.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6촌까지 다 큰집에 가서 제사를 지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마당에서 지내고 하는데도 자리가 없었어. 그래 하다가 아버지 세대가 돌아가시고 6촌들도 너희끼리 지내라 해서 4촌끼리 지내고. 원래 그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정도까지는 다 같이 지냈어.

그럼 당시 친척들은 주로 어디서 거주했나요?

우리 어릴 때는 주로 남산 본 동네하고, 남중에 몇 집 있었어요. 예전에는 다 농사를 지어서 남산에 다 살았는데 지금은 서울도 가고, 학교 공부해서 다 취직해서 나가고 많이 없죠.

그럼 선생님 집안과 송호당 선생님, 요산 선생님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호당 어르신은 항렬로는 우리 한참 밑에 할아버지신데, 예전에 송호당 할아버지가 정한이 아재를 공부를 시켰다 하더라고. 그때 뭐 송호당 할아버지가 논밭도 많고 해서 정한이 아재가 일본에 유학을 갈 때 돈을 대주고 했다고 들었어요. 아마도 4촌 조카?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송호당 할아버지 제사는 범어사에서 지내는데 우리 작은집에 가면 그 집에서도 송호당 할아버지 제사를 지냈었거든. 범어사가면 우리가 제일 큰 조상이라. 지금 저 경북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동해 쪽으로 올라가면 병곡 위, 울진 밑에서 전복이랑 조개 양식하시는 분이 나랑 6촌 간인데 그 집에서 송호당 할아버지 제사를 계속 지내요.

문중 모임이나 제사는 없나요?

남산재라고 우리 재실이 있어. 그거는 정한이 아재가 이름을 지었어. 그 뒤가 우리 문중 땅이었는데 전부 산이었거든. 지금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됐는데 거기 일부 땅을 종손이 내놔서 그 재실을 만들었어. 거기 재실에는 여기 처음 온 석자 회자 할아버지부터 5대, 4대 넘어가는 조상들은 다 모시고 있어요.

다른 주민들은 김해 김씨 문중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뭐 최○안 씨나 또 뭐 돌아가신 공○찬 씨, 또 장○영 씨도 있었고 송○만 씨 김○주 씨 이런... 김○주 씨나 송○만 씨는 김씨들 사위고, 신씨가 몇 집 있었는데 신씨 중에 한집도 우리 사위였어요. 근데 그 최○안이 형님이 하는 말이 “야, 옛날에 너희 남산 김씨들 대단했다”이러는 겁니다. 아무래도 세가 많다보니 유세가 좀 있었겠지? 그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또 나하고 친했고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 어떤 사람도 “야, 그때는 뭐 우리 꿈쩍도 못 했다”이러더라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게 문중이 크면 다른 문중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겠지. 아마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런 게 좀 있었겠죠?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같은 중학교 다니고 성씨하고 상관없이 명절 때 세배하러 다니고 어른들 집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 얻어먹고 떡국 얻어먹고 뭐 많이 했죠.

남산동 주요 지명과 범어사

남산동 지명유래나 옛 자연마을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범어사 쪽에서 볼 때 남쪽으로 산등성이. 내가 볼 때 노인봉인 것 같아요. 고당봉은 뒤쪽에 있으니까. 노인봉 산등성이 너머 남쪽에 있다 해서 남산으로 정한 거로 알고 있고. 머들은 우리는 그때 남중이라 안 했고 머들, 머들이라고 불렀어요. 머들은 어른들 이야기로 들으면 중간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그 옛날에 사전을 못 찾아봤어. 그러니까 돌무더기를 머들이라 하더라고, 돌무더기를. 그때 어른들 이야기로는 머들에 집이 몇 채 없었고 띄엄띄엄 한 채씩 있었다고 합니다. 남산은 [김해 김씨집성촌이니까 많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누가 결혼한다든지 하면 집 한 채 지어서 나가는 거지. 우리 집에서도 건넛집이라 부르고 이랬거든. 우리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집도 우리 집에서는 건너서 보이니까 건넛집이라고 했어. 그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집을 짓고 하나씩 거기가 중간이라는 뜻으로 하여튼 머들이라 했어요. 그런데 머들에 있는 노인정 이름이 머드레 노인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머드레하고 머들하고는 뜻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머드레는 논두렁에 콩을 심는 모습을 머드레라 하는데, 그레 아마 그분들이 뭐 고향이 이쪽이 아니고 말을 글로 풀어쓰다보니 머드레로 한 거 같은데 그거는 지명이 완전히 틀린 거고. 서검뜸도 내가 듣기로는 돌무더기가 많고 막 그래서 서검듬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송진모 형님이 어느 날 서검뜸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저게 칼 검(劍)자가 동네 이름에 들어가나? 보통 서(書)자는 들어갈 수 있는데...’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지명유래를 잘 아시는 분들이 알아보면 되는 거고. 그게 그렇다고 틀렸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신암에 암도 돌 암(巖)자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거기에 서금서당이 있었다 하더라고. 서금서당. 그러면 그 어른들이 왜 그때는 서금서당이라 하고 지금은 서검이라 하는지 이상하잖아요. 그 어른들이 분명히 더 잘 알 텐데... 은진 송씨들이 1700년 초에 온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서검뜸은 신암, 저기 외남산은 우리는 어릴 때 반남산이라 했어요. 반쪽이라 해서. 그 때는 우리 어릴 때는 그 동네만남산가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가구만 살았어요.

다른 지역에 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중간이 남산마을이면은 노인봉이 위쪽에 있잖아요. 그 위쪽이 범어사고 다음이 노인봉, 그 위가 고당봉, 그러니까 남산이겠죠. 남산에서 쪽 길이 나오면 여기가 바로 머들이었어요. 머들에서 쪽 나오면 여기가 큰길인데 청룡초등학교, 금정중학교가 있고 여기에 몇 집이 있었어요. 여기 근처에 조그만 언덕이 있었어요. 이 언덕을 넘어가면 신암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서검덤. 듚인가, 듚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검덤, 서검덤 했는데, 여기에 작은 동산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도랑, 조그마한 도랑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동자골이고, 머들 밑에 침례병원 건너편에 논밭, 거기가 석파탄이고. 남산에서 아래가 외남산인데 외남산이 어디냐 하면 그 외국어 대학교 바로 밑에 남산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남산고등학교 옆 동네가 외남산인데 거기서 더 올라가면 당산그랑이고 그 위가 배나무지기, 지금 노인정 아래가 팔발골이고... 하여튼 너무 오래 돼서 내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저기 남산 뒤를 밤밭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밤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밤나무를 우리 할아버지가 심었다고 알고 있어요.

유석교 건설에도 김해 김씨 문중이 관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온천천에 지금 큰다리가 하나 있고 조그마한 다리¹⁹⁾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조그마한 다리를 할아버지 세대[1913년]에 여러 사람들이 돈을 내서 만들었어요. 남산하고 머들을 연결하는 다리였는데 머들이 이제 지금은 큰 도로에서 쪽 들어가면 남산이고, 여기서 신작로로 들어가면 조금 넓은 광장이 있고, 여기 조그만 오두막집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머드레 노인정이 예전에는 동사무소였거든요, 유석교에서 내려오는 도랑 옆에도 다 논밭이고, 신암, 서검덤 넘어가는 여기 조그마한 동산 옆도 다 논이었지.

그럼 과거 소작을 하시던 분들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 집안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소작을 했던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집안이니까. 우리 8촌 안에 그러니까 6, 7촌 아재뻘 되고 그런 집들이 더러 있었어. 땅이 이만큼 있으면 이 땅을 자기가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나면은 뭐 40%를 주인한테 주고 60%를 가져가고 이런 게

19) 유석교는 개수를 거쳐 남산본동교로 이름이 바꿨다. 현재는 준공 당시 세운 기념비만 남아있으며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나름 많이 있었거든. 우리 어렸을 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토지개혁 할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어른들이 “저 땅은 누구 땅이고, 저 땅도 누구 땅인데. 그때 개혁하면서 가져갔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

남산동에서 3·1 만세운동 하셨던 분들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남산동에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김소돌²⁰⁾ 씨 부친하고 뭐 몇 사람 들어봤어.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심부름을 하다가 잡혔다고 했어. 어른들 이야기로는 만세운동도 못 하고 중간에 밀고자가 있어서 잡혔다고 하더라고. 누가 뭐 어떤 집은 뭐 하더라 하고 어디서 밀고를 했다고 했거든. 마을 주민인지, 어느 동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 그때 동래장터에서 만세운동도 못 하고 잡혔다 이런 말씀만 들었죠. 그리고 내가 문화원에 사무국장 할 때, 3·1운동 날에 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확인해보니 가족이 서울에도 있고 여러 곳에 흩어져있더라고 후손들이. 그래서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3월 1일에 제를 지내니까 오세요” 이렇게 연락을 다 드리고 했는데 그때 명단이 전화번호 하고 있었는데 다 없애 버려서 지금 누가 누구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 했



남산본동교 모습[2021년]
남산본동교 입구 우측에는 유석교 준공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유석교 준공 기념비[2020년, 심현호 제공]

20) 김연옥의 아버지이다.

고, 그리고 또 뭐 일제 강점기 때 곽상훈²¹⁾ 그분이 저기 선동 그쪽이 고향인데, 그분한테 순경이 계속 미리 연락을 해줘서 그 사람[곽상훈]이 출세하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은 분이 이름이 뭐라더라? 그 이름 있던데... 하여튼 그 사람이 순경이면서 사람들을 몰래 도와주고 그랬다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산업화 시기 남산동의 변화와 생활상

70년대 전후로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며 여공들이 많아졌죠?

그때 여공들이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죠. 그때 여공들이 어린애들, 그러니까 갓 초등학교 졸업한 나이거나 중학교 가는 이 정도 나이인 거 같아요. 버스로 막 싣고 와서 저 밑에 경남모직이나 알프스로 갔어요. 또 포스타, 그거는 기찰²²⁾쪽인데 거기로는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태광산업. 태광산업은 방직공장이었거든요? 태광산업은 큰 버스로 굉장히 많이 싣고 오더라고. 내릴 때도 보파리에 자기 소지품이나 옷가지 그런 것들 들고 내렸어요. 그렇게 어린 애들이 내린 다음에 줄 서서 공장에 기숙사로 가더라고. 그래,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린 여자들을 야간학교 보내주고 일하면서 공부하라고 데려온 거 같은데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

여공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여기 남산동도 조금 영향은 있었고 구서동은 굉장히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구서동에는 집마다 여공들이 자취를 안 한 집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팔려도 많이 팔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태광산업이 들어오면서 산업화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죠. 술집이나 식당들도 잘됐었고... 그랬었죠.

과거 남산동 청년회가 상당히 활발했죠?

네, 옛날에 140명 정도 됐어요. 그때가 80년대 말? 86년도? 85년도? 87년도, 그때 정도에 남산동 청년회가 매우 컸고, 북면 지역에서는 부곡 청년회가 제일 컸어요. 그때는 결혼 적령기가 지금보다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회 활동을 할 만한 자원이 많았죠. 왜 그리냐면 그때가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장사하려면 처음 모르는 사람하고 친분을 쌓아야 하니까요. 여기 본토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뭐 땅도 있고 뭐 안 해도 굳이... 왜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사람도 사귀어야 하고, 뭐 국수나 당근을 팔아 달라 해야 하니까.

예전 마을 축구대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청년회 축구대회가 아니고, 고등학생 모임으로 청운학우회라고 있었고, 또 대학생들 윗세대는 등운학우회라고 있었어요. 등운학우회에서 청운학우회 애들 잘 이끌어 줬죠. 그 때는 외지인들 별로 없을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6개 동(洞) 축구대회를 했는데 청운학우회에서는 고등학생들만 출전해서 하는 축구대회를 개최했고, 등운학우회는 일반인들까지 참가하는 축구대회를 개최했어요. 청룡초등학교 아니면 금정중학교에서 하는데, 그때는 북면 전체 잔치였어요. 굉장했어요. 그 기억이 있는 어른들이 지금도 많을 겁니다. 술도 걸어놓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동사무소 동장도 나오고, 동네주민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오고 그랬으니까 매우 큰 대회였죠. 그리고 그때 고등학생들도 그랬고 대학생들도 그랬고 자기들

21) 일제 강점기 부산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22) 부곡동 기찰 마을을 말한다.

끼리 굉장히 결속력이 좋았어요. 구서동부터 두구동까지 다 그랬죠. 대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 다음에 또 대학교 가면 자기 등운학우회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많이 이끌어 주고 조언도 해주 고 그랬죠.

요산 김정한과 요산 문학관

요산 선생님하고는 정확히 어떤 관계입니까?

요산 선생님이랑 아버지가 6촌 간이고 나랑은 7촌이죠. 그리고 우리가 묘사 지내고 할 때도 항상 오셨으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아버지가 21년생인가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한 열 몇 살 많았죠. 요산 선생님 태어나신 해가 한 1908년이나 1910년²³⁾ 그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제일 겁 내고 그랬죠.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었죠. 우리 어릴 때는 윗대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고, 또 실제 동네에 일은 별로 뭐 안 하시더라도 자기가 학교나 이런 곳에서 들은 게 있으니까 문중에서 한마디 하면 대다수가 두말없이 따라가고 그랬죠. 나이도 아버지 항렬 중에는 제일 많았으니까요.

그럼 예전 요산생가도 기억이 나십니까?

네, 한동네니까. [요산 선생님이 떠난 후거기에 다른 사람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위채는 다른 사람한테 팔고 없었어요. 집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한집에 할아버지 뭐 손자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해서 몇 대가 함께 살았으니까요. 우리 할아버지 집도 굉장히 넓었거든요.

23) 정확히는 1908년 생이다.



요산 생가와 요산 문학관 전경[2021년]



요산 생가에 걸린 요산연거(樂山燕居) 현판[2021년, 이창섭 촬영]

요산 김정한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본인이 밑에 조카들한테 엄하게 한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로는, 괜히 근접하려 면 좀 어려웠지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4촌 형님 아들이 사립학교 교사를 하고 싶 어서 부탁을 한번 했었어요. 일단 공립은 안 되니까. 그래서 가니까 벽에 있는 족자에 한자가 적 혀 있었는데 요산 선생님이 “야, 저거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때 좀 헛갈렸던 모양이야. 그러니 요산 선생님이 “야, 그래서 뭘 애들을 가리킨단 말이고” 하면서 단칼에 딱 잘라 말을 해. “너는 다른 일 해라” 우리 집안에서도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당연히 부탁을 잘 안 들어주 고 했거든? 그런 분이니 우리가 조금 어렵게 생각했어.

문학관 건립 당시에 주민 분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 기억으로는 그때 주민들은 별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반발이 없었던 것 같고, 그때 문제 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할 땐데, 그때 역할을 좀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조금 받았 고, 부산은행에서 그때 5억인가?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가 관리 못 한다, 가져 가라” 이랬는데 그 당시로는 여러 단체나 사람들끼리 알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제법 고집들 이 있었겠쎄. 그런 기억이 있고, 하여튼 개관식 할 때 문제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신분으로 왔었어요.



부산 문학의 거목 요산 김정환[2021년]

사하촌 내용으로 보면 범어사에서 요산 선생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이가 들고서는 범어사 스님들이나 불교계에서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걸 언제 느꼈느냐면 정한이 아재 시비(詩碑) 제막식을 하면서 우리가 기념 타월도 만들고 했어요. 참석자들 1장씩 줘야 하니까. 그런데 범어사에서 반대해서 제막식을 못 했어요. 물론 억지로 해도 되기는 되겠지만 “절에서 반대한다. 시기를 봐가면서 하자”고 해서 결국 안 했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런 소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도 우리는 뭐 “소설은 소설이지, 사실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랬지만 또 반대 입장으로 보면 “아, 이 범어사에서 그런 감정이 좀 안 좋은 게 안 있었지”하고 생각은 했지.

그럼 범어사와 남산동 김해 김씨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었겠네요?

그래도 문중하고는 부딪힌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정한이 아재 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해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문중이 범어사에 기록을 찾아봐도 송호당 할아버지가 시주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오성월 주지²⁴도 우리 집안에서 다 알고, 그분 집사람도 남산 쪽에 살았거든요. 동산스님²⁵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범어사하고 뭐 다른 감정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24) 오성월(1865~1943)은 경상남도 울산군 온산면 강양리에서 1865년 7월 15일에 출생했다. 이후 불문에 입적해 교학 수학, 참선 수행을 거친 이후인 1906년 1월 15일에는 범어사 전계화상(傳戒和尚)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1909년 7월 30일에는 범어사 섭리(攝理)에 취임하였고, 1911년 11월 17일에는 범어사 주지에 취임하였다. 1913년 1월 22일에는 범어사의 법계 시험에 의하여 대선사(大禪師)의 법계를 받았으며, 1915년 3월 12일에는 범어사 주지에 재임하였다.

25) 동산스님은(1890~1965) 1890년 2월25일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단성면 상방리 244번지에서 출생했다. 1913년 범어사 용성스님을 은사로 하여 출가하였다. 광복 후인 1953년 불교정회운동에 앞장서며 일본불교의 영향을 없애고자 노력하였다. 후학으로 성철, 지효, 지유, 능가, 고산 스님 등을 양성했다.

“아버지 생각하면
목이 메지.
남산동에 와서 고생,
고생을 다 했는데…”

———— 이영자·최일부





이영자 · 최일부

- 이영자 1946년 사천에서 출생
- 최일부 1940년 남산동에서 출생
- 현재 남산동 본동에서 표구사 운영

이영자는 1946년 경남 사천에서 출생하였다. 시골이었던 화전리에서 살았던 이영자는 6·25가 났을 때 무서워서 별별 떨었던 기억을 회상하였다. 아버지는 이씨(李氏) 왕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족보만 챙겨 피란을 떠났는데 야외에서 자야 했던 자식들을 위해 기꺼이 족보를 갈아 주었다고 했다. 또한, 하늘에서 붉은 폭탄 껍질이 비처럼 내리고 군인들의 구둣발 소리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겁이 났었다고 한다.

중학교 1학년 때 사천읍으로 이사한 이영자는 군무원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풍족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또한, 아버지를 따라 사천비행장을 구경하고 놀았던 일을 회상하였다. 사천은 비행장이 있어 변화했던 곳으로 특히 사천읍은 전기와 수도가 일찍이 들어와 불편함이 없었다고 한다.

학교에 다닐 때도 정규교과보다는 심오한 서적 읽은 것을 좋아했던 이영자는 중학교 졸업 후 도시로 나가고자 거제도 장승포에 있는 애광원을 가게 된다. 그곳에서 타이프 활용법을 가르쳐 준다는 소식을 듣고 갔으나 막상 그곳에는 타이프 기계가 없었다고 했다. 다시 사천으로 돌아오려던 찰나 양장을 배우던 아가씨가 그만두고 자리가 비게 되어 이영자가 대신 양장을 배울 수 있었다. 당시 시골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시골에서 먹던 고봉밥과 비교해 열악했던 옥수수죽을 버티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남들보다 빨리 양장을 배웠던 이영자는 양장점에 취직하기 위해 사천으로 왔으나 여의치 않아 언니가

살고 있던 부산으로 오게 된다. 금성[LG] 공장이 있던 초읍 부근에서 살았던 이영자는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저녁에는 미용을 배우며 지내다가 중매가 들어와 남산동에 사는 최일부와 결혼했다.

남산동을 알려면 자신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한다는 최일부는 아버지가 정관에서 남산동으로 오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장남이었던 최일부의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해서 일본으로 떠났다가 해방 이후 남산동으로 돌아왔다.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농기구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 주변에서도 알아줄 정도의 기술자였다고 한다. 당시 남산동은 농사를 짓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기구의 수요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최일부의 아버지는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집을 지었다고 했다.

최일부는 남산동에서 태어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또래 아이들끼리는 잘 지냈다고 말했지만, 아버지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아버지가 남산동에서 고생한 것이 생각나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최일부는 어린 시절에 마을 토박이인 김씨가 아닌 최씨인 것에 대한 서러움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영자와 최일부는 남산동이 구획정리를 할 때 두 채의 집중 바깥쪽 집을 개조해 표구사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영자의 출생과 부산으로 이주

이영자 할머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나는 사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컸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와서 미용을 배워 미용실도 했고 결혼을 했지.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고 영감님이랑 일평생을 살고 있지.

사천에서는 어느 곳에 사셨어요?

사천에서는 사천군 사천읍 평화동에 살았어. 지금은 사천시 평화동이지.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이씨(李氏) 왕손이었어. 세종대왕이 아버지는 15대, 나는 16대 후손이라는 것에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천 시골에 살다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천읍으로 왔어. 그 전에는 화전(사천시 사남면 화전리)이라는 촌에 있다가 14살 봄에 사천읍으로 이사를 와서 중학교를 졸업했어. 고등학교에 갈 수는 있었는데 내가 안 갔어. 그리고 아버지는 공군부대 문관²⁶으로 계셨어.

아버지 덕에 공군부대 안에도 가보셨겠어요.

그렇지. 아버지가 사천 공군부대 비행장에 문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가 뽕하면[특하면] 아버지 따라가서 조종사들하고 놀았어요. 엄마가 명절 같은 날이면 떡을 싸서 조종사들 가져다주라고 했거든. 그래서 가져다주면 조종사들이 비행기 안도 보여주고 비행장도 구경시켜 주고 비행기도 태워주고 했어요.

1946년에 태어나셨으니까, 6·25전쟁이 어렴풋이 기억날 것 같아요.

내가 4살인가 5살 때지. 그때 기억이 나. 엄마는 동생을 업었고 아버지가 나를 업고 언니 손을

26) 이영자가 문관으로 표현한 것은 군부대에서 사무를 보는 군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잡고 피란을 갔어. 그때는 사천읍으로 이사를 오기 전이라 화전리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서도 화전리는 들판 한가운데 있는 동네야. 그래서 거기보다 더 시골 산골로 들어갔어. 지금도 그 길을 그리라면 그릴 수 있을 거야. 피란 가다가 본 하늘이 지금도 선명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빨간 게 막 비같이 내렸어. 폭탄 껍질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린 내 눈에 그게 막 내리니까 개천 다리 밑에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6·25전쟁 시기를 보냈지.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가 이씨 왕조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챙기고 족보만 매고 다녔어. 피란 갈 때. 그런데도 족보를 돌이 꼭 있는 개천 위에 깔고 우리를 재우는 거야. 자갈이 아프니까.

어렸을 때인데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무서웠네요.

6·25전쟁 때는 부산만 남고 다 먹혔으니까. 화장실에 있으면 저벅, 저벅, 저벅 구두 소리가 나는 거야. 구둣발 소리가 점점 커지면 숨이 쉼떡 넘어가. 그걸 왜 그렇게 겁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서웠고 지금도 기억에 선명해. 그리고 그때 우리 5촌 당숙이 죽임을 당했어. 같은 화전에 살았는데 이북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죽일 때 같이 당했어.



사천에서 초등학교는 어디를 다녔나요?

초등학교는 삼성초등학교[사천시 사남면]를 나와서 사천중학교에 진학했지. 이사 와서 중학교 3년을 다녔고 고등학교는 갈 수 있었지만 안 갔어. 나는 학교에서 배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그래서 수업시간에 영어 과목인데도 다른 책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선생님들도 안 읽었을 책을 어디서 구해서 많이 봤지. 그때는 아버지 벌이가 괜찮아서 책을 구할 수가 있었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을 부자라고 했으니까.

사천 고향에서는 어떤 곳에 살았나요?

고향 집이 위채가 네 칸이었어. 네 칸이라는 말은 부엌이 있고 방이 세 개인데 가운데 마루는 제사를 위해서 약간 들어가 있었어. 부엌, 큰방, 제사 지내는 가운데 방, 작은방. 이걸 네 칸 접집[접집의 방]이라고 말했어. 화전에서는 우물물을 먹었는데 사천읍으로 이사 와서는 공동수가 있었어. 아마 1960년대 초반쯤이겠지. 사천은 비행장 때문에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어.

중학교 졸업 이후 뭘 하셨나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그냥 밥만 먹고 다닐 일은 아니고 뭔가를 해야 하잖아. 그래서 타이프[타이프라이터, Typewriter]를 배우게 됐어. 그때 처음으로 타이프가 나와서 이걸 배워서 밥벌이를 해보자고 배운 거지. 거제도에 애광원[거제시 장승포]이라는 곳에서 부녀자들에겐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해서 충무[지금의 통영]에서 배를 타고 장승포로 갔지. 근데 거기 타이프 기계가 없었나 봐. 그래서 못 배우고 거기서 주는 옥수수죽을 먹는데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못 버티는 거야. 시골에서 밥 꼭꼭 눌러 먹으면서 일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나도 밥도 그렇고 타이프도 못 배워서 다시 돌아오자니 차비가 아깝잖아. 시간도 아깝고. 그때 거기에 양재를 배우러 시골에서 올라온 아가씨 하나가 옥수수죽 먹고 못산다고 가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거기서 그냥 양재를 배웠어.

양장점을 하고 싶어서 부산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랬지. 거기서 양재를 배워서 내 원피스는 내가 해 입고 바지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알 정도가 됐어. 다른 사람들은 6개월 할 걸 나는 4개월 만에 하나까 더 배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배우는 걸 치우고 사천에 와서 양장점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안돼서 부산으로 온 거야. 부산에는 그때 언니가 결혼해서 살고 있었거든. 럭키 금성[부산진구 연지동 럭키 금성 공장] 앞에 언니가 있었어. 그때 내 나이가 17살, 18살이나 되었을 거야. 언니가 형부랑 세 들어 사는 집에 미용실도 있는 거야. 그 미용실 하는 집에 나랑 나이가 같은 사람이 있었지. 내가 사람을 잘 사귀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맨날 손님만 없으면 나보고 놀자고 해서 미용실에 가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이 기술을 배워놓으면 유사시에 내가 써먹을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래서 이제 저녁에 서면에 있는 미용학원에 다녔지. 부산에 와서는 양재는 안 하고 그냥 낮에는 일을 좀 하고 밤에는 미용을 배우고 했지.

최일부의 자기소개와 가족들의 남산동 이주

최일부 할아버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났어. 내가 지금 81살이니까 1940년에 태어났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다 살았다. 우리 원래 고향은 정관 신도시 있는 곳인데 할아버지 때는 거기 살았어. 옛날에는 마을 단위로 가족들이 모여 살았으니까 5촌이나 7촌 정도는 다 같이 살았지. 정관에서 친척들을 이루고 살다가 일부는 온천장에 내려가서 살고 일부는 좌천으로 나가고 이랬어.



남산동 전경[2021년]

촌락을 두고 남산동으로 이주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옛날에는 다 어렵게 살았잖아. 아버지 때에 요즘 말로 하면 일본으로 징용을 다 갔는데 아버지는 장남이라고 징용을 못 갔어. 근데 “일본은 돈을 잘 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가 자원(自願)해서 일본에 돈을 벌러 가셨어. 그리고 해방되고 난 뒤에 들어왔지.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일본에서 돈을 번 것을 우체국에 우편으로 부쳤는데 내가 가위를 가지고 그걸 오려서 엄청 흔췄던 기억이 있어. 어렸는데 뭘 아냐. 그래 그 이후에 여기에 왔지. 여기로는 내 외갓집이 이 동네거든. 어머니가 순흥 안씨(順興安氏) 제일 장녀야. 그래서 여기로 흘러들어온 거지.

남산동에서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우리 아버지가 농기구를 잘 만드셨어. 물론 농사일도 하셨지만, 농기구도 만들었어. 요즘 말로 쟁기지. 농사 관련 도구 만드는 사람으로 이 일대에서 아버지는 유명했어. 여기서 구서, 남산, 두구동, 월정, 정관, 덕계까지. 다른 사람이 만든 농기구로 땅을 파면 힘든데 아버지 농기구는 딱 맞춰놓은 것처럼 땅이 살살살 쉽게 파진다고 했어.

아버지 이야기에 목이 메시는데...

아버지 생각하면 목이 메지. 남산동에 와서 고생, 고생을 다 했는데... 고생 많이 했지요. 내가 지금 81살인데 친구가 열 몇 명 있는데 너무 시기²⁷⁾를 많이 하는 거야. 못 산다고. 남산동 여기 한 동네에서 하도 시기하고 까칠하고 그래서 눌러서 살았어.

27) 가난한 형편 때문에 토래 친구들에게 무시 당했던 것을 ‘시기했다’라고 최일부는 표현했다.

남산동에서의 삶

남산동에 김해 김씨들이 많이 살았는데 김씨가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 여기 거의 다 김씨지. 김씨들이 왜 이 동네에 터를 잡고 살았냐면 범어사 절이 있잖아. 김씨들 할아버지가 범어사에서 터를 잡았던 거야. 송호당 선생님 있잖아. 그 아래에 김정한 선생님도 있지. 집이 여기 있어. 그 양반이 소설에 중을 나무라고 꾸짖었잖아. 근데 그 사람은 한여름에 모시 적삼 해서 글만 읽고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1년 내도록 농사를 해서 절에 또 바쳐야 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러니 정한 선생의 글처럼 부당한 거야. 그래 그 양반은 기독교로, 다른 종교로 옮겼지만 그래도 뿌리는 불교야.





이영자·최일부 자택[2020년, 구술조사팀 제공]
최일부는 남산 본동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이후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온 이영자를 만나 결혼한 후 지금까지 이곳에서 생활해 오고 있다.

어린 시절 남산동은 어떤 곳이었나요?

내가 어렸을 때 남산 본동 안에 한 60가구 정도 있었어. 이 동네 위치가 옛날에 보통 하는 말로 소쿠리[바구니]를 닮았다고 했거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돈을 벌어 온 거로 이 터를 사 들여서 왔지. 아버지가 이 터에서 새로 집을 지었던 거지. 여기가 남산 본동인데 우리는 그냥 남산이라고 해. 집을 지을 때는 서로 도우면서 살았잖아. 우리 아버지가 좀 못살았는데 목수를 하는 집 몇이 있었거든. 그래서 서로 도와서 저 뒷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와서 집을 지었지.

10대 때 6·25 전쟁이 났는데 혹시 전쟁에 대한 기억은 나세요?

그때 내가 11살, 12살 때쯤이었겠네. 미군 탱크가 올라가는 걸 봤어. 지금 현재 도로에서 영천으로 경주로 해서 대구로 가는 탱크. 다른 길은 좁아서 안 되고 여기가 넓어서 그랬나 봐. 피란민이나 군인들은 전적으로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간혹 모여서 살고 그랬어. 범어사에 백골 부대가 들어왔고 청룡초등학교에 의무부대가 왔어.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임시 건물을 지어서 밖에 나가서 공부했지.

부대가 주둔했었다면 전기나 수도 같은 시설들이 일찍 들어왔을 것 같아요.

나 어릴 때는 전기 그런 거 없었어요.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그냥 옛날에는 집 옆에 가서 누고 오고 그랬던 시절인데 전기가 어디 있었겠어. 전기는 아마 1970년대 가까이 되어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

수도가 없어서 산물을 끌어다 썼다고 하던데...

산수도를 어떻게 했냐면 산에 가면 자갈이 있잖아요. 그걸 리어개[손수레]로 해서 실어다가 위에 물탱크를 만들었지. 우리 동네 자체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받아서 흘러오게 해서 공동으로 썼어요. 저 부산외국어대학에서 물을 땡겨와서[당겨와서] 동네 위쪽에 물탱크, 금샘초등학교 앞에 물탱크를 만들었지...

남산동 안에 마을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맞아. 남산이랑 머들, 저쪽에는 반남산. 반남산을 나중에 외남산이라고 불렀는데 원래는 반남



최근의 본동마을(좌)와 남중마을(우)[2021년, 이창섭 촬영]



최근의 반남산마을(좌)와 신암마을(우)[2021년, 이창섭 촬영]

산이라고 했어. 그리고 서검뜸이 신암, 머드레가 남중. 신암의 유래를 찾아보면 서 장군이 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 뜸을 떼가지고 칼로 지쳤다고 그래서 서검뜸이라 불렀다고 했어. 다른 곳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래로 이제 서검뜸이야 원래는... 그런게 다 집안 내력에 내려오니까 서로 알고 있는 거지. 요새는 서검뜸이라 하는데 원래는 서검뜸이라. 거기 송씨들이 그 이전에는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송씨들이 주를 이루고 살았지.

같은 성씨가 모여 있으면 그들끼리만 모이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같은 마을 사람이잖아. 이제 마을에 무슨 회의가 옛날에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이지. 김씨고 송씨고 박씨고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다 모였어. 그런데 대신에 주도는 주로 김씨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면 나머지는 보통 따라가지. 회의는 그쪽이 우리보다 수가 많으니까 따라갔어. 원래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 마을에서 살았던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맨날 나무하고 농사짓고 그런 생활이지. 다들 게 뭐가 있겠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면 등 따 시게따뜻하게 잘 수 있었지. 지금 집 앞에 다리남산 1교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옛날에는 돌로 났거든. 가운데다가 깬 돌을 쌓아서 징검다리를 만들었어.

다리가 놓인 하천을 뭐라고 불렀나요?

하천 이름은 그때는 뭐 그냥 굳이 뭐 지금 같이 범어천이니 온천천이니 그런 게 있었나. 그냥 냇가지.

하천 다리를 김해 김씨 문중에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가 되니까. 징검다리가 불편하고 농사지을 때 소달구지를 끌고 가려면 곤란하니까 그랬나 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리가 있었는데 지금 다리는 사라호 태풍 때 떼내려가고 새로 만든 거야. 다리가 아주 켜는데 그게 떼내려갔어요.

내가 어릴 때는 돌다리가 있었는데 떼내려가고 이후에 나무를 베어다가 다리를 만들었는데 또 밀려 내려가고 이래서 세월이 가다 보니 콘크리트로 다시 만들었지.

사라호 태풍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나요?

그때가 제법 오래됐잖아. 1959년 일 거야. 그때는 다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집이 떼내려가고 그러지는 않았어. 우리 마을은 좀 기울어져 있으니까 흙이 씻겨 내려가고 그 정도지. 그때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와서 젖은 밭을 말리고 정리해야 하는데 게으른 마음에 내버려 뒀더니 장마가 와서 농사를 다 망쳐버렸어.

어린 시절 기억나는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있나요?

맛있는 게 뭐 가재 잡고 고기 잡고 그래서 한 번씩 먹고 그랬던 거지. 옛날에는 뭐 별 것 있나. 부산이 그때만 해도 길이 없어 발전을 안 했잖아.

그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장에서 철마로 해서 갈치 이런 것들을 받아와서 곡식하고 바

꿔 먹기도 했어.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는 마을 사람들끼리 소 값을 조금씩 모아서 소를 도축해서 먹기도 했지.

소를 도축했다는 것은 남산동에 소를 키우는 집이 많았다는 건가요?

그때는 농사를 주로 했기 때문에 집집이 거의 소는 다 있다고 봐야지. 개 같은 거는 잘 없었던 것 같고 주로 소지. 우리는 소도 뭐 농사일이 많이 없었으니까 늦게 키워봤어.

예전부터 소가 있는 집은 부자라고 했죠?

그렇지, 그렇지. 거의 일꾼 대 놓은 것, 쉽게 말해서 머슴. 머슴을 데리고 놓고 사는 집은 소가 거의 다 있었지.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소들을 데리고 있었지.

마을 내에 회의는 많았나요? 주로 어떤 회의를 했나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 예를 들어 어느 집 아들이 못된 짓을 한다고 하면 그런 회의를 하기도 했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못된 짓을 한다든지 그럼 동네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하느말로 명석말이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 보통은 구장이 주관했는데 요새 말로는 이장이지. 구장은 마을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 구장 일도 알차게 하겠다' 이런 걸 대충 아니까 추천을 했지.

남산동 구획정리를 할 때 집을 현재처럼 수리하셨나요?

이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안쪽에 터가 옛날에 논 몇백 평이 있던 곳이었던데요. 그걸 구획정리할 때 팔아서 1983년도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살다 보니 할 만한 게 없고 그렇다고 공장에 다닐 마음은 없으니까 땅을 팔고 집을 지어서 건축 자재상을 하기도 했지. 점점 여기가 도시가 되니까 세를 얻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1층에서 표구집을 하게 된 거야.

농사를 짓던 곳이라 과거에는 남산동 마을 내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야말로 여기가 시골인 거야. 장을 보려고 해도 동래장이나 온천장을 가야 해요. 새벽

시장은 엄청 뒤에 생겼고 5일장 같은 것도 없었어요. 여기서 나가려면 파출소 앞에서 시내버스 49번을 타고 그렇게 다녀야 했어요.

49번 버스가 남산동에 있는 삼신 버스에서 운행하는 것이었죠?

우리 저 위에 삼신 버스가 있었어. 저기 삼신 버스 자리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을 메워서 삼신 교통이 생겼잖아. 구획정리를 하고 들어섰지. 아마 1970년대 후반 그때 언제쯤에 생긴 것 같아.

앞으로의 바람

지금도 밝은 얼굴이시지만 앞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바람이 있을까요?

물 길으러 다니고 그럴 때도 불행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수도가 들어와서 물이 척척 나오니까 그런 게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지. 내가 서울 명동 한복판에 높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 가진 여건과 조건 때문에 불행하거나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바라는 것도 없어요.

대신에 여기 남산에서 추억은 많지. 친구들이랑 봄 되면 한 번씩 관광을 가고 그런 게 기억나. 둘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거든.

“여기 남산동은
다 부지런해서
배고픈 사람이
없었어요”

————— 김연옥



김 연 옥

- 1960년 남산동에서 출생
- 1982년 결혼
- 1990년 남산동에서 횡집 운영
- 2000년부터 현재까지 금정구청 주차관리 업무 종사 중

김연옥은 1960년 남산동에서 출생하였다. 1남 3녀 중에 장녀이며 현재 산복도로 근처 김해 김씨 재실 근처에 본가가 남아있다. 증조할아버지[김택하]는 언양에서 거주하였는데 고조할아버지가 노름으로 재산을 모조리 잃자 가첩을 가지고 남산동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이후 남산동 김해 김씨 문종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남산동에 잘 정착했다.

과거 남산동에는 김해 김씨 외에도 다양한 성씨를 가진 주민들이 거주하였다. 김연옥은 할머니에게 김씨들이 오기 전에는 마을에 이씨들이 세를 이루었는데 가세가 기울고 김씨들이 들어와 번성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김연옥의 할머니는 남산동 김해 김씨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증조할아버지는 토박이 김해 김씨가 아닌 이주 전 김해 김씨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컸으며 자신의 할아버지는 범어사 3·1운동 당시 연락책으로 참여한 적도 있다는 말도 전했다.

김연옥은 남산동에서 태어난 토박이로서 과거 마을에 존재했던 주요 지명과 장소에 대해서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었다. 마을에 물이 솟는 일명 찬물샘이 있는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 마을 사람들이 다 이용했다고 했다. 전기는 1960년대 들어왔으며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 실시와 함께 남산, 남중, 신암에 자체적으로 수도를 연결하는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다고 기억했다. 과거 남산동의 경제 수준은 대부분 좋은 편이었으며 상업시설은 새벽시장과 오시계[烏시계] 시장을 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남산동 여성들은 대부분 금정여중, 학산여중으로 진학했으며 학창 시절 소풍은 대부분 범어사로 갔었는데 마을이 풍족한 편이었기에 도시락을 못 싸 오는 학생은 없었다고 기억했다. 학창 시절 소풍 길이나 친구 집으로 가는 길에 신암이나 상마마을[청룡동의 자연마을] 등에서 바위 밑이나 움막을 짓고 사는 걸인들을 본 적이 있다고 기억했다.

구술자가 유년을 보낸 1960~70년대 마을에는 다양한 친목 단체들이 존재했다. 특히 구술자는 향토에 향단 활동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마을 여성들은 나이에 따라서 애동패, 중패, 어머니패 등으로 불리는 친목계 활동을 했다.

김연옥이 기억하는 마을의 큰 변화는 구획정리 사업이었다. 구획정리로 인해 마을의 풍경이 크게 바뀌었으며 주변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며 남산동 및 주변 지역에 여공들이 다수 거주하게 되었다고 기억했다.

현재 요산 문학관으로 재탄생한 김정한 생가를 과거 공씨 집안에서 사들였는데 친한 친구 집이라 자주 갔던 덕에 예전 구조를 기억하고 있으며 현재 모습은 과거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김연옥은 22세 무렵에 결혼과 함께 남산동을 잠시 떠났다가 현재는 남산동에서 일을 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다.

남산동 정착과 가첩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산동에서 태어나서 남산동을 떠나지 못해서 계속 살고있는 60년생 김연옥입니다.

선대부터 남산동에 거주하셨던 건가요?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거 이야기하면 우리 증조할아버지 [김]택하 할아버지, 택하 할아버지가 여기 남산동에 오셔서 정착했는데 택하 할아버지는 머슴으로 여기에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 고조할아버지, 원래는 집이 언양인데, 언양에 우리 고조할아버지께서 노름을 너무 많이 해서 집안이 쫓박 망했네. 진짜 좋은 집에서 잘 살았는데... 인제 우리 집안의 어른신이 언양에서 “택하야 니는 그래도 여기 있지 말고 못 먹고 사니까 저 동래구 범어사 골짜기, 그 밑에 가면 스님들 그 땅... 소작농, 그런데 가면 머슴은 살아도 밥은 안 굶는다”란 말을 듣고 남산동으로 오면서 이 가첩²⁸⁾을 가지고 나왔대요. 이거 들고 가면은 밥은 안 굶고 어느 집 뿌리라는 거는 알고 살아야 한다고 이 가첩을 쥐서 챙겨 나왔대요.

그럼 증조부께서 남산동에 정착을 하고 어떻게 사셨는지?

증조부가 정착하셔서 농사짓는 집에 들어가서 그냥 머슴을 살았죠. 머슴을 살다가 우리 증조 할머니 만나서 결혼을 했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보니까 이(李)가였어요. 원래 남산동에 이 씨들이 많이 살았는데, 김씨들이 살기 전에는 이씨들이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씨들이 쫓박 망해가나갔다고 했어.

28) 부계를 중심으로 혈연관계를 도표 식으로 나타낸 한 종족의 계보. 세계(世系)·가계(家系)·내외보(內外譜) 등의 명칭으로도 불린다.

증조부가 들고 온 가첩에 대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김해 김씨들이 있는 거 그런 거는 잘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거야. 거기 가면 어느 머슴을 살아도 밥을 안 굶고 살기 때문에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가첩을 품속에 넣고 항상 일하니까, 집주인이 “자네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뭐고?” 그래서 그때 집 주인이 우리 할아버지 가첩을 보고 집안 사람 대우를 해주고 조금 참고를 했다는 일화를 들었어요.

증조부께서 남산동에 이주한 해가 몇년 도 쯤일까요?

족보에 보면 증조부께서는 1860년생이셨고 할아버지가 1905년생, 이제 아버지가 1932년생 이시고... 그렇게 삼대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1905년생이시고 증조부가 1860년생이니깐 40년 정도 시차가 있으니 그사이에 들어오셨겠죠.

언제쯤 집안 형편이 좀 나아졌을까요?

증조할아버지는 계속 남의 집에서 일을 하셨죠. 지금 우리 본동 가면 다 빌라가 들어섰는데 강○지 선생 집이라고 그 너른 집이 있었어요. 그분이 부산시 교육감 지내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 집에... 그 집 할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아무튼, 범어사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주위에 땅이 많아서 그분 집 헛간 쪽에 거기 살다가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또 뭐 맨날 열심히 해서 위에 집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갔다 소린 들었어요. 우리 증조할아버지도 힘들지만 열심히 사셨고 우리 할아버지도 열 몇 살 때 독립운동²⁹⁾하고 구속된 적도 있는데 청소년이라고 집행유예로 나오셨다고. 그 뒤에 우리 할머니하고 결혼하고... 우리 아버지, 삼촌도 일단 부지런하니까 돈을 모아서 또 아래쪽에 집을 샀다고 들었어요.

29) 3·1만세운동을 말한다.

조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얘기는 누가 해주셨나요?

할머니한테도 들었어요. 어릴 때 보면 동네 할아버지들도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들도 이야기 해 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해서 빨리 돌아가셨다고. 나는 우리 할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그때 돌아가셨네요.

그럼 유공자 혜택은 받으셨습니까?

범어사 인근에 있는 3·1운동 유공비³⁰⁾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김 영자 식자. 그런데 국가유공자는 못 받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제일 억울한 게 그건데... 아버지도 할아버지 국가유공자 신청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 관련해서 국가에 확인하려고 하면 김 영자 식자가 동래구에 두 명인데 정확히 누군지 물어보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항상 그러니 우리도 짜증이 나서 안해요.



범어사 문화의 거리에 있는 3·1운동 유공비[2021년]

30) 금정구에는 3·1운동과 관련한 유공비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곳은 범어사 문화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다른 하나는 금정중학교에 자리하고 있다.



금정중학교에 있는 범어사 학생 3·1운동 유공비[2021년, 이창섭 촬영]



금정중학교에 있는 범어사 학생 3·1운동 유공비[2021년]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셨다고 들으셨나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하셨대. 옛날에 범어사에 독립운동가들이 절에 숨어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좀 톨톨하셨대. 영식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저 동래구에서 연락책이 오잖아요. 그러면 편지나 쪽지, 서찰을 받아서 범어사로 가져다 주고 했어요. 애들은 검색을 안하니까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 다녔던 길이 지금은 등산로가 되었지만 지금도 남아있어요.

아버님께서는 6·25전쟁에 참전하셨죠?

네, 그때 학도병으로 가셨데. 이게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가 기술되니까 트럭을 몰아봐라.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그렇게 일주일 연습해서 6·25전쟁에 참전하셨대요. 운전 배워가지고 강원도 저기서 뭐, 물자 실어서 나르는 수송 그거 하셨다 하데요. 친정에 있는 우리 아버지 군대시절 사진보면 이거 학생모자 있잖아요? 그거 쓰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신 겁니까?

전쟁 끝나고 좀 지나서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전사 통지서를 받았대요.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 할매가 산이 무너지듯이 그랬는데 한 달 뒤엔가 동네 신작로로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기 깨때이 귀신 나타났다고, 막 그랬어. 우리 아버지 애칭이 깨때이였거든요. 위로 위낙 사람, 아들이 많이 죽으니까 뭐 어찌 보면 깨때이 하면 안 죽는다고 애칭을 만들어 났겠지 어른들은. 아무튼, 그러서서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야, 내가 그때 나타나니까 아이고, 다 귀신이라고 설설 피하더라” 죽은 사람이 살아왔다고.

마을과 관련한 어린 시절 이야기

남산동 김해 김씨나 은진 송씨에 대해서는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 할머니가 은진 송씨거든요. 신암에 송씨들은 자기들끼로 모여서 그렇게 살았죠. 우리 할머니는 은진 송씨라고 해도 송씨 집안하고 그렇게 뭐 친밀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쩌다 보면 송씨들이 우리 할머니한테 “뭐, 어디 어디 누구시네요” 이렇게 말은 하고 집안끼리 이야기했지. 그렇게 뭐... 막 친하지는 않았어요. 딱히 가문 그런 건 없고 무조건 그때는 부자면 된다. 뭐 이런 거죠.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 김해 김씨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언양으로 자주 가셨고 할머니도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보고 “우리도 김가인데 저 집도 김해 김가면 우리는 저 집에 친척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다, 우리는 그 집하고 친척 아니다” 그러니까 종호오빠³¹⁾가 우리 아버지가 엄청 깐깐하시고 철두철미하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언양으로 가서 제사 지내셨어요. 매년 명절마다 가셨는데 아버지 위에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는 안 가셨죠.

김씨나 송씨 외에 다른 성씨들은 어땠습니까?

예전에 이씨. 그러니까 이씨들이 번창했는데 여기 산을 깎는 바람에 이씨들이 몰락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를 백구토라 했거든요. 남산 아래가 백구토고 그 밑에는 또 순무통이라 했는데, 여기도 언덕배기처럼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남산마을이 있고 그 앞이 딱 막혀있으니까 그럼 이씨들이 모여 사는 곳 앞이 꼭 막혀있는 거지. 돈도 있고 다 부잔데 막히니까 갑갑하잖아요? 저거 뚫으라고 하고 산을 깎았대요. 깎고부터는 그 이씨들이 안됐데. 그때 산을 짝 자르니까 연기가 팍 나면서 새가 범어사 골짜기로 날아가고 그 산허리에서는 피가 났다 하더라. 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말로는 이가(李家)들은

31) 구술자 김종호를 말한다.

남산동에 살면 안 된다고 해요 사실. 그러면서 나 보고도 남산동은 “이가들이 살면 망해나간다고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씨들이 폭삭 망하고 김가들이 들어와서 살았지.

다른 성씨들 집은 어땠습니까?

딱 보면 요산 생가하고 그 강○진 선생님 집 그 집만 기와집이고, 그 집하고 기와집이 한... 몇 개밖에 없었어요. 한 여섯 갠가? 김해 김씨 있고 최씨 집 하나랑 신씨 집 있고...

여성들 모임이나 단체는 없었나요?

옛날에 우리 남산동에는 있었지. 근데 그 우리 또래는 없고요. 우리 할머니 또래 계모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엄마 또래 있었고 그 밑으로 우리 작은엄마 또래 있었고. 그러니까 애동패, 중패 무슨 패라고 불렀어. 제일 애기들이 애동패, 그다음에 중패. 뭐,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뭐 어머니패인가 하여튼 그런 거. 그래가지고 뭐 봄가을 되면 놀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안 하지. 우리는 은행 세덴데 전부다 80년. 그리고 친목으로는 남산동에는 주산계. 주산계 있었고 또 뭐 우리 아버지들 보니까 일심으로 하자 일심계. 뭐, 많이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추억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땐, 우리 초등학교 때는 향토애향단³²⁾해서 마을마다 있었어요. 토요일이나 뭐 되면 각 마을 향토애향단 깃대를 들고 구서, 남산, 청룡, 노포, 두구, 선동 그렇게 나눠서... 깃대 모양은 어렵듯이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무튼, 마을에 제일 큰 6학년이 그 깃대를 들고 가고 우리는 따라가지. 그런데 나는 그날 내 마음에 따라서 친한 친구가 저기로 가면 그쪽에 붙었다가 또 다른 친구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붙고 그랬어요.

학창 시절 소풍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린 주로 범어사로 소풍을 갔어요. 범어사 소풍 가면 요새 아이들은 물병을 들고 다니지만 우리는 물병 없어서 계곡물을 그냥 먹었어요. 가는 길도 많이 바뀌었지. 지금 경동아파트 자리 있잖아요? 저 위에 저기가 공동묘지였거든요. 우리 학교 소풍가면 그 수원지 거기로 올라가다가 공동묘지 그쪽으로 옆으로 해서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 때 학교에 몇 개 반 정도가 있었습니까?

내가 청룡초등학교 41회인데... 4학년 때까지 두 반, 5학년 때부터 세 반? 한 반이 70명? 이렇게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서 빵 줬잖아요. 부식 빵, 옥수수빵. 그거 먹고 싶어서 그거 좀 달라고 하면 절대 안주거든. 근데 그제 평소 때는 서로 그렇게 하다가도 소풍 갈 때 되면 온 운동장에 굴러다닌다. 소풍 가는 날은 먹을 게 김밥하고 많다고 그건 안 먹는 거지. 그런데 옥수수빵, 그거는 좀 못사는 애들한테 준 거였어요.

그 당시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었나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집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고 잘살았다 그래요. 아버지가 워낙 부지런하시고 엄마도 계산에 밝고 이러니까. 그런데 돈이 있으면 뭐해요? 회비를 안주는데. 초등학교 회비가 450원이었어요. 근데 돈이 없다고 안 줬는데 왜 그랬는지... 그걸 나는 몰라요. 돈 없는데 뭐. 그래 내가 지나가서 알고 보니까 농협, 금정농협이 처음 생겼어요. 농협 조합장에서 일하는 직원 오빠가 “내 요새 와서 이야기지만은 우리 농협에 돈 인출 할라고 갔다가 돈 없으면 너희 집 가면 돈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이 연탄장사, 쌀장사했기 때문에 현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럼 당시 남산동 사람들 생활 수준은 어땠습니까?

여기 남산동은 다 부지런해서 배고픈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없었고 이 동네 사람들 우리도, 지금 우리 막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린 참 가난하게 자란 아이들이 없다”하고 애들이 전부 다 도

32) 197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착수된 새마을운동과 발맞추어 조직되었으며 1972년에는 학생애향단도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시락 잘 싸 오고 그랬어. 뭐 항상 이 동네 밥 얻으러 오는 거지는 많았어요. 범어사 상마마을³³⁾ 이 나 신암 쪽에 바위 밑에 사는 사람들이 오면 부모님이 큰 바가지에 밥을 줬던게 기억이 나요.

바위틈에 살았던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돌 밑에 움막 짓고 범어사도 쪽에도 그렇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음식점이나 가게로 변했지만, 옛날에 여기는 그런 곳이 많았죠. 신암 거기가 돌이 많았거든. 내가 학교 다닐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다 보면 바위틈 밑에 사는 사람 많이 봤거든. 그런데 우린 겁이 나서 그런 데로 못 갔지. 범어사로 소풍가거나 놀러가면 바위틈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 기억에는... 녀마주이 같은 거죠. 예전에 할매가 말 안 들으면 녀마주이 잡아간다 그랬어요.

학교 이야기해주셨는데 여기서 진학은 어디로 합니까?

우리는 주로 동래로 갔어요. 동래여중, 금정여중, 학산여중, 이사벨여중으로 갔죠. 고등학교도 다 그쪽으로 가요. 여기는 고등학교가 없었으니까. 버스 타고 다녔는데 토큰. 그거 회수권도 했고 그 이전에는 15원 주고 탔어요. 15원 하다가 20원 올랐고 20원 하다가 회수권이 나왔어요. 회수권 나오고 토큰 나오고. 아침에 버스를 타면 완전 소나무 심지. 우리 여기서 타고 가면 지금 이 산업도로가 아니고 저쪽으로 신암에 보면 지금 신암 다리 말고 저쪽, 외인주택 있는데 거기 다리 하나 있지요? 거기 버스 쏘거든. 우리는 여기서 종점이니까 타고 가야 하잖아요. 그럼 신암 아이들이 좀 별나. 그 버스가 안내양이 앞에 타고 우리는 뒤에 타고 가면 창문을 다 열어놓고 별난 남자들이 책가방을 뒤로 던지거든? “좀 받아라”하면서 무조건 가방 던져놓고 저거 몸 타면 차장이 이렇게 차 흔들고 한 번 정리하고... 그랬죠.

33) 범어사에 삼베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된 마을로 마치 중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상마(上麻) 또는 상마전이라 불렀다.

마을의 공간과 관련한 기억들

남산동의 과거 지명에 대해 알고 있으십니까?

뭘, 여기는 남산동이고 남중이라고도 했고요. 팔송은 어떤 데는 팔송이라고 했다가 실리라고 했는데, 왜 실리라고 했는지는 몰라요. 반남산도 있었어요. 외남산은 안 쓰고 반만 남산이라고 반남산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남산동이라고 해도 딱딱 사는 곳을 그렇게 구분해서 불렀어요.

마을에 당산은 없었습니까?

당산 있었어요. 지금 남산, 뽕죽한 산, 거기 가면 지금은 다 흐트러졌는데 이끼가 낀 큰 바위가 있었어요. 요새는 당산제를 안 지내니까 바위가 흩어져 있던데 그제 당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를 지내니까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죠. 가운데 제단이 있고 양쪽에 돌을 세워서 당산을 모셨어요. 정월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당산제를 지내잖아요. 이제 제주가 어느 집이라고 하면은 그 집에서 제주를 돌아가면서 보고했죠. 건물은 없고요. 건물은 없고 그냥 바위만 이렇게 크게 있는데 줄도 이렇게 쳐주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죠.

예전에는 간이상수도가 있었죠?

간이상수도 내 초등학교 때 간이상수도 있었죠.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 동네 할 때 부산 시내에서 다 왔어요. 간이상수도를 부산 시내에서 첫 번째로 했으니까. 원래는 우리 옆집에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도 있고 바위틈에서 물이 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때 동네 아래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기가 힘드니까 옆집에서 샘물을 끌어 오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거지. 그런데 그러려면 옆집 마당을 파야 해. 그래서 그 집에 수도 하나 댈주고 우리 집에 하나 놓은 거죠. 우리는 그때만 해도 나 어릴 때, 나 초등학교 4학년 때만 해도 우리집에 아버지가 산물을 넣어서 만든 수도가 있었어요. 그리하고 나니까 온 동네에 막 동네에 물탱크만 들어서 수돗물 넣는다고 그랬거든. 그런 물탱크가 동네에 있었는데 지금은 폭파했을 거예요. 그



옛 새벽시장인 남산시장과 오시계시장[2021년, 이창섭 촬영]

때는 남산, 남중, 신암 그렇게 세 군데에다 간이상수도가 있었어요. 신암에는 지금도 순복음교회 뒤에 간이상수도 물탱크 흔적이 있어요. 남중은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금샘초등학교 앞에 있었는데 그거 지금은 다 없어졌고 빈터만 있어요.

새벽시장과 오시계시장은 언제 생긴 겁니까?

그건 다 최근에 생겼어요. 새벽시장은 1990년대 쯤에 생겼고 오시계시장은 원래 부곡동 동래시장 자리에 있던 시장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초에 동래에서 구서동으로 옮겨다가 1994년 노포동으로 다시 옮겨왔어요. 지금 구서 오시계시장은 2000년 초에 문을 열었는데 상설시장이고 노포동 오시계시장은 5일장입니다. 재래시장이에요.

과거구획 정리하기 전 주택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높은 집들은 없었죠. 저기 꼭대기에 지금 가면 우리 집, 빈집 있어요. 지금 삼복도로 밑에 커피

○작소 옆에 그 폭 꺼진 집, 우리 집 본가거든요. 지금은 빈집이 되어있어요. 그 지금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도 못 하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처에 태광산업³⁴⁾ 들어오고 여공들에 마을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여공들은 여기서 안 살았어요. 태광산업 들어올 때 구서동에 많이 살았겠지. 여기는 안 살았어요. 구서동에 공장이 들어서고 해도 여기는 많이 안 변하고 구획정리하고 난 뒤에 확 변했죠.

요산생가와 요산문학관

요산 문학관은 가보셨죠? 어떻습니까?

옛날과는 판이하죠. 건물 자체부터가 엉터리죠. 옛날에는 진짜 있잖아요? 여기서 딱 보면 대감집 같은 그 집만 딱 눈에 보였어요. 지금은 복원했는데 복원도 순 엉터리 복원을 했어요. 그 집이 아니지. 그런 건물이 아니었어요. 지금 건물은 평범한 기와집처럼 만들어 놔는데요. 안에 내용 그 자체가 다 틀렸습니다. 그때는 좀 집이 뭐라 할까? 아주 그냥 고풍이 있고 품위 있는 집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아주 형편없는 조잡한 집이라 해야 해. 마을 사람들도 안 가지. 잘 모르는 외지인들이나 가겠지. 나는 안 가.

요산 선생님에 대해서 예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

34) 부산광역시에서 창립된 화학 섬유 방직업체로 1969년 본사를 구서동으로 이전했다.

하면 우리 아버지는 다르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처럼 그렇게 인식할 사람은 아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 사람은 원래 남산동 사람들 하고는 그렇게 유대관계가 좋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야 그런데 요산 김정환 선생 우리 학교,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거 있었나? 우리도 모르겠다”하면서 다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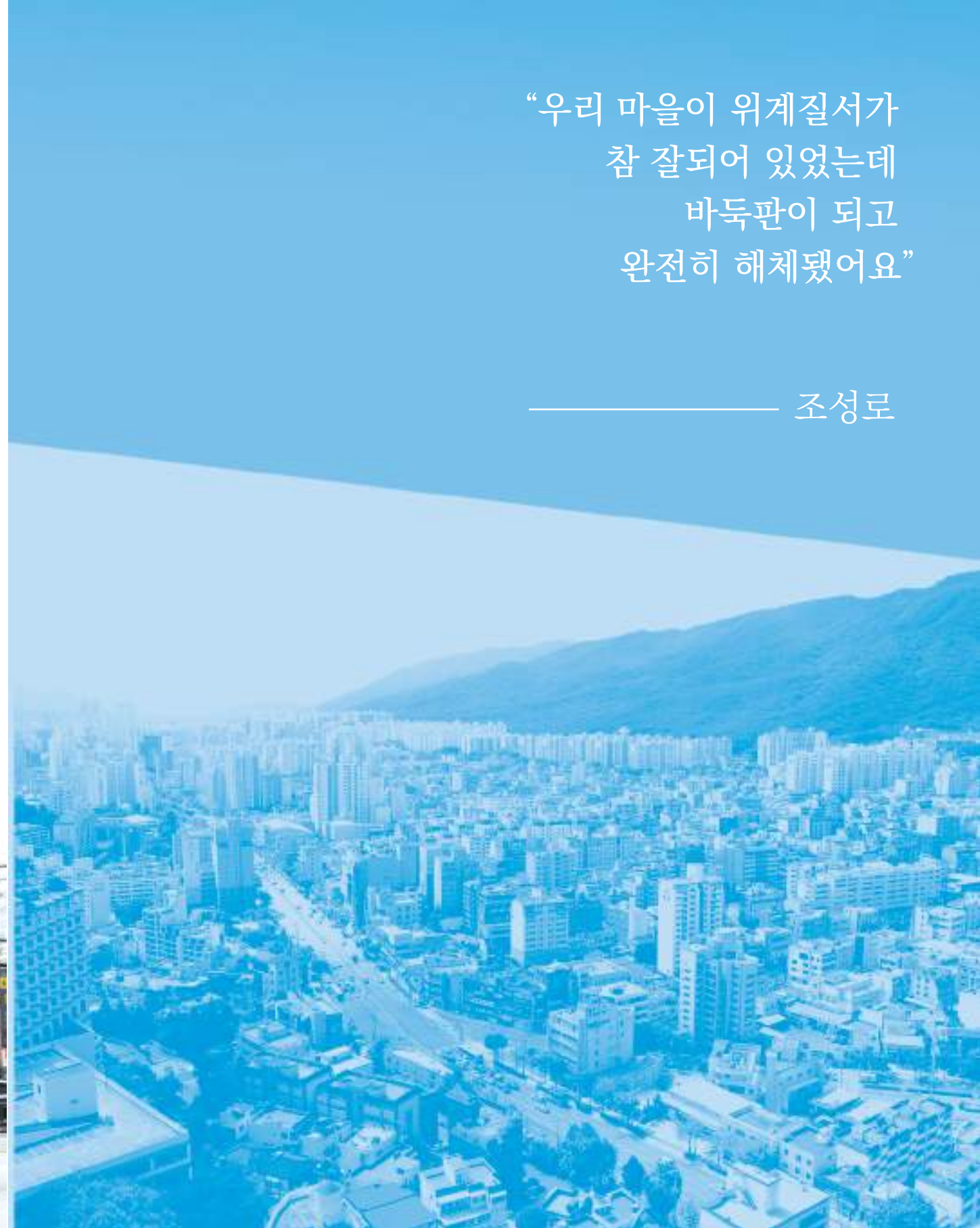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냥, 솔직히 우리 남산동에는 공장도 없고 그런 모텔 같은 게 전혀 없어서 참 살기는 좋아요. 근데 지금 너무 조잡하게 원룸, 연립주택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동네가 엉망이 됐어. 난 진짜 옛날처럼 좀 사람 사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지어서 앞, 뒷집 생각 안 하고 이게 뭐라 해야 할까요? 좀 자연경관도 생각해가면서 높이 제한도 좀 해주면서 해야 하는데 이거 완전 엉망이야. 그리고 마을 만들기 그런 거 하려 하는데 원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하기는 동에서 매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희망이 없어요. 예전에는 마을 아래에서 보면 우리집도 보이고 우리 집에서 저기 아래에서 누가 오는지도 다 보였는데 지금 뭐 전혀 안 보이니까 정말 예전과 다르죠.

“우리 마을이 위계질서가
참 잘되어 있었는데
바둑판이 되고
완전히 해체됐어요”

조성로

요산 문학로 전경[2021년]



조 성 로

- 1958년 남산동 출생
- 청룡초등학교, 금정중학교 졸업
- 현재 팔송쌀집 운영



조성로는 1958년 남산동 팔송에서 태어났다. 반남산에 숯 굽던 사람의 집을 사서 정착한 조성로의 할아버지는 남산동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아버지의 형제 중 막냇삼촌은 일제 강점기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혹시나 돌아올지 모를 막냇삼촌을 기다리며 조성로는 지금까지 남산동을 떠나지 않고 첫째 누나인 조정두와 남산동에 살고 있다.

팔송이라는 명칭은 야산에 소나무가 여덟 그루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한다. 당시 팔송을 ‘백구토’라고 불렀던 것과 어린 시절 논밭이 있던 마을의 모습, 산물을 받아서 마을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남산동에는 양씨 양조장이 있었는데 조성로는 농사를 짓던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탁주를 한 주전자씩 받아왔다고 기억했다. 조성로는 탁주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탁주 맛이 궁금해 조금씩 들이키고 얼큰하게 취해 부모님에게 혼났던 것, 부모님이 사준 고무신이 아까워 논두렁은 맨발로 뛰어다녔던 것, 개울에서 아이들과 물장구치던 것 등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했다.

특히 조성로 또래의 아이들은 마을길에 구덩이를 파고 물을 붓고 등거를 뿌려 지나가는 택시가 구덩이에 빠지도록 하는 장난을 치며 즐거워했다고 한다.

조성로는 청룡초등학교를 다니면서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눈이 잘 내리지 않던 부산에 눈이 내려 선생님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했던 기억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룡초등학교와 금정중학교 소풍은 항상 범어사로 갔는데 산을 걷는 것은 힘들었지만 즐거웠다고 한다. 왜냐하면 소풍을 가면 김밥을 먹을 수 있었고 보물찾기를 해서 연필

을 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청룡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면 운동장에 만국기가 펄럭이고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다고 한다.

금정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림상고[현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를 진학한 조성로는 친구들이 공부해서 직장을 찾았던 반면 자신은 가정형편이 어려웠고 공부에 취미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학창시절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힘들었던 사정을 너털웃음을 지으며 꺼내놓았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어머니가 쌀 상회를 운영하면서 중학교 시절부터 어머니를 도와 쌀 배달을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수레에 쌀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남산동 주변만 쌀 배달이 가능했으나 짐자전거를 사게 되면서 멀리 배달할 수 있었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원거리 쌀 배달도 가능했었다고 한다. 남산동에서 쌀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태광산업이 들어오면서 이곳으로 몰려든 노동자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성로가 어린 시절에는 마을 아이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굉장히 강했다고 기억했다. 위계질서는 나이를 중심으로 서열이 정해졌는데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동생들은 엄격히 따라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또래의 형들이 더 무서웠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청소년 집단의 알력다툼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 남산동은 오히려 순박한 시골 마을과 같았고 마을 사람들끼리 더 돈독한 관계였던 것 같다.

조성로는 팔송에서 오랜 시간 쌀 상회를 운영하며 바라본 남산동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마을 사람들 간에 음식을 나누는 정이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마을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구획정리 후 마을이 도시화하면서 옛날의 정취는 사라져 지금은 오히려 다른 시골로 가고 싶어진다고 말했다.

자기소개와 어린 시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조성로고 나이는 1958년생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9남매예요. 누나 네 분에 형님이 넷이었죠. 제가 막내입니다. 첫째 누님이랑 스무 살 차이.

할아버지가 몇 살쯤 남산동으로 이주해 오셨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서당에 다니셨던 건 알고 있거든요. 집에 할아버지 서당 졸업장이 있더라고. 경자년(庚子年) 땀가 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졸업장이 커요. 거기 훈장님 성함도 있는데 '박○우 씨'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할아버지는 남산동 어디에 정착하셨나요?

저기 금샘초등학교 밑에 어디에 사셨다고 했어요. 지금은 거기에 숲이 하나 있고 놀이터로 변

남산어린이공원[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조성로 선대가 살았던 곳으로 현재는 놀이터로 변했다.



했는데 당시 할아버지가 사시던 곳이 지금은 숲이 돼버렸어요. 주변에 논도 많았다고 하셨는데 논이 거의 50마지기는 됐다고 하시더라고. 거기를 반남산, 외남산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오셨을 때 우리 집이 풍족하게는 살았는데 자식이 참 귀했다고 해요.

반남산[외남산]이 숲 가마터였다고 들었습니다.

숲 가마터는 아니고, 그쪽에 사시던 옛날 사람이 숲을 구워서 팔던 사람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을 할아버지가 사서 거기서 계속 살았다고 그래요.

자식이 귀하다는 건 할아버님의 자식들이가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3남매예요. 근데 서류를 떼어 보면 7남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다 어릴 적에 7, 8살 정도에 죽었나 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계동'이라고 닭 '계(鷄)'자를 썼지. 말하자면 옛날에는 다 일찍 죽으니까 소똥이니 말똥이니 그런 촌스러운 이름을 쓰면 좀 오래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냇삼촌은 왜정시대 때 일본 후쿠시마 쪽으로 돈 벌러 21살 때 나갔거든요. 막냇삼촌이 큰아버지 댁으로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 삼촌이 사할린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나 돌아오실까 봐 이사도 못 갔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 살고 있는 거지, 혹시 찾아올까 봐. 언제든지 그 자손들이라도 찾아올 수 있으니까.

부모님은 결혼 후 어디에 살았나요?

우리 어머니가 금정구 두구동 수안 마을에서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반남산에서 여기 남산동 골짜기로 김○주씨 집 앞으로 이사를 왔대요. 이불이랑 뉘비만 들고 이주를 해서 애를 넷인가 다섯을 낳았대요. 거기가 687번지인가 그래요.

팔송을 예전에는 '백구토'라고 불렀다는데, 이유가 있나요?

우리 마을 보고 사람들이 '백구토'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냐고 물으니까 옛날에 도자

기를 구울 때 하얀 흙 있잖아요. 그게 그쪽에 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말 그대로 하얀 흙이 나오는 곳이라고 ‘백구토’라고 불렀어요.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바로 뒤에 한 100m,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었고 동산 이름이 ‘백구토’였어.

그 ‘백구토’에서 선생님도 태어나셨나요?

아니지. 나는 719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먹고살고 자투리 돈을 좀 모아서 719번지에 108평 정도 되는 땅을 샀어요. 지금은 번지수가 719-1, 719-2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 지금 거기가 아마 빌라가 들어서 있을 텐데. 저 위에 커피집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곳이 기름을 팔던 곳이었어요. 처음에 엄마 아버지가 나와서 살았던 곳은 엄마 말로는 헛간이었다고 했어요. 헛간을 사서 몇 년을 거치로 갠주겠다고, 이게 지금 요산 문학관에 김정환 할아버지한테 그 집을 사셨다고 했어요. 그 헛간을 사서 집을 지었지. 말 그대로 초가집이었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돈을 모으셨을까요?

말 그대로 논농사를 했어요. 그때 남산동 안에서 논농사를 많이 했거든요. 소작농이었지. 한 네 마지기 반 정도? 옛날에는 네 마지기 반이면 먹고 살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과거 마을의 모습과 추억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마을의 모습은 어땠나요?

진짜 뭐 완전히 뜬부기가 울고 그런 한가로운 촌이었지요. 뜬부기도 처량하게 울던 그때였어요. 지금도 저기 청룡초등학교 앞에 보면 우리 집 초가집 사진이 찍혀있어요. 집이 어떤 식이었느냐면 대청마루가 방 앞에서 한 4m 정도로 엄청나게 넓었지. 앞에 대청마루가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 방이 있고, 우리 방이 있고, 그다음에 부엌으로 들어가는 큰 문 두 짝을 열면 정지[부엌]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궁이에 불을 땠죠. 전기는 있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자는 방하고 우리가 자는 방 사이 벽에 구멍을 뚫어서 전구를 달아놨어요. 양쪽으로 다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어릴 적에는 호롱불이 없었어요. 남산동에 전기가 들어온 게 1965년인가 1966년인가 내가 초등학생 정도 되겠네요. 그때 불이 있었어요. 일찍 들어왔지. 근데 그때 물은 없었어요. 수도물이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위에 윤○선 씨 집 밑에 옛날에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대나무를 가지고배수를 해서 윤○선 씨 집 밑에다가 시멘트를 발라서 우물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차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퍼다 먹고 그랬죠. 그리고 또 산맥 물이라고 있었어요. 아랫각단[아랫마을]에 샘이 지금도 있어요. 그 물은 김연옥 집 바로 밑에 있어서 아래 각단 사람들이 쓰고 위 각단 사람들은 윤○선 씨 집 앞에 물을 썼지. 윤○선 씨 집은 지금 투썸플레이스에서 45° 각도로 보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계곡 바로 옆에 집이 있었는데 그 밑에 바로 탱크를 해서 계단을 만들어서 물을 나르고 하더라고요. 나도 어릴 때 주전자 들고 물심부름을 많이 했죠.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셨을텐데, 지금에 비해 굉장히 불편했겠어요.

화장실은 말 그대로 홍수였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그 밑에 독을 묻었죠. 큰 단지 두 개가 있었어요. 위에는 어른들이 누고 아래에는 아이들이 누는데 독 위에 나무 두 개를 올려놔요. 화장실 앞에 입구는 가마니를 찢어서 짝 벌리고 못을 쳐서 벽을 만들어 놔어요. 그리고 오줌 누는 데는 또 따로 있었어요. 통을 하나 놓아두고 맑은 오줌은 모아놔다가 정구지[부추의 방언] 밭에다가

뿌리고 그렇게 한다고. 거름으로 쓰고 그다음에 거기 인자 변 같은 거 그런 거는 누고 나면 옆에 아궁이에서 불을 때다가 재 같은 거 나온다 아입니까? 화장실 옆에 재를 모두는 요런 뚜렷[두렁]의 방언이 있었어요. 그게 다 꺼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놔 두었다가 불이 나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 마당이 제법 넓었어요. 아래채는 말 그대로 소 외양간이 있고 그 옆에 방이 또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기거하시더라고요. 소 죽 끓이고 하는데 한 번씩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거기가 제일 따뜻해요. 또 목욕을 소죽 끓이는 통에 들어가서 한 것이 어렵듯이 기억나요.

화장실 변이 쌓이면 그걸 푸러 오는 동장군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버지가 동장군 지계에 퍼서 그걸 논에다 퍼내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농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조그만 대바구니를 들고 소똥을 주우러 다녔어요. 예전에는 소똥을 안 치웠잖아요. 그걸 곡괭이, 쇠스랑, 호미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긁어모은 기억은 있습니다.

남산동에서 있었던 다른 추억들도 이야기해주세요.

추억 진짜 많죠. 아버지가 돼지를 사왔는데 그게 퐁구덩이에 빠져서 주디[입]만 내놓고 꽤 짹 소리는 지르는 걸 아버지가 귀를 잡고 꼬집어 올린 기억이 몇 번 있어요. 또 한번은 우리 셋째 누님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결혼식 전에 술 두 동이를 담아서 두엄 밑에 숨겨놨거든요. 손님 접대를 한다고 놓아둔 술을 자형들이 와서 단체로 다 퍼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이 없어서 청룡동 어디 모래 등대를 넘어가서 탁주를 받아온 기억이 있어요.

모래 등대를 지나 있었던 술도가 남산동 안에 있었던 건가요?

남산동이지. 화신 독서실 옆에 모래 등대가 있었어요. 청룡탕 가기 전 윤○선 씨 집에서 조금 올라가면 논두렁이 있는데 만화방을 가려고 해도 그 길로 갔거든요. 옛날에 만화방도 있었어요.

나도 만화를 보러 가서 5원씩 내고 보고 그랬어요. 만화방은 팔송 식육 식당 자리가 옛날 만화방 자리였어요. 탁주 집은 팔송 떡 방앗간 맞은편 터에 말 그대로 술도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어렵פות한 기억에 그냥 마을 사람이 술을 빚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파는 정도예요. 양 씨네 양조장이었지. 독이 3, 4개 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소를 데리고 논을 갈면 엄마가 “장독거리 가서 빨리 술 한 되 사 오너라” 그러거든요. 막걸리 한 되에 5원 했을까, 3원 했을까. 그래서 탁주는 한 되 사서 모래 등대로 팔랑거리고 오자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러다가 이걸 무슨 맛으로 어른들이 먹는지 궁금해서 탁주를 논두렁 위에 딱 올려놓고 뚜껑에다 부어 먹는데 ‘텁텁하고 맛도 없는데 이걸 무슨 맛으로 먹는가?’ 싶었지. 어린 나이니까 몰랐던 거야. 근데 먹고 나니 달짝지근한 게 한 번 더 부어 먹고 그러다 보니 얼굴이 빨개져서 엄마가 “이놈의 새끼, 심부름시켜 왔더니 지 혼자 다 먹고 술이 돼서 왔노”라면서 혼나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마을 아이들끼리 모여 짓궂은 장난도 많이 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남산동에 차가 귀했어요. 남산동에는 다리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전에는 개울이 엄청나게 넓었어요. 다리가 남산 1교거든요. 거기 물이 넘치면 학교 안 가고 그랬어요. 근데 남산동에 누가 결혼식을 하면 꼭 택시가 들어오는데 청룡초등학교 후문 논두렁으로 차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애들 7, 8명이 곡괭이, 호미를 들고 방앗간에서 등거를 한 자루 가져와서 구멍을 파서 물을 붓고 등거를 넣어놔요. 그러면 옛날엔 흙길이니깐 물이 금방 안 내려가요. 그렇게 하고 애들이랑 논두렁에 배를 깔고 앉으려 기다리면 택시가 지나가다가 빠지고 빠지고 결국엔 서야 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서 웃고 그러는 거야. 당시에 놀 거리가 없으니까 그



최근의 남산동 온천천 모습[2021년]
남산동 주민들은 온천천을 ‘그랑’, ‘넛그랑’ 또는 그냥 ‘하천’으로 일컬어왔다.

렇게 장난을 치면서 놀았어요.

하천이 넓었으면 거기서도 아이들이 많이 놀았겠어요.

하천에서 고기 잡고 가재 잡고 많이 놀았죠. 어리니까 훌쩍 벗고 남녀 구분 없이 막 들어갔어요. 개울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워낙 깨끗해서 그 물을 먹기도 했어요. 우물 대신에 그 하천물을 퍼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수영천에서 올라오는 건지 모르지만 장어가 많았어요. 요새로 치면 꾸물장(먹장어)이지. 돌 틈에 숨어 있는 걸 어른들이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자라도 많이 있었어요. 그 물이 얼마나 깨끗했느냐면 송사리 잡으러 다니는 게 일과였어요. 학교 다녀오면 책 보파리 던져 놓고 우리 집 뒤에 오죽(烏竹)이 많았는데 거기서 1개를 따가지고 줄을 하나 구해서 낚싯대를 만들어서 보리밥 미끼에 참기름을 발라서 담가 놓으면 한 대어섯 마리는 금방 잡아요. 그 걸 먹는 게 아니라 어항을 만들어서 키운다고 그렇게 했지.

대나무밭에서 계란 서리도 많이 하셨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옆집 닭장에 장닭(수탉)이 서너 마리 암탉이 열댓 마리가 있었는데 오죽이 있는 대나무 밑에 닭들이 알을 낳아 뒀어요. 그걸 곰밥을 해 먹는다고 가져오고 그랬지. 계란 안에 쌀을 넣어서 해 먹는 걸 곰밥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린 마음에 계란을 구워 먹는다고 불을 피웠는데 나무를 장작을 썰아 놓은 것을 홀라당 다 태워 먹었어요. 장작을 다 태워 먹었다고 아버지한테 회초리로 많이 맞았는데 그때 태워 먹은 그을음이 20살까지도 나무에 남아있었어요.

마을 안에 목욕탕은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 죽 술에 들어가서 목욕했죠. 1년에 한 번 연례행사가 목욕탕에 가는 거였어요. 그때 여기서 엄마 따라 6, 7살까지 온천장 녹천탕에 목욕을 하러 갔어. 그러면 6살 짜리를 데리고 온다고 혼 많이 났어요. “이노무 새끼 다 큰놈을” 목욕탕에 여탕에 들고 들어왔다고 “이러면 되는교”하면 엄마는 “5살 정도밖에 안 뻤다”하면서 실랑이를 했지.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나요?

2학년 때 구○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학교가 담도 없고 옆으로 탕자나무가 있고 논두렁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때는 학교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했는데 크고 보니까 작더라고요. 구○희 선생님하고 눈싸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 그 해에 눈이 왔는데 부산에 눈이 내리는 일이 잘 없잖아요.

학창시절 소풍은 어디로 가셨나요?

소풍은 만날(맨날) 걸어서 범어사에 갔어요. 범어사에 딱 올라가면 일주문을 지나 하마비가 있어요. 그 옆으로 계속 올라가면 고당봉 가는 중간에 숲이 상당히 좋은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소풍을 가는데 소풍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김밥도 먹고 보물찾기도 하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가 운동회였을텐데, 혹시 그때의 기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운동회에서 달리기하면 만날 쫓지만 따라 다녔지. 옛날에 청룡초등학교 운동회 날이면 완전히 온 동네 잔치판이었지. 선동, 두구동, 구서동, 청룡동에서 다 와 가지고 술 걸어 놓고 돼지국밥도 막 끓여 먹고 했어요. 그 주변 일대에 아이들이 다 청룡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만국기가 펄럭이고 솜사탕이나 아이스크림 장사꾼이 오고 그랬어. “아이스~께끼”하면서 통을 매고 다니면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시원한 걸 꺼내면 연기가 막 올라오고 단 것이 얼마나 맛있겠어. 근데 나는 못 사 먹었지. 돈이 없으니까.

청룡초등학교 이후에 진학은 어디로 하셨나요?

중학교는 뽕뽕이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은 동래중학교, 내성중학교도 갔어요. 옛날 중학교 해봐야 내성, 동래, 금정, 부곡, 동해중학교가 있었지. 구지뽕기(제비뽕기)해서 3번이 걸리면 동해중학교고 1번이 걸리면 금정중학교였어요. 저는 금정중학교에 갔죠. 근데 금정중학교가 범어사 재단이라서 불교 선생님이 따로 있고 이사장도 불교고 주지 스님이었어.

요. 그래서 청소하러 범어사에 많이 가고 수계(受戒)도 받았어요.

학했던 중학교에 따라서 마을 아이들이 차이가 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열심히 공부한 아이는 교육자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좀 더 틀어서 좋은 공장에 가거나 은행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육성회비를 못 내면 학교를 못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당시 때 이제 농사도 있었지만, 농사 그거 벌어 갈까 먹고살기는 빠듯했다 아납니까? 진짜 빠듯했지. 내가 중학교 다니고 뭐 내가 머리가 다 컸을 때는 뭐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는 알았지.

어머님은 남산동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장사하셨죠. 쌀장사. 50살 때부터 장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쌀장사했어요. 내가 국민학교 4학년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협성아파트 그 앞에 아파트 거기 옛날에 양산 버스 올라가는 차표 집이 있었어요. 차표 집. 양산, 울산으로 올라가는 차표 집. 그 집 옆에 아마 점포를 냈어요. 점포를 내서 거기서 15년이나 장사를 했죠. 예전에 쌀 상회에서 쌀만 파는 게 아니라 쌀, 콩 뭐 다 팔았죠.

과거 남산동이 농사를 지었던 곳인데 이 부근에서 쌀장사가 되나요?

여기 당시에 태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왔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이마트 앞에 태광산업이 생겼잖아요. 거기 각지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종업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마트 있던 자리가 옛날 태광산업 숙소 자리예요.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두실이나 남산동, 청룡동에서 자취를 많이 했어요. 그분들한테 쌀을 팔고 논농사 안 하는 사람들에게도 팔고.

남산동에서 쌀을 사서 팔았나요?

아니요. 언양이나 양산, 동래 장에서 쌀을 좀 싸게 가져와서 팔았어요. 그때 정부미가 각 쌀집으로 공출이 나왔어요. 판매하라고 우리 집에 한 달에 40kg이 10개씩 왔는데 그걸 다 팔았어요. 말 그대로 정부 안남미 그런 것도 받아서 장사하셨죠.

어머님이 쌀 장사를 해서 어린 시절 밥걱정은 없었겠어요.

그렇죠. 쌀 걱정은 없었는데 큰 이문은 없어도 먹는 것 걱정은 없었죠. 근데 누님들이 시집을 한 명 가면 백만 원 정도 빚이 넘어오더라고요. 그걸 갚아야 하는데 쌀장사 이문(利文)으로는 안 되니까 옛날에 강○기씨 집에서 돈을 많이 빌렸어요. 거기가 교육자 집안이라 돈이 잘 돌아가니까 마을 사람들도 많이 빌렸나 봐요.

마을 사람들의 관계와 또래 집단의 위계질서

남산동 마을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모였나요?

이 동네는 구장이라고 하는 이장 제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집집이 한 명씩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다. “몇 날, 몇 시까지 오시요”, “동사에 몇 시까지 모이라”, “8시까지 오나라”, “빚자루, 삽 들고, 뭐 호미 들고 다 오시요”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마을에서 풀도 뽑고 마을 바깥까지 끌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남산동 저기 외대, 산골짜기에 저서 내려오는 물이 있었고 윤○선 씨 집 바로 뒤에 탱크가 있었거든요. 또 우리 어릴 때 ‘사기집 못(옛 가마터)’ 불렀는데 거기서도 물을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런 물 받는 곳도 청소하고 풀 뽑고 그랬죠.

마을 집단 사이에 관계는 어땠나요?

내가 58년생이니까 우리보다 서너 살 많은 사람은 청룡동하고 남산동하고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고등학교 1학년 16살, 17살쯤 동네에 함진아비가 왔는데 그때 친구들과 그 함잡이를 두들겨 뺐어요. 우리보다 10살이나 많을 건데 “함 사세요”하니까 우리는 어린 패기에 남산동에 와서 시끄럽게 한다고 그랬던 거야. 저 화신약품 언저리에서 사람을 때 가지고 신

랑 친구들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으니. 마을 형님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집합시켜서 억센 손으로 볼때기를 막 때리는 데 정말 아프더라고. 그래도 아프다고 할 수 있나 신랑을 반 죽도록 두들겨 뺐는데….

또래집단의 위계질서가 철저했네요.

엄청나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어요. 부모님께 혼나는 것보다 형님들한테 혼나는 게 더 겁났어요. 맨날 두들겨 패고 뭐 인사해야 하고.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많이 안했다”, “누가 지나가는데 반말했다 하더라” 그거 조목조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그리해서 “이놈의 새끼들 너희가 언제 몇 시에 어디로 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다” 그랬어. 그 동네 어른들이 형님들한테 이래 이야기를 해주는가, 어찌 된 건가? 정보를 속속들이 알더라고. “이놈의 새끼들 담배 피웠다 하더라” 이걸 그리해서 한 날은 백구통이라고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백구통에 “모이라[모여라]”하면 가서 “앞드려 뽀뽀”하면 곡괭이 자루 갖고 막 궁디[엉덩이]를 두들겨 패고 그랬어요. 근데 불만이 없습시다. 뭐… 형들이 두들겨 때면 맞아야지. 그렇게 위계질서가 참 잘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을이 바둑판이 되고 완전히 해체됐어요.

어린 시절에 마을 이외에는 어디를 가보셨나요?

저 외갓집이 두구동 수반이었는데 누나 손을 잡고 모래 등대로 해서 숲 공장으로 해서 갔어요. 가는 길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장, 반송 가는 그 밑에 그대로 있어. 그 옆에서 징검다리를 건너 임석으로 해서 간 기억이 많아요. 경륜장 그 앞이 임석마을 이거든요. 거기로 해서 수반을 가던 길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릴 적에는 추석이고 설날이고 되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인사를 하러 다녔지. 고등학교 다닐 때 송도해수욕장까지 가봤어요. 거기 구름다리가 있었는데 그 해수욕도 가고 아니면 자갈치 시장도 구경하러 가고 그랬죠. 금정중학교 다닐 때도 소풍을 범어사로 갔는데 부린 상고를 가니까 금강원으로 소풍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부에 가입해서 전국노래자랑 식으로 합창단 대회를 하는데 데레사여고 쪽으로도 많이 갔어요. 그때 진짜 두근두근했죠. 여자들을 처음 보는 거니까. 이 마을에도 또래 여자애들이 많았지만 다들 그냥 숙맥이고 어릴 때부터 계속 봤으니까 느낌이 없죠.

쌀가게 운영

어머니를 도와 쌀 배달을 하셨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무거운 쌀을 배달하셨나요?

옆에 작은 누나 내외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군에 갔을 때는 누님 내외분이 배달을 대신 해주기도 했어요. 쌀 한 가마니 같으면 80kg이니까 제법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남산마을 정도를 리어카[손수레]로 배달했죠.

리어카 다음에는 뭘 타고 배달했나요?

짐 싣는 자전거로 했지. 그때가 아마 중학교 2, 3학년? 그때 호차 자전거라고 말 그대로 뒤에 바퀴가 작은 자전거를 몰고 배달을 했어요. 그러다가 바퀴에 빵꾸[구멍]이 잘 나니까 뒷바퀴는 굵은 것으로 갈아서 타고 그랬지.



쌀 배달을 자전거로 하셨으니까 자전거를 잘 타셨겠네요.

아니. 처음에는 자전거를 잘 못타지. 저기 우리 집 719번지 거기에서 그 밑에 동사까지 내려오려면 완전히 막 낭떠러지였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자전거를 처박고, 옆뜰때기[옆부분]가 다 긁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배웠죠. 어릴 적에는 금방 상처가 없어지니까. 상처에 된장도 많이 발랐어요.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간장 바르고 안 그러면 흠을 발라봐야지 이랬던 때 아닙니까. 따갑지만 금방 낫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는 어디까지 배달하러 다니셨나요?

자전거를 타고 두구동까지도 가봤어요. 예. 두구동. 두구동에 거기 중리까지 가봤어요. 여기 지금 말하면 송정리 쪽이지. 구서동도 가고 송정리까지도 배달을 한 번씩 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힘드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돼서 누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뒤에다가 '팔송 쌀집 581-1688'이라고 써서 번호판 있는 자리에 붙여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팔송 파출소 형사 하나가 맨날 나를 잡아요. “번호판이 없으니까 딱지를 끊자”라고. 그러면 맥주 두 어 병을 살 돈을 쥐여 줬어. 그 사람이 나보다 서너 살 많은 텐데 그렇게 많이 뜯겼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틀어서 동사무소에 오토바이를 끌고 가서 번호판을 딱 받아서 땡기니까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잡혔어요. 하이배[헬멧]을 쓰고 번호판을 딱 붙이고 다니니까 일사천리로 쌀 배달이 되지. 그때부터 일이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구서동의 과거 모습[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조성로가 쌀 배달 다녔던 구서동 역시 도시화의 바람을 타고 급격하게 변화했다.

비슷한 또래의 마을 청년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전자회사도 다니고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 내 친구 중에 3명은 대학교에 다녔는데 나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쌀장사를 해야 하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본격적인 쌀장사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1999년인가 2000년 사이에 내가 쌀장사라도 열심히 해보자 싶어서 광고지도 막 찍어 돌리고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트럭 하나도 샀어요. 새로 쌀장사를 할 때는 구획정리를 하고 농경지가 없어지고 난 다음이니까 홍보를 잘 해서 쌀장사가 더 잘됐어요. 그때는 식당이나 장례식장에도 납품하고 그랬지. 남산동을 상대로 했던 게 아니라 부곡동, 양산 덕계, 정관까지 가져다 달라는 곳은 다 갔어요. 그러다가 값을 떼이기도 많이 떼였지.

과거와 현재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였으니까. 내가 1999년쯤에 시작을 해서 2019년까지 진짜 잘 나갔거든요. 작년만 해도 하루에 쌀을 25포대씩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이 동네하고 청룡동 쪽에 쌀을 파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어. 우리는 직거래거든요. 그래서 더 저렴하고 쌀도 좋은데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쌀을 많이 사요.

쌀값은 많이 변했나요?

내가 중학교 때는 한 가마니 80kg에 13,000원, 고등학교 때 좁은 38,000원, 45,000원 그랬는데 지금은 한 180,000원에서 250,000원 정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비전은 없고 현재 우리 집에 있는 거래처만 떨어지면 나도 이제 그만둬야지. 이거 뭐 언제까지 할 거야. 오늘도 지금 하루 종일 있어 봐야 뭐 이거 쌀 사러 오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다 시키잖아요.

마을의 변화와 앞으로의 바람

지금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마을의 변화가 있나요?

제가 여기 지금 앉은 자리에서만 34년인가 상회를 운영했어요. 여기서 먹고 살고 자식 공부시키고 다 했지. 여기 변화가 참 많은데 첫째가 시계방이 없어졌고 그다음이 목욕탕이 없어졌어요. 이 바로 뒤에 팔송탕이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파전이나 음식을 좀 하면 같이 나눠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담을 쌓고 살아서 말 붙이기도 힘들어요. 예전에는 뭐 다 “형님, 형님”하던 동네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린 거죠.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 동네에 구역정리를 잘못했어요.

원래 마을이 변하기를 바라던 방향이 있었나요?

내 생각은 예전 그때처럼 그냥 그렇게 소박하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도시가 되니까 차라리 지금은 시골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도심지에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시골에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휴대폰도 필요 없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변화가 있을까요?

그게 뭐 있겠습니까? 이 마을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내가 봤을 때 남산동은 이제 끝입니다. 지금 현재 노포역에서 양산 북정역으로 가는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사진도 찍었는데, 지하를 파고 공사 중입니다. 지하철이 생기면 사통팔달이 되겠죠. 역이 생기면 그 주위로 해서 조금 개발이 되겠죠.

남산동에 개인 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주택들을 좀 헐어서 대단지 아파트도 생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물 좋기로
우리 남산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초읍,
세 번째는 연지라는 말이 있어요”

송진모

송진모

- 1950년 남산동 신암에서 출생
- 1982년 결혼
- 2003년 금정향토문화연구회 활동
- 2005년 부경대학교 대학원 입학
- 현재 성균관유도회 부산광역시본부 회장



송진모는 1950년 남산동 신암마을에서 출생하였다. 현재는 남산동 신암마을에 거주하며 남산동 및 부산지역 향토사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지역사 연구를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 범어사 불교대학 동문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학대에 진학해 김법린 연구를 주제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부산역사문화전자대전 중 남산동과 관련한 항목 집필도 맡았다. 구술자는 신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토박이로 마을사 및 향토사에 관심이 많으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은진(恩津)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일대의 지명이다. 은진 송씨(恩津 宋氏)의 시조 송대원(宋大原)이 고려 때 판원사(判院事)를 지내고 나라에 공을 세워 은진군(恩津君)에 봉해졌다고 한다. 1720년경 동래 무청 교련 관인 은진 송씨 송초건(宋楚健)의 셋째 아들인 유익공(有益公) 송준업(宋俊業)이 지금의 금정구 남산동 신암마을로 와서 서당을 짓고 후학을 가르쳤다. 이때 문무겸전(文武兼全)의 동량(棟樑)이 배출되라는 뜻으로 서당 이름을 서검서당(書劍書堂)이라 하였다. 그후 이곳은 서검(書劍)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1898년[광무 2년] 2월 신암동(新岩洞)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는데, 마을에 돌이 많아 그렇게 부른 것으로 전한다.

신암에 정착한 집안은 대체로 부유한 편이었다. 송

진모의 집안은 이러한 신암마을에서 방앗간을 크게 하며 가세가 무척 흥했는데 큰집부터 작은 집, 그리고 본인의 집까지 모두 방앗간을 운영했다고 기억했다. 송진모의 부친은 일제강점기 말, 징병이 되었다가 해방이 되면서 귀환을 했으며 이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혼란했던 시대상을 말해주듯 집에는 카빈총과 탄약이 있었으며 총으로 까마귀를 쏘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과거 신암마을 청소년들은 대부분 청룡초등학교로 진학을 했으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비율은 적은 편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청소년들은 학업과 농사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웠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방학이 되면 농사일에 매진해야 했다고 기억했다.

송진모는 퇴임을 하고 역사 연구에 흥미를 느끼고 지역사 연구에 뛰어들었다. 2003년 금정향토문화연구회 활동을 시작으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대학원까지 마쳤다. 범어사와 관련한 논문을 마치고 고향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해 서검뜰의 이름 유래를 정리한 것은 무척 보람찬 일이었다고 말했다. 송진모는 지역사 연구 성과가 쌓일수록 오랫동안 신암마을에 뿌리를 내린 조상들의 흔적이 뚜렷해지기 시작했고 삶의 보람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신암마을에 정착한 은진 송씨의 내력과 집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에서 태어난 송진모입니다. 생년월일은 음력으로 1950년생이고 주민등록상은 1952년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 집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이 집은 옛날에 우리 신암마을 서당 자리입니다. 서당을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잘 운영하다가 이후에 운영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우리 증조할아버지께서 이 서당을 사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분가를 시켰어요. 분가를 시켜서 그 후로 쪽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 시기가 1927년인가? 28년 쯤에 사들여서 살기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4살 무렵인 자택 마구간 옆[1956년, 구술자 제공]



신암마을 입구에 있던 신암교[1950년대, 구술자 제공]

그럼 분가를 하셨을 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분가할 적에는 우리 증조부하고 증조부의 큰아버지는 큰집에서 분가했어요. 거기가 원래 우리 본적지인데 거기에 우리 증조할아버지하고 사셨던 거죠. 또 제일 장남은 분가해서 다른데 나

가고, 이 집에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동생들 몇 명하고 그렇게 내려온 거지.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물려받은 건가요?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3형제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중에 둘째였어요. 고조할아버지 집이 한 300평이 넘었어요. 그걸 반을 쪼개서 큰집이랑 우리 증조할아버지 집으로 살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1928년 쯤에 증조할아버지한테 그걸 물려받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당시 신암에는 은진 송씨들이 많이 살았겠네요?

네, 이 마을에는 우리 선대가 1700년대 초반에 재송동에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는 주로 은진 송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로 우리 송가들이고 지금은 타 성씨가 몇 집 들어와 있지만 아직은 우리 송가들이 주로 많이 사는 집성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 당시 어떤 일로 가계를 꾸리셨을까요?

우리 윗대는 다 여기 근처 땅에서 농사짓고 살았어요. 조부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집은 논 10마지기와 밭, 그리고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증조할아버지 때는 큰집이나 작은집이 다 비슷한 수준으로 살았고, 다른 성씨들은 그 뒤로 들어와서 좀 미미한 상태였어요. 당시 우리 지역에 부유하다 하면 땅을 제법 많이 가지고 이래야 좀 부유하다고 하는데, 다른 집안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았지. 큰집 같은 경우에는 방앗간도 운영했는데 옛날에는 방앗간 운영을 하고 이러면 좀 잘살았던 거로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송가들은 각 집에 방앗간이 있었어. 제일 큰집에는 동력으로 돌리는 정미소가 있었



송진모 자택 앞[1970년대,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고 제일 큰 증조부 집이랑 아랫집에도 디딜방아가 있었고, 또 우리 집에도 물레방아가 있었죠. 각자 방앗간을 운영했다면 그래도 좀 살기가 괜찮다고 봐야죠. 방앗간을 우리 송가만 해도 네 집에서 운영을 한 거야.

아버님이 징병 피해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선친이 징병 되신 그 관련 자료도 있거든요. 정확히 1944년 말인지, 45년 초인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아무튼 그때 징병 되셔서 다행히 1년을 못 채우고 해방이 되고 돌아오셔서 결혼하기 전에 동래 경찰서 산하 석대파출소, 거기에 순경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경찰 마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집에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어지러운 시절이니까 우리 집에 총기도 갖고 있었어. 그때가 고등학교 때 쯤이었어요. 이런 철로 된 책상 안을 보면 실탄도 있고 그랬어. 총기, 카빈총 있지요? 그게 집에 다 있었어요. 집 근처 버드나무에 까마귀가 앉아있으면 아버지가 총으로 쏘시던 것이 기억나요.

학교는 어떻게 진학을 하셨습니까?

초등학교는 부산 청룡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부산 청룡초등학교는 1906년 설립을 했는데 부산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학교예요. 그다음 중학교는 금정중학교. 금정중학교와 청룡초등학교는 초기부터 범어사에서 설립을 한 학교거든요. 중학교가 또 현재 범어사 경내에 있었어요. 경내에 있다가 1947년경에 현재 위치로 이전을 해왔어요.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는 부산공업고등학교. 거기로 진학을 했다가 대학은 영남대학교를 나오고, 취직한 거는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내가 현○그룹으로 들어갔는데 현○그룹 중에도 현○양행이 있습니다. 현○양행은 설립 초기 군포, 현재의 군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회사 다니면서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야간에도 다녔습니다. 석사과정을 다니는데 그때는 회사생활 하다 보면 학위 따기가 힘들어요. 근무지 이동이 되니까. 일 년까지 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창원으로 발령이 나서 창원에서 근무하다가 또 서울 발령이 나서 서울 생활을 하다보니 졸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금정중학교 입학식[1963년, 구술자 제공]



고등학교 재학 시절 친구들과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
[구술자 제공]
아랫줄 우측 첫 번째가 송진모이다.

당시 청소년들의 일상은 어땠나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는 완전 농촌이니까. 그리고 구획정리하기 전이거든요. 그때 여기는 완전 농촌지역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방학되면 소먹이거나 농사짓는 일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지요. 농사짓는 집은 대부분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같이 소도 먹이고 이렇게 할 입장이었으니까.

과거 남산동 생활상

과거 남산동에 있던 자연마을에 대해 아십니까?

우리 남산동 기준으로 하면은, 남산동 본동마을이 있고 남중마을이 있는데 지금 청룡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마을이 있었어. 그다음 신암마을이 있고, 그래 세 개의 마을인데 또 반남산마을도 있어. 그래서 크게 봐서는 3개 마을이라 하고, 또 조그마한 마을까지 하면 4개 마을이거든. 우리 신암마을은 뒤에 용호덤 칭디미. 그 산 이름이 지금 사람들은 무명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밑에까지 소 먹이러 올라가기도 하고 했지.

남중마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머들이라고도 하는데 본동하고 우리 신암마을 중간에 있다고 머들. 머들은 ‘머저린다’란 말에서 나왔는데 머저린다는 말은 우리가 모를 심어놔 놓고 중간에 막 빠지고 이러면 중간에 심고 이러는 걸 머저린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뜻이 중간, 위치적으로 중간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면 소재지도 옛날에 우리 금정구가 되기 전에는 순서대로 동래군 남산리, 동래구 남산리하다가 그 다음이 금정구 남산동으로 되었는데 처음 여기가 북면 동래군이었죠. 북면 시절에 면 소재지가 남중마을에 있었어. 머들마을에. 그래, 그 건물이 아직 있어요. 그게 일제강점기 때 건물인데 아직 그 원형이 남아있어. 그게 범어사 불교대학 총동문회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어요.

본동 마을이 남산의 중심이네요?

그런 것보다 그 마을이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본동으로 보는 거죠. 남산마을이라고 하니까. 남산마을, 남중마을, 우리 신암마을, 반남산마을은 남산 본 마을 옆에 붙어있는 조금 몇 집 안 되는 거를 반남산마을이라 하거든. 본동에는 남산서당이라고 서당도 있었어. 그래가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마을[신암마을]에 서당이 있기 전에는 남산서당에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좀 나뉜 느낌인데 과거 북면 소속 지역은 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죠?

그렇죠. 남산동 사람은 주로 보면 우리 공부할 적에 청룡초등학교에 오는 부류가 우리 남산동, 구서동, 노포동, 선동, 두구동 등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동은 달라도 아래위로 상당히 가깝게 느끼지. 그래서 이제 구서동이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학교 왔다 갔다 할 적에는 같이 어울려서 쪽 내려가고 하니까 두실이나 우리나라 거의 한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 아니까.

과거 신암마을 청년들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나는 청년회 활동 별로 안 하고, 외지로 가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랬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직장 제대로 다니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 주로 그런 사람들은 청년회에 참여 해서 지역봉사 활동도 하고 그랬죠.

그럼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는 비율은 어느정도입니까?

우리때만 해도 고등학교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 가는 것도 우리 윗대부터 보면 10년에 한 서너 명씩 들어가요. 고등학교도 가는 사람도 몇명 안되죠. 마을마다 보면 고등학생도 얼마 없어요. 그땐 대부분 그랬어요. 당시 고등학교는 대부분 시내에 있었거든요. 우리만 해도 부산공고가 범일동에 있었다고. 그러면 전부 다 버스 타고 통학하고 했어요. 그때는 또 시계가 없는 집도 많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삼태성³⁵⁾이라고 하는 게 있어. 새벽에 그런 별을 보고 시간을 대강 짐작해서 밥을 하고... 옛날에는 그런 정서가 남아있지.

그럼 여기서 통학은 주로 버스를 이용했습니까?

그렇죠. 학교 갈 때는 여기서 버스를 타는데, 나쁜 아니고 다 마찬가지였어. 서면 쪽에도 부산상고, 동성고등학교 등등의 학교가 있었어요. 우리는 좀 더 내려가서 범일동 조방[옛 조선방직 일대] 앞에 시민회관 있지요? 거기 바로 옆에 우리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환

35) 북두칠성에 자리한 별을 말한다.

경이 되게 안 좋아 그쪽이. 부산공고도 처음에는 시내에 있었는데 6·25전쟁이 끝나고 동천 바로 옆으로 옮겼을 겁니다. 우리 공고는 지금 대연동 쪽으로 옮겼거든요.

당시 남산동에서는 고등학교 진학도 꽤 특별한 경우였나요?

주로 여기 사람들이 진학하는 그거를 보면, 주로 우리가 청룡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는 저기 동래중학교 일부가 간다고 나머지는 금정중학교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는 사람은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가고, 공부를 잘해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자기 아버지가 선생이라든지 기타 관련되면 거기로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학교 진학률을 봐야 해요. 주로 그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거기서도 중학교를 못가는 부류도 나오거든요. 60년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정도면 되니까.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걸 보면 금정중학교 같은 학교가 좀 떨어져 가 있어서 조금 힘든데 그래도 보면 부산고등학교 두 명, 부산상고나 저기 동래고등학교하고 부산공고 가고, 우리가 고등학교 진학 할 적에는 금정중학교가 제일 진학률이 높았어.

학창시절 시내와 남산동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차이가 나긴 했죠. 1970년대 초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지금처럼 길을 내고 했거든요. 내가 학교 다니고 할 때가 60년대인데 그때까지는 완전 옛날 그 모습 그대로니까. 하지만 구도심도 사실 그때 보면 형편없었어. 우리가 그 당시 70년 초부터 구획정리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서서히 변했는데 그 전에는 다 비슷해 그래서 뭐 큰 변화를 느꼈다는 것보다는 그냥 다녔지. 어릴적 시내는 한 번씩 가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변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비슷하잖아요.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비슷했어요.



청년 시절 서면 로터리 앞에서[구술자 제공]

향토사 연구와 남산동 이모저모

금정 향토문화연구회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2003년도에 직장을 그만둔 후에 금정문화원에서 연락이 왔어. 그 원장이 우리 마을 여기에 산다고. 근데 갑자기 막 오라고 하는 거야. 그때 남산동지(南山洞誌)를 만들고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나를 아마 추천해 줬는가 봐. 그렇게 참여해서 남산동 부분을 내가 다 적었지. 2003년도부터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향토사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회사다니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했죠.

김해 김씨, 은진 송씨, 범어사는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신암마을에는 본동 쪽이나 남중마을 쪽이나 아마 범어사 관련된 땅이 제법 있다고. 그때는 범어사 땅주인 중에 은진 송씨가 많았어. 그리고 은진 송가에서 범어사 주지를 맡으신 분도 있었어. 자기가 주지를 하다 보니까, 재산을 좀 모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남중마을에 사는 우리 은진 송가는 논을 형편 따라서 몇 마지기씩 범어사에 시주를 했어. 남산에 김종호 그 집안이 이제 김해 김씨인데, 거기는 주지를 못하고 송호당이라고 하는 할배가 있어. 그 할배가 주축이 되어서 범어사 박물관 앞에 칠층석탑을 세우는데 우리 집안에서 세분이 시주를 좀 한 거야. 그때 그 비석이 남아있어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집안 어른들 이름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놓고 김해 김씨 족보를 보니까 우리 큰증조부 대에 김해 김씨에서 우리쪽으로 시집을 왔어. 그러니까 그 분이 우리 큰증조할머니고 송호당 할배가 그 증조할머니 오빠인거야. 그렇다 보니까 외삼촌이 시주를 한 거야. 그 비석에 나오거든요. 그리해서 내가 김해 김씨 우리하고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족보를 보고 이런 관계였구나 하고 알았던 거지.

은진 송씨 재실인 서검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입향 할 때부터 그 전후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서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우리 서검재 짓는 것도 사실 부산 여기 보면 문중마다 재실 지은 시기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비교적 오래 됐어. 오래된 재실은 몇 군데 안 돼요. 우리는 70년대 초반에 지었는데 다른 집안들은 주로 80년대 이후로 많아요. 우리가 그래도 뭐 별로 볼 건 없지만은 비교적 빨리 지었고, 저 땅도 거기 보면 럭키아파트인가 있지요? 거기가 원래 우리 문중 산이었는데 그 산을 우리 제일 큰 증조부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주로 큰집에서 다 이렇게 하나까. 거기서 사실 좀 땅을 내놓고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몽땅 다 갖고 가고 우린 다시 땅을 사서 지금 서검재를 지었다고. 짓고 나서 중간에 길이 놓이는 바람에 좀 변경해서 그렇게 쓰고 있어.

재송동에 있는 은진 송씨들과는 관계가 어떤가요?

거기는 우리보다 좀 더 큰 문중인데 임진왜란 전부터 내려온 문중이에요. 저는 지금 거기 부회장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우리쪽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우리 선산이 기장에 한 20,000평 정도가 있고 재송역 인근에 재실이 있는데 그 부지가 1,600평 쯤 됩니다. 규모가 그 정도인데 재송동 종가쪽에서는 사실 사람이 몇 없고 우리계열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남산동 다른 성씨들은 어떤가요?

우리 마을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 은진 송가가 여기 들어온 지 약 25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앞에는 이씨랑 오씨가 살고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후손들이 다 사라지고 없으니 이씨가 살았는지, 오씨가 살았는지 말만 들었지 확실히는 몰라요. 여기에 또 밀양 박씨가 몇 집 삽니다. 온지는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또 봉씨도 한 두집 살고 있어요. 거기는 온지 얼마안 되고, 그리고 다른 집은 별로 없어요.



은진 송씨 재실 서검재 전경(위)과 내부 모습(아래)[2013년, 부산역사문화대전]
서검재 내부에는 은진송씨 입향조 이하 20위의 위패와 재단이 세워져 있다.

서검뜸이란 이름의 유래가 뭔가요?

서검뜸은 뭐냐면 다른데도 보면 양지뜸, 음지뜸 식으로 뜸을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검이라고 하면 서검재 하듯이, 옛날에 서검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다면 서검뜸이라 하는 게 신암마을이란 이름보다 앞에 불렀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신암마을 하는 거는 무슨 근거 자료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1908년도에 호적 자료를 보면 신암 하는 마을이 나와. 내가 그거를 찾은 거야. 그 전에는 못 찾았는데 신암마을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앞에 기록을 봐야 하는데 서검뜸 하는 건 기록이 없어. 옛날 사람들이 말로만 서검뜸, 서검뜸 이랬거든. 그러면 정확하게 서검뜸이라고 하면 또 안 되고 뜸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마을에다 뜸을 붙이거든? 다른 데도 지도를 보면 양지뜸, 음지뜸 쓴다고. 그래서 내가 뜸을 붙인 거야. 뜸이라고 할 때도 뜸은 어떤 뉘 봉우리나 이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서검뜸, 서검뜸 계속 불려왔거든요. 어떤 자료를 보면 이 기록을 정확하게 몰라서 서넉 서자를 써서 서쪽에 가까운 뜸, 이렇게 해서 서근이라고 표기된 것도 있는데 영 안 맞거든. 그래도 자료가 있고 그때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유래를 찾아서 추측한 뒤에 그렇게 적은 거야.

그러면 신암이라는 이름은 어떤 유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을에 원래 돌이 많았어. 자 그런데 또 금정구지(金井區誌)를 보면 석돌이 많아서 그렇게 지었는지 신암이라고 적혀있는 거라. 그런데 여기에 석돌은 별로 없어. 여기는 화강암 이런 돌이 많잖아. 석돌은 썩은 돌. 돌도 보면 화강암은 단단하고 그런 건데 썩은 돌은 이제 좀 푸석한 그런 돌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는 단단한 화강암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석수장이 사업을 한다고 차가 저 뒷산까지 올라갔었어. 그 산 높은데도 지엠씨(GM트럭) 올라갑니다. 산꼭대기까지 경사가 심해도 올라가고. 그때가 60년대 말인데 좋은 돌을 많이 캐냈어. 그때는 그렇게 산을 망쳐 놓은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나라에서도 그때는 먹고 산다고 통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 마을 자체가 돌이 굉장히 많다고. 썩은 돌이 많다는 거는 옛날에 금정구지 할 적에 그래 적은 거야. 그리고 호적 자료에 신암이라는 말은 나와. 기록이 있어요.

마을에 우물은 없었습니까?

우물은 저쪽에 큰집 앞에 마을 우물이 있어요. 그게 제일 오래되었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남산초등학교 보면 가장골이라고 가짜로 물어 났다는 뜻이야. 옛날부터 어린아이가 죽고 하면 그런데 묻었겠지. 요새 말로는 가장굴하지만 사실은 가장(假葬)이란 말이거든요. 거기가 마을 야산인데 가장골 하는데 거기도 우물이 하나 있었지. 또 가정에 몇 개씩 우물이 있다고. 당산이랑 우리 선산에도 다 있었어. 저쪽에 보면 아파트 있는 지역이 있어. 아파트 있지요? 위쪽에 다 있었지. 지금은 다 뜯어져 버렸지.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물이 여러 곳에 있었어.

예전 남산동 일대에 범어사 소작농이 많았습니까?

많았지. 그리고 옛날에 범어사가 5,000석을 이렇게 한다 했거든. 5,000석, 그때는 땅을 치면 평수가 상당히 되거든 5,000석 했을 경우에 한 마지기에 두 가마씩 났을 경우에는 평수가 대단히 나와요. 그러면은 사하촌에 해당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두구동이나 기타 일대를 다 포함해서 한 5,000석 정도를 해요. 자, 소작농들이 그 5,000석을 쌀알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 전부 다 보면 벼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범어사 가면 물레방아가 12개가 있어요. 지금 범어사 매표소 자리가 물레방아 자리야. 범어사 땅도 보면 범어사 경계표석이 있어요. 경계표석도 내가 조사를 다 했는데 고당봉부터 해서 경계표석이 있는 곳은 예전 범어사 땅으로 보는 거죠.

남산동의 미래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 남산동마을은 보시다시피 금정산을 배경으로 하고 범어사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80년대나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남산동이 자연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주거지로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세월도 흐르고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거단지 개념으로 남산동이 지금처럼 1, 2층 주택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남아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을이 변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문중 제사를 지내고
조상들을 모시면서
계속 살고 싶어요”

———— 송용호



송 용 호

- 1957년 남산동 신암마을 출생
- 은진 송씨 정사량공파 26대손
- 은진 송씨 문중 총무 재임
- 현재 계명 건축사무소 운영

송용호는 1957년 남산동 신암마을에서 출생하였다. 부모님은 대대로 신암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 왔다. 신암마을은 은진 송씨의 집성촌으로 송용호 역시 은진 송씨의 한 갈래이며 현재 세가 즐기는 했으나 여러 항렬의 문중이 여전히 남산동에 살고 있다. 은진 송씨들은 윗대 제사와 별초를 문중 위원들이 함께 지냈는데 1980년을 전후로 문중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신암마을에는 은진 송씨 외에도 할머니의 성씨인 남평 문씨를 비롯해 여러 성씨가 모여 살고 있다. 어린 시절에는 또래 집단의 세력다툼이 있기도 했지만, 성씨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어느 마을에나 있는 아이들의 다툼이라고 회상했다. 오히려 남산동은 여러 성씨가 서로 단합하여 잘 지냈다고 한다.

구획정리가 되기 전 남산동은 남산, 남중, 신암, 반남산 마을이 존재하였는데 송용호는 어린 시절 이 마을들의 개별적인 모습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요산 김정한 선생님의 생가, 버스가 다니는 도로, 가족 공장, 신암상회, 타일 공장의 위치 등을 설명해주었다.

또한, 어린 시절 청룡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이곳으로 온 다른 마을의 학생들에 대한 특징과 아이들이 했던 놀이를 이야기했다. 학교에서 배식으로 나왔던 옥수수빵과 그것을 공덕초등학교까지 청룡초등학교 아이들이 배달해 줬다고 한다. 또한, 청룡국민 학교에는 '희락원'이라는 고아원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원조 물품과 도시락을 바꿔 먹었던 기억도 있었다.

남산동은 범어사와 많은 연관을 가지는데 송용호의 할머니는 범어사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고 한다. 또한 가족들 대부분이 범어사 암자에 출입하였고 송용호 자신도 범어사 주지 스님이 지어주신 계명이라는 이름은 건축사무소 이름으로 쓰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송용호는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건축설계를 진로로 선택하게 되었고 자격증을 딸 때는 힘들었으나 현재는 진로 선택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송용호는 과거 남산동의 가옥 구조와 환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는데 특히 재래식 화장실과 휴지가 나오기 전 사용한 벚짚, 달력, 새끼줄 등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온천장에서 분노를 수거해 왔는데 당시 온천장은 주변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으로 송용호는 1년에 두 번 명절에만 그곳에서 목욕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남산동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은진 송씨 가문 중 일제강점기에 철도 기관사를 하셨던 분이 가장 잘 살았다고 기억했다. 송용호의 아버지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정도는 되었는데 마을 사람 중에는 소작농을 두고 소작농에게 연봉을 지급하며 농사를 지은 사람도 있다고 했다.

자기소개와 은진 송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릴 때는 여기가 북면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남산동 신암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아마 여기서 생을 마감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원래 신암마을이 송촌마을입니다. 은진 송씨 장사랑공파 26세손입니다. 제실도 있고 제가 총무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무질서하게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사업성을 따져서 촌락 지역을 파고드니까 남산동이 주거 개념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많죠.

신암마을을 송촌마을이라고 불렀나요?

예. 신암마을이 송씨들의 옛날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송씨 본래 세거지가 재송동인데 거기서 한 할아버지가 여기 신암마을에 오면서부터 여기가 집성촌이 된거죠. 그다음 박씨, 김씨 일부가 여기 조금 몇 집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원주민은 찾기 힘들어요. 현재 신암마을에 사는 원주민들은 열 집도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신암마을에서 아직까지 모임들을 하고 있어요.

송진모 선생님과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송진모 씨가 지금 우리 문중회장이고, 내가 지금 총무 일을 하고 있어요. 송진모 씨하고 항렬이라든지 촌수는 제가 높아요. 할배 뻘 안 되겠습니까. 제가 26세손이고 송진모 씨가 28세손 될 거예요.

같은 은진 송씨 문중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위로 올라가면 같은 할아버지겠지만 내려오면서 자꾸 나누어지다 보니까 거리감이 좀 있죠. 같은 문중이니까 만날 때는 전화해서 “형님 한번 뵙시다. 오늘 문중에 무슨 일이 있는데, 누구 집

에서 뭘 해야겠는데”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항렬은 높아도 문중에서는 나이로 형님, 형님이 라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요. 제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모였을 때나 항렬을 따지지 보통을 그냥 평하게 대합니다.

어른들께 집안 내력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나요?

아버님께서 많이 해주셨지. 아버지는 특히 족보로 우리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할아버지 성함 송 ‘기’자, ‘술’자, 할머니는 남평 문씨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서 범어사에서 하는 전답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부쳐 먹었다고 해요. 여기 옛날에는 범어사 전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범어사 일을 많이 보고 범어사 힘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했어. 할머니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쯤 논두렁에서 밭을 헐다며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내가 얼굴도 몰라요. 아버지 위에 형님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 열병이 돌아서 바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장남, 외동이 된 거지.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쪼매날 때 돌아가셨나 봐.

선생님의 형제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1남 3녀입니다. 밑에 여동생 하나 있고. 위에 누님이 두 분. 아들을 기다리다가 낳았으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할머니가 그 당시에 북면에서 온천장까지 미역 사러 가고 그랬네요. 촌에는 그때 여기 참 못 살았잖아요.

은진 송씨가문끼리 하는 일이 있나요?

지금도 우리 별초하면 한 50명씩 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위에 임원진 13명만 모여서 행사를 했거든요. 묘지가 한 7~8기 됩니다. 근데 그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해운대 장산쪽에 있고 대룡리 녹동, 양산 쪽에도 있고 범어사 중간에 있고 우리 동네 뒷산에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다들 모여서 몇 개 조로 나뉘 가지고 그렇게 별초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는 또 우리 동네 뒷산에 있어요. 그런 묘가 많은데 개별적인 가족묘는 가족들끼리

별초를 합니다. 위로 22세손 이상의 할아버지는 모여서 같이 합니다.

제를 올릴 때도 같이 하는데 11월 초에도 문중 제를 하거든요. 옛날에 송○진이라는 분이 판사를 했는데 그분이 계실 때는 윤택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좀 많이 기울었어요. 1990년대 초쯤 돌아가셨으니까 1980년대 전후로 해서는 아주 활발했지.

마을에서 세거 씨족을 제외한 사람들 간의 차별이 있었나요?

차별 같은 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마을 회관 설계도 내가 했는데 서검뚝 경로당 비석 뒤쪽에 보면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송씨도 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단합도 잘되고 화목했어요. 근데 마을에 세력다툼이랄까. 그런 건 조금 있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는 또래집단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예 세력다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그런 것 외에는 마을에 단합이 잘 됐어. 나도 어릴 때 윗동네, 아랫동네 나누어서 골목대장이 있고 한 번씩 티격태격했지. 그런 건 어느 동네나 다 있잖아요.



어린 시절과 학교생활

지금도 기억나는 어린 시절 마을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획정리가 되기 전에 옛날에는 버스가 지금 지하철이 다니는 중앙대로가 아니라 옛 도로로 다녔지. 가죽 공장도 있었는데 우리 어릴 때 거기서 가죽 물이 흘러들어 온천천 물을 엄청나게 오염시켰어요. 마을에 유일하게 2층집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릴 때 신암상회라고 했어. 굴뚝이 있는 타일 공장도 있고, 남중은 중간에 있다고 남중이고, 범어사에서 쳐다봐서 남쪽에 있다고 남산이지. 그 밑으로 신암, 반남산,와남산이 있어요. 어릴 때 산에서 꾸버 묵고 했는데 꾸버 묵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뭇 구워 먹는 게 아니고 '땡땡이'랑 같은 말이야.

청룡초등학교를 나오셨죠?

그때는 여기를 북면이라고 했는데 북면이 어디까지냐 하면 지금 구서동, 남산동, 두실, 청룡, 하정까지. 그 아이들이 다 청룡초등학교를 갔거든요. 1, 2반 해서 그 당시에는 한 반에 60명이 조금 넘었어요. 내가 들어갈 때부터 오전반, 오전반으로 나누어졌지.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인원이 확 늘어나는 바람에 입학할 못 해서 한 해 늦게 학교 간 친구들이 많아요.

청룡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특징이 마을마다 구분이 되나요?

특징은 화정 애들이 체구가 좀 컸어요. 지금 오륜동에 수원지 있고 브니엘 중·고등학교가 있지요. 그쪽이 하연, 상연 그리고 신천 이렇게 화정리로 묶여 있는데 그쪽 애들 덩치가 컸어요. 덩치는 커도 애들이 순박했어. 그리고 청룡동에는 보통 체구가 좀 작았고.

학창시절에 마을 밖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여기서 다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걸어서 철마 앞에 장밭골에 내천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놀았던 기억도 있어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고기도

잡았고 또 지금 오륜동 수원지도 많이 갔습니다. 대룡리도 갔고 녹동, 두구동도 많이 갔죠.

초등학교 때 추억도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배급을 받았습니다. 강낭가리[옥수수가루의 방언] 빵하고 식빵을 급식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뒤에는 밀가루 식빵 한 판에 몇 개씩 붙은 것을 받았거든. 그래서 그게 오면 리어카[손수레]에 싣고 공덕초등학교에 우리가 배달을 해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직접 배달을 해줬나요?

빵 급식차가 그 학교에 안 가고 우리 학교에 다 내려주니까 우리가 가져다주는 거지. 나도 한번 가봤어요. 애들이 서로 갈려고 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먹을 게 많이 없었으니까. 배달을 가면 한 판을 산에다가 던져놓거든. 그래서 갔다 오면서 산에 던져놓은 한 판을 먹고 그랬지. 그게 한 판에 24개 정도 들어 있었을 거야.

빵을 먹고 싶어서 도시락이랑 바퀴 먹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저 위에 녹동에 ‘희락원’이라는 고아원이 있는데 그 애들이 청룡초등학교에 다녔거든요. 그 친구들은 점심을 못 싸왔어요. 대신에 미국 같은 데서 원조받은 장난감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 그걸 애들이 가져오면 우리는 장난감을 처음 보니까 그거하고 도시락하고 바퀴 먹었던 기억은 있지.

그 시절에는 가방이 아니라 책보를 메고 다녔죠?

그때는 가방이 없었잖아요.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거든. 그 시절에는 다 책 보 따리를 들고 다녔어요. 아까 꾸바 먹었다는 게 공부하기 싫고 그러면 개울을 건너가다 일부러 책 보따리를 빠자뽀니다[빠뜨려 버린다]. 그러면 책이 다 젖어서 논두렁 밑에 책을 넣어놓습니다. 꾸바 먹을 핑계거리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많이 꾸바 먹었어요. 부산에 우리 또래들은 꾸바 먹었다면 다 알아들습니다.

책은 학교에서 준건가요? 책을 물에 빠트리면 혼나지 않았나요?

우리 그때는 다 주는 게 아니고 구매를 한 거지. 그 당시에는 혼나는 거 해봤자 겨울에 얼음 얼어서 지나다 보면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는 전부 나이롱[나일론] 옷입니다. 그 스펀지 들은 것. 그것들 논두렁에 불 피워 놓고 말리다 보면 불덩이가 옷에 앉아서 구멍이 나요. 그래서 욕을 들어먹었지. 다른 건 없어요.

아까 범어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범어사와 인연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범어사는 어려서 많이 갔죠. 절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 때부터 쪽 불교 쪽이었지. 할머니가 요즘 말하면 봉사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범어사하고 잘 좀 통했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범어사 논밭이 여기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부쳐 먹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는데 아버지한테 듣기로 범어사에서 여기 땅을 찾는다고 해서 뺏긴 사람들이 많았대네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하더라고. 범어사가 자기 땅을 찾아갔지.

지금 설계 사무소 이름도 절과 관련이 있나요?

‘계명’이라는 이름은 제가 직접 지은 건 아니고 범어사 주지하셨던 정여스님이 지어줬어요. 내가 그분한테 “이름 하나 지어주십시오”하니까 “자네가 보고 좋은 거 하게”라며 이름 3개를 주더라고. 그분이 계명암에 있었잖아요. 계명봉 밑에 계명암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지.

설계 일을 선택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크게 뭘 안 해도 됐어요. 나는 그 당시에 내가 가야 할 길이 확실했어. 동래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미술을 쪽 했는데 그림을 그리러 다니니까 촌에서 부모들이 볼 때 싫어한다 아닙니까. 사실은 돈벌이가 좀 힘드니까. 그래서 미술하고 연관이 있는데 뭘가 보다가 건축 쪽을 택했지. 1992년도쯤 설계에 캐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라이선스를 따기 위해 공부를 한 참 할 때였죠. 그 전에는 다 손으로 제도판 대고 그랬어요.

미술을 하다가 건축을 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공부하면서 만족을 했다기보다 저는 건축은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미켈란젤로나 가우디 같은 사람들을 보면 다 예술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선택한 거고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고 후회는 없어요. 건축사 따기가 힘들었지.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과목 합격이 있지만, 그때는 1, 2, 3차를 동시에 합격해야 했거든요. 1차에 붙고 2차에 떨어지면 다음 해에 다시 쳐야 했어요.

마을에서 선생님처럼 진로를 선택한 경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자마자 현장실습을 일찍 나갔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건축 반이 3반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3학년 올라가서 교과서 받아 놓고 저는 현장에 바로 나왔어요. 그때 뭐 제도판 아십니까? 제도판에 화통 딱 들고 다니면서 스케일[제도용 삼각자]로 머리 맞아가며 결국 배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햇빛에 청사진을 다 구웠어요. 그때 그렇게 사무소 다니면서 당시 실습비 5,000원 받아서 한 달에 5,000원 받은 것 중에 1,000원씩 떼 가지고 26,000원을 누나 시집갈 때 여성백과[현대여성백과사전]를 사줬어요. 그게 그때 여자들 필수품이었거든요. 여성백과 보면 뜨개질이나 요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남산동의 과거 모습

선생님이 살았던 집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 일자형 초가집. 내 어릴 때 살던 집은 작은방, 큰방, 앞에 툇마루 있고, 부엌 있고 일자형. 그 요즘 보면 초가집 나오지요. 그런. 그곳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다 살았지. 한방에 와글 와글한다 아십니까? 한방에 4, 5명 다 잔다 아십니까? 전기가 1968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호롱불을 켜지요.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에 돼지도 키웠죠?

돼지도 키우는 집은 좀 잘 살았던 집이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그때만 해도 재래식 풍당 아십니까? 풍당이니까 변 잘 못 누면 밑에서 튀어가 물이 올라온다 아십니까? 그게 풍당 이거든요. 그래가 그러므로 중간에 널빤지 같은 거를 하나 걸쳐 놓는다고. 그러면 변을 이렇게 보면 탁 맞아서 옆으로 떨어지고 그랬죠. 그리고 휴지는 아예 없었고 휴지 대신 벚짚을 썼어요. 달력 그거는 A급이고요. 항상 재래식 화장실 옆에는 갯간이 있어요. 그러면 변을 재하고 같이 삭혀서 거름으로 다 쓰는 거지요.



남산동 신암마을 전경[1970년대, 송진모 제공]

그 시절에는 똥장군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 어릴 때는 구루마[달구지] 타고, 구루마가 소달구지거든요. 구루마 타고 온천장에 분뇨를 수거해가 왔습니다. 어릴 때. 그러면 수거해서 그쪽에 지금 온천장 허심청 옆으로 전부 다 철

도 관사거든. 거기 전차 종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어릴 때 관사에 내려가면 진짜 거기는 다 호화주택이거든. 지금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부엌에 불 때고 정지[부엌의 방언] 들어가고 불 때고 그럴 때 거기는 자기들 갈탄이나 이런 것하고 화장실도 다 있었어요. 우리가 분뇨를 소달구지 거기 똥장군이 가져가서 싣고 올라와서 그걸 다 거름으로 썼다 아닙니까? 가져오면 그쪽에서는 돈을 받고 일석이조지. 똥도 퍼주고, 우리는 거름해서 좋고, 일제 강점기 이후로 동래별장은 발전한 상태이고 전철 놓으면서 중심이 되는 거고, 여기는 완전히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었지.

그 시절 온천장은 발전한 곳이었네요

그렇죠. 그때는 여기랑 상상도 못하게 달랐죠. 비교를 하자면 그 시절에 부산에서 시내라고 부르던 온천장쪽은 뽕짚을 쓰지는 않았고 우리 어릴 때 여기는 다 뽕짚 썼어요. 뽕짚 쓰고 초등학교 4, 5학년 되니까 일 달력이 나왔어요. 일 달력. 습자지로 때는 거. 그거는 가족들 많은 데는 늦게 가면 하루에 한 장 뚝나 아닙니까? 동작이 빨라야 그것도 쓰지. 신문지, 돌가루 포대 이런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돌가루 포대는 잘 안 찢어지면서 문지르면 보들보들해져. 심지어는 돌 같은 것도 했지. 돌도 반듯한 돌 있죠, 반듯반듯한 거.

남산동 안에는 목욕탕이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 6개월에 한 번씩 공중탕에 목욕하러 가고 내려오면 요즘 이태리타월 대신 돌이라. 이제 비싸므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고급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온천천이나 저기 너머에 먹을 감으러 가고. 그리고 이발 같은 거도 보통 보면 마을에 하나씩 이발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랫마을에 이발관이 있으면 그것도 아랫마을까지 가서 이발했지. 저는 요 밑에 두실마을이라고 신암마을 바로 밑에 두실이거든. 친구 아버지가 옛날에 이발사였어요. 옛날에는 이발사라 하면 요즘 말하는 엘리트입니다. 돈을 잘 버니까.

신암마을에도 특별히 잘 살았던 사람이 있었나요?

우리 동네에서 최고 잘 살았던 분은 옛날에 송○영 씨라고 구 의장 하신 분 있어요. 그분이 옛날에 이야기하기로는 뭐 “그분 땅을 안 밟으면 신암마을에 못 땡긴다”이랬거든. 우리랑 같은 송 씨 집안입니다. 그분 아버지가 옛날에 뭘 했냐 하면 철도 기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 기관사가 최고였습니다. 불과 한 1970년대 초반 해도 여기 땅값이 얼마 했냐 하면 평당 100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월급 가지고 뭐 좋은 땅을 얼마나 샀겠습니까? 우리 문중으로 따지면 종손 쪽에 집안이지. 우리 지금 현재 재실 있는 것도 그분이 지었어요.

가문에서 후손들에게 나눠준 것이 없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 아버지가 외동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외동 아닌 외동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다 가난했어요. 어릴 때부터 지계를 12살부터 지었다 하더라고. 12살부터 지계를 지어서 아버지가 다 이룬 거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악착같이 해서 모아서 크게 잘 살지는 않아도 먹고 살 정도는 계속 그대로 해서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런 그거지.

남산동에서 소작농을 두는 곳도 많았죠?

우린 그런 건 엄두도 못 내지. 근데 우리 동네에서도 조금 잘 사는 집에는 보통 그 당시에 소작농을 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머슴도 두고 농사하는 그런 집안이 있었어요. 머슴은 지금 말하면 돈을 받고, 1년치 자기 노동값을 받고 들어 와서 그 집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해주는 거예요. 땅 부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인력만 제공하는 거지. 1년에 벼를 몇 가마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지. 그리고 그때는 보통 보면 집안마다 돌아가면서 품앗이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1976년도까지 농사를 지었으니까. 76년도에 결국은 이제 끝난 게 2차 구획정리 보면 여기는 결국은 이 주위가 다 그거 되니까.

남산동의 구획정리

구획정리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1차는 1970년 대 초 정도 보면 되고 2차 구획정리는 한 1976년, 1978년 정도 보면 될 거예요. 내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나는데 신문 기사를 보면 1979년, 1980년 이때 남산동 구획정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2차 구획정리입니다.

구획정리를 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옛날 사진을 보면 전답이 쪽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으로 이 전답을 대지화시키면서 택지를 조성해주는 거죠. 택지를 조성하면서 구획정리 조합 사업에서 지분의 50%를 가져갑니다. 조합사무소에서 50%를 가져가긴 하지만 논밭을 택지화하면 땅값이 그만큼 상승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뭘 지을 수도 있으니까.

구획정리를 하고 나서 남산동이 많이 변했네요.

많이 바뀌었지요. 논밭이 없어졌으니까 거기서 일궈 먹고 사는 분들은 거의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 것도 있었죠. 결국은 대지가 되니까 농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논밭이 가령 몇 천 원 했던 게 몇 십 만원 이래 오를 거 아닙니까? 평당에. 그런 땅을 팔아서 뭐 쓰든지 어디 다른 거 하든지 그래 했겠죠. 팔아서 나간 분들도 많고 뭐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은 사람이 거의 많지. 그다음 보증서 가지고 넘어가고 다 그랬지.

근데 그게 이제 나쁜 쪽으로 안 흘러가니까 결국은 지하철이 1호선이 뚫렸잖아요. 1호선 1단계 노포동에서 범내골까지 공사를 1985년도에 했는데 제가 그때 서면에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버스 타면 오래 걸리던 게 지하철이 생기니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니까 뭐 저는 구획정리가 나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요.



남산동 신암마을 과거 풍경



남산동 구획정리 모습[이상 1970년대, 김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구획정리 당시 설계 일을 하셨던 건가요?

그때는 금정구청 자체가 없었고 동래구청이었고 우리 어릴 때는 북면 출장소였잖아요. 지금 청룡초등학교 바로 앞에 범어사 동문회관으로 쓰는 게 면사무소였거든요. 금정구청이 이렇게 형성이 안 됐지. 옛날 그때 당시만 해도 나무를 파는 나무 시장이 있었어요.

설계 사무소가 보통 관공서 주변에 있습니다. 허가권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동래구청 주위로 있다가 금정구청이 생기면서 이 주위로 온 거지. 그러니까 구획정리하고 나면 주택이든 무슨 일반 빌라든 이런 건물이 자꾸 들어서잖아요. 그렇게 서서히 변해 간 거지. 북면 여기로는 지하철이 뚫리면서 가장 변화가 많았어요.

구획정리가 마을 발전에 도움을 준 게 아닌가요?

구획정리가 되고 발전하면서 아무래도 마을에 도움이 많이 되지. 여러 가지 없던 게 생기니까. 근데 지금은 안 좋아요. 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번잡해지니까. 지금은 오히려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한 번씩 들긴 들어요. 그만큼 많이 변해버린 거야. 저는 아직 저 남산동 형주요양병원 부근에 있어요. 신암마을은 이제 없지. 그건 옛날에 우리가 부르는 지명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본적을 적으면 '남산리 신암부락'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없어진 지 오래됐지. 2차 구획정리하면서 뭐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어 대학[부산외국어대학교] 때문에 원룸이 주류지. 주택가가 원룸으로 거의 잠식 됐더라고. 공단이 들어서면 그쪽에 쪽방이 많이 들어서는 것처럼 학교가 들어서니까 원룸이 들어오는 거지.

설계하시면서 문중의 혜택이나 마을 인맥으로 도움을 받은 것들이 있을까요?

직접 도움을 받은 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설계 사무소도 제가 할 때는 보통 건축하는 업자들이 있지요? 집 지어서 파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때 제가 설계를 해서 해운대나 송정에 딱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설계 어디서 했어요”라면서 지나가다가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것들이 많았지.

마을에서 새마을 운동 같은 것들도 했나요?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적인 게 물입니다. 지금 상수도 있지요. 물도 새마을 사업으로 부역을 했어요. 우리가 금정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계속 먹었거든요. 간이상수도. 그게 끊어진 지 얼마 안 됩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를 송진모 씨가 늘 했는데 마을이 너무 발전하니까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없어졌죠. 그 마을 물이 산물인데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 이름도 찬물샘이죠. 산물이 지금도 외대 밑에 보면 아직 있어요. 1973년, 1974년에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역을 한 거지요.

찬물샘은 마을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찬물샘도 오래됐지. 언제부터 한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찬물샘을 창설한 사람은 다 옛날 신암마을하고 연관 있는 원주민들이예요. 바르게살기 운동, 이런 거는 동사무소가 주축이 돼서 한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청년회, 동네 모임은 찬물샘, 녹담산악회 이런 게 있지. 녹담산악회는 송진모 씨가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친목이죠.

남산동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신암마을 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정산이 바로 뒤에 있잖아요. 나는 새벽 한 다섯 시 정도에 일어나서 두어 시간 산행합니다. 금정산 계명봉, 북문 이런 식으로 하루도 안 빠집니다. 금정산 주봉이 또 우리 여기 있잖아요. 고당봉.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산을 가려면 팔공산을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슬리퍼를 끌고도 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유일하게 제가 이 동네에 남아있어요. 청담[큰 바위로 이루어진 절벽]이라는 우리 동네 친구들 모임이 또 있는데 그중에 내가 동네 산 증인 비슷하게 아직도 내가 마을에 남아 있어요.

비가 오면 금정산에서 물이 내려와 하천이 범람했다고 들었어요.

여기 남산동은 지대가 높으므로 아직 큰물 피해는 없었어요. 사하라 태풍 그때는 옛날이라 지

금 현재의 중앙로가 아니고 옛날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무다리가 있었는데 허술했습니다. 돌로 놓은 것 아니면 전봇대 길게 걸쳐서 놓은 그런 다린데 그게 한 번 떠내려간 것 외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남산동의 변화에 대한 아쉬움과 바람

마을이 변한 것에 대해 아쉽지 않으세요?

그거는 시대의 흐름인데 어찌겠습니까? 근데 아쉽기는 많이 아쉽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앞에 단층집이 있었는데 주인이 돌아가시고 땅이 팔려서 원룸 빌라가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게 마음이 좋진 않지. 그것 외에는 생활하기 좋습니다. 산 가깝고 온천천에 한 번씩 자전거 타기도 좋고.

남산동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현재 기존 촌락 지역 중간에 발전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저도 건축을 하지만 진짜 아파트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구 단위로 아파트 같은 건 한쪽으로 밀어주고 옛날 동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살려 놓아야 해요. 구서동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옛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밖에 없어요. 그렇게만 바뀌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자꾸 아파트만 들어서니까 아쉽죠.

마을은 제가 문중 총무직을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 있을 때까지 문중에 더 봉사하고 열심히 조상을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바람은 없습니다. 밑에 자식들 잘 자라주고 그런 그것밖에 없죠.

“우리 새마을 운동하면
아침에 빗자루 들고나와서
청소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즐거웠어요.
음악만 나오면 나가야 하는 건가 그랬지”

신수연



신수연

- 1959년 남산동 본동에서 출생
- 1970~80년대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
- 1982년 결혼
- 1980년대 중반 백화점에서 근무
- 현재 남산동에서 노래방 운영 중

신수연은 1959년 남산동 본동마을에서 출생했다. 그 무렵 본동마을 일대는 주변이 모두 논과 밭이었다. 그 무렵 본동에는 김해 김씨 외에도 영산 신씨가 열 가구 정도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많았던 땅을 모두 잃어 가세가 기울었다고 말했다. 영산 신씨는 현재 롯데 그룹 계열의 성씨인데 집안 남자들은 부산 서면 인근의 재실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고 기억했다.

신수연은 8남매 중 막냇 딸로 오빠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특히 양장을 배워 서울에서 아동복을 만들던 큰 오빠는 명절 때마다 예쁜 옷들을 가득 보내주었고 신수연은 동네 아이들의 부러움을 받았다고 한다. 학창 시절 소풍은 범어사였고 가정형편에 따라 육성회비금액이 달랐던 것도 기억했다. 11명인 대가족으로 항상 식사 때가 되면 어머니가 아주 힘들었다고 말했다. 산업화와 함께 남산동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12살 무렵인 1970년대 초, 논밭이 택지로 변하면서 170평 땅에 집을 지어 이사했는데 현재 그 땅엔 빌라가 들어섰다고 말했다.

부산의 다른 지역과 달리 남산동에는 꽤 일찍 편의시설들이 마련되었다. 1960년대 이미 전기를 사용했고 상수도 시설 역시 마을 주민들이 모여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해결했다. 간이상수도 관리는 마을 주민들이 요금을 모아 월급을 줘서 운영했는데 신수연의 오빠가 그 일을 직접 했다고 한다. 새마을 운동과 애환 단합동도 뚜렷이 기억했으며 주민 간의 계모임과 동네 체육대회에 관해서도 말해 주었다.

이후 신수연은 청룡초등학교와 브니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뛰어들었다. 지인의 소개로 전자제품 제조업체 품질검사 파트에서 일했는데 인문계를 나와 검수파트에서 일하던 자신들과 달리 농촌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여공들은 남땀 등의 다소 힘든 직종에 종사하며 월급도 차이가 났었던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가졌다고 했다.

이후 남편을 만나결혼을 한 뒤, 태화백화점에서 서비직에 종사했다. 백화점에 근무하던 1985년에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했는데 당시 신수연은 첫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개통 당일 첫 번째 전철을 탑승했었으며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신수연은 대한민국과 남산동의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변화와 생활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현재는 남산동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이다.

어린 시절과 집안 내력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959년 남산동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고 있는 신수연이라고 합니다.

60년대 초 남산동 풍경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다 논이고, 주위에 상점 같은 것도 없었어요. 지금 농협 앞에 작은 그 다리[남산본동교]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폭이 좁아서 수해로 한 번 끊어졌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래서 다리를 못 건너니까 구멍 난 철판을 놓아가지고 다녔어요. 그 길이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놔가지고 좀 오래 다닌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복개도 안 되어있었고요. 다리가 폭이 좀 좁고 안동네를 가려면 그 다리를 안 거치면 못 들어가는 시절이었어요. 길이 없으니까. 지금은 보수를 해서 넓는데 그때 하천은 지금처럼 넓지 않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거기서 멍도 감고했거든.

실례지만 어디 신씨십니까?

영산 신씨예요. 그냥 요즘 사람들은 롯데 신가라고 하면 알아요. 영산 신씨 집안에는 가을 추수하고 이러면 시제(時祭)를 지내러 가요. 여자들은 참석이 안 되고, 아버님하고 큰오빠만, 장남 위주로 참석했어요. 서면 쪽 신암[부산진구 범천동], 거기에 우리 영산 신씨 재실이 있어요. 윗대로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적어도 그때부터 남산동에 살았다고 알고 있어요. 대대로 농사를 지었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재산은 많은데 우리 아버님 말씀을 어릴 때 빌리자면, 노름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 전답을 잡혀서 집안이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화투짝만 봐도 화를 내요. 자기 부친이 그래서 가세를 너무 망쳐놨다고….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8남매 중 저는 일곱 번째였어요. 아들 여섯 딸 둘. 오빠 다섯 명, 언니랑 남동생 한 명. 막냇동생이랑 그 위에 오빠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또 1950년 생인 우리 셋째 오빠도 청룡초등학교 옆에 살고 있어요. 제일 큰 오빠가 올해 일흔여섯. 위로 오빠가 많아서 저는 농사를 직접 지은 적 없어요. 오빠들이 많아서 저는 일을 안 하고 자란 편이에요.

워낙 대식구라 한 끼 먹는 것도 일이었겠어요.

그땐 밥을 해도 가마솥으로 가득 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거기서 쌀 씻고 집에 와서 그 물로 가마솥에 밥을 안쳐서 밥을 해먹었어요. 그러다가 곤로, 그게 나와서 거기에다 밥을 해 먹었지. 큰 솥에 밥, 작은 솥에 국. 반찬은 그때는 반찬도 많이 없었고, 겨울되면 살얼음 낀 동치미 많이 먹고 김치도 많이 먹었죠. 지금보다 그때 김치가 훨씬 맛있었어요.

예전에는 주로 어떤 농사를 지었습니까?

여기는 쌀농사, 보리, 뭐 잡곡도 하시고, 밭농사도 했어요. 밭에서는 주로 고구마, 감자, 배추 뭐 식생활에 필요한 거는 다 밭에서 재배해서 먹었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소도 키웠어요. 그 때는 가을 추수를 하고 나면 논이 공터거든요? 그러면 얼음 썰매 타려고 물을 넣어서 퐁퐁 열게 만들면 거기가 놀이터예요. 여기가 부산 다른 지역보다 좀 추워요. 그래서 방학 때는 오빠들이 스케이트를 집에서 만들면 오빠한테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오빠들 따라 그 공터에 가서 스케이트 타고 그랬어요.

어렸을 적에는 주로 뭐 하고 놀았습니까?

여름에는 물놀이, 거의 물에서 놀다시피 했고요. 그때는 저 하천이 물도 깨끗하고, 깊었어요. 뭐 특별한 이름은 없었는데, 우리는 그냥 그랑[개울, 하천]에 가자고 했거든요. 개울을 그때는 그랑이라고 했거든요. “야, 물놀이 하러 그랑에 가자”이랬거든. 그러면 방학때는 어울려서 거의 물에서 놀다시피 하고… 물고기가 많았는데 민물장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남자들이 잡고 우

리 여자들은 무서워서 못 잡았어요. 오빠들이 잡으면 어른들 드렸죠. 그 정도로 물이 깊었다는 거지. 고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더 많아.

마을에 우물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예전에는 우물 길러다 먹었어요. 저기 본동에 아직 있어요. 그 물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요. 빨래도 거기서 했는데, 빨래는 맨 밑에서 하고, 음식 같은 거 씻고 이러는 건 위에서 했어요. 그 단계가 있어. 이제 추석에는 집에 물이 없으니까 콩나물시루를 들고와서 쪽 놔두고 자기 것에 물주고 가져오고 그렇게 했어요.

남산동을 가로지르는 온천천[2017년,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어린 시절 남산동에서의 삶

오빠들이 많아서 어린 시절에 참 좋았겠어요.

예, 그때 동네에서는 나를 건드리면 오빠들이 가만 안 놔둔다, 이러니까. 겁이 나서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도 안왔어요. 지금 제일 큰오빠가 일흔여섯이니까 저랑 14살 차이네요. 큰오빠하고는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부딪힐 일도 없고, 군에 갔다 오고 이러니까 별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큰오빠 또래의 청년들은 성인이 되면 뭘 주로 했나요?

다들 돈 벌러 나갔지. 기술 배우러 가고.... 그때는 무조건 기술이 최고였거든. 그러니까 기술직, 말하자면 엔지니어겠죠. 우리 오빠 같은 경우는 서울로 가서 아동복 디자인했지. 그때 노라노 양재학원이 부산 서면에 있었는데 오빠가 그때 그거를 배우러 다니더라고. 오로지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옷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노라노 거기서 옷 만드는 걸 배워서 아동복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오빠들이 옷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줬어요. 그때 여기는 시골이다보니까 명절 아니면 옷 이런 거 한 개 사입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 서울에서 오빠가 아동복을 하고 있으니까, 명절에 옷을 여러 벌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남산동에서 최고로 옷 잘 입었지. 명절에 골덴[코르덴] 바지 하나만 사줘도 좋아하는데 나는 세트로 입었으니 그때는 좀 최고였지.

그럼 다른 아이들은 주로 어떤 옷을 입었나요?

그땐 뭐 옷 입고 다니는 게 뭐, 다들 촌스럽지. 그때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랬지. 그리고 가방이 어디 있어요? 보자기 싸서 말아가지고 옆에 착 끼고 이래 다녔지. 나는 오빠가 가방을 사줬지. 오빠가 많으니까 혜택을 난 많이 누렸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핫팬츠 같은 거는 생각도 못했거든. 오빠가 여름에 티하고 핫팬츠를 소포로 보냈더라고. 옛날에 돌가루색 포장지 있죠? 그걸

로 포장된 소포를 뜯어보면 너무 예쁜 옷이 많은거야. 다 부러워했어.

어렸을 적 남산동하고 노포동은 생활수준이 좀 차이가 있었나요?

노포동 쪽은 참 힘들었지. 우리 때는 학교 육성회비가 있었거든요. 그게 등급을 매겨서 제일 못사는 사람이 150원, 300원, 400원, 600원이 최고 높은. 600원은 공무원이나 그런 사람이 600원이고 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선풍기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하지. 우리 친구들 자기 회비 150원, 300원, 450원, 600원 냈던 걸 나는 다 기억하거든. 그런데 또 남산동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쪽에 반남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긴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라. 가정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쪽 사람이라 하면 내가 어릴 때도 힘들게 살았다는 게 기억이 나.

학교 다닐 때 소풍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거의 범어사였지. 봄 소풍 범어사, 가을 소풍 범어사. 뭐 유일하게 갈 만한 곳이 범어사 밖에 없었어. 난 그 기억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지 종교도 불교야.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절에 다닐 때 따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제가 기독교 학교에 다녀 봐도 기독교 하고는 저하고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어머니 다닐 때는 용락암이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거기 암자가 아주 고찰이에요. 동짓날이나 이럴때 어머니 따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엄청 멀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운동하러 등산 간다 하면 금방 나오더라고. “아, 옛날 그대로다. 변함이 없다” 이러지.



노포삼거리 전경[1954년]
1990년대 중반부터 노포삼거리를 중심으로 5일장이 열렸는데, 남산동 주민들은 이를 오시계시장이라 부른다.

당시 살던 집은 어떤 구조였나요?

우리 초가집이었어요. 방은 세 개였고…. 아버지, 엄마, 언니, 동생하고 같이 잤지. 그러니까 이제 장성한 총각들은 판 방에서 자고, 그렇게 방을 나눴지. 그렇게 또 오빠들이 군대에 가면 항상

군에는 두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뭐 방이 비고 이러면 교대, 교대하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안동네 있던 집을 놔두고 따로 땅을 사서 170평짜리 주택을 지었어요. 방이 다섯개나 되니까 편하게 내방, 니방 다 하고 살았지. 지금은 오빠가 거기 살고 있어요. 72년도 5월 19일인가 이사를 했어. 170평이니까 마당이 엄청 컸지. 텃밭도 있고. 마당에 정원을 가꿨어요. 아버지가 꽃을 되게 좋아하시니까 돌 세워서…. 그 집에서는 언니랑 같이 썼는데 언니하고 네 살 차이라도, 그렇게 언니하고는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당시 남산동 여성들은 어느 학교에 다녔나요?

그때만 해도 여자들은 공부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워낙에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 말씀이 “똥 묻은 바지를 팔아서라도 공부하려는 놈은 시켜준다” 옛날 말씀이 그렇더라고. 아무리 없어도 하려는 아이는 시킨다는 게 있었죠. 그래도 우리 집은 워낙 형제가 많으니까 다 못 시켰어. 우리 막내만 대학 나왔지. 유일하게 막내니까, 이제 대학이라도 가라고 해서 갔어. 나 같은 경우도 그때는 형제가 많으니까 갈 생각을 아예 안 했지. 고등학교 간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나는 좀 특이하게 브니엘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 거기가 옛날에는 남녀 공학이었어. 다른 학교는 여기 뭐 금정여중, 학산여중, 동래여중, 이사벨여고 안에서 추천했지. 고등학교는 동래여고, 이사벨, 브니엘, 중앙여고, 인문계는 그렇죠. 근데 이 청룡 초등학교에서는 브니엘이 숫자가 작아. 거리가 멀어서.

졸업과 사회생활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을 고민하셨죠?

그때 저는 당연히 취업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전문 기술 그런 게 없잖아요, 인문계니까. 그래서 소개로 품질 관리과 들어가 있었지. 포스타라고 스피커 만드는 회사였는데 제품 나오는 거 그거 검수를 했어요. 우리땸 포스타에 서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경쟁률이 높았죠. 그래도 나는 잘 들어간 거지. 회사가 부곡동에 지금 LO마트 그 자리. 그리고 알프스하고 포스타하고 붙어있었거든, 같은 계열이었거든요.

당시 공장에 어머니 또래의 여공들이 많았습니까?

그때는 너무 많죠. 그런데 그분들은 부산에서 오는 게 아니고 시골에서 여기로 돈 벌면서 야간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았지. 그분들 보면 멀리서 고생해가면서 낮에 열심히 하려는데 참 존경스럽다 싶더라고. 현장은 주로 단순 공정이었어요. 납땜하는 공정 과정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검수는 제품 나오면 샘플을 뽑아서 검사해서 불량 나면 다시 재검해서 출고를 시켜야 하는 거죠. 정품인지 아닌지. 뭐 한 개가 잘못되어도 통과가 안 되니까. 저희가 검수를 해서 통과가 되어 수출을 하는 거죠. 검수가 5명 정도 있었는데 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었죠. 현장과 검수가 딱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월급도 현장보다 우리가 많았어요. 그때 돈으로 한 90,000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는 서면 태○백화점에 근무했어요. 그때는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지하철 개통하고 남산동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때가 1985년이었어요. 지하철 개통한 해, 우리 애가 85년 10월 4일생인데, 임신했을 때 배 불러서 내가 전철 개통할 때 탔거든. 그래서 내가 그 연도는 정확하게 안다니까. 사실 열차 개통하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집값이 안 올랐어. 그 노태우 정권 때 아파트 구획정리하면서 그때 돈



남산동 지하철 공사[1980년대, 송진모 제공]

많이 올랐어.

당시 남산동과 서면을 비교해보면 어땠나요?

뭐 특별하진 않았어요. 그냥 나는 복잡하다. 서면은 너무 사람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남산동은 변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지 뭐.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서는 서면으로 많이 나가셨나요?

아니요. 거의 서면을 갈 일이 없어요. 주로 시장 보러 가면 동래시장 갔고 새벽시장은 그때 없었어요. 새벽시장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는 농협 앞에서 조그마한 공터에 어르신들이 좌판을 펼쳐놓고 생선이나 직접 농사지은 야채를 가져다가 팔았는데 그게 점점 커진거죠.

남산동의 변화와 생활상

전기나 상수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전기가 있더라고요. 60년대 중반? 그때부터 난 전기 없는 거는 못 겪었어요. 그때는 이 소켓, 까만 거 그거 기억나요. 상수도는 초등학교 때 들어왔어요. 물이 안 나와가 늘 우물에 길러 간다고 불편했는데 상수도 공사 한다가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수도꼭지 만들고 틀어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더라 이거야. 물 탁 트니까 펄펄 쏟아지니까 “아이고, 물 길으러 안 가도 좋겠다” 그런 생각 하며 참 좋았죠.

상수도 설치 전에 간이상수도가 있었죠?

여기도 예전에 간이상수도 썼어요. 간이상수도는 산에서 물을 모아가자고 소독해서 저장해두는 저장고가 있어요. 큰 물탱크가. 그리고 그걸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었어. 동네 어르신들이 상수도 요금 모은 걸 가지고 돌아가면서 월급처럼 주고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더라고. 우리 오빠도 했지. 예를 들어서 물이 뭐 이상하다고 하면 올라가서 점검도 하고 했어요. 그때 물탱크가 지금 금샘초등학교 위에 있었어요. 금샘초등학교 옆길 가는데 보면 탱크가 있어요. 운동하러 가면 그게 있더라고. 예전에 여기는 시(市)수도를 상상도 못 하지 그때는. 근데 그 물은 참 좋은데, 못 먹게 했어요. 시수도가 있어도 우리는 [간]상수도가 좋으니까. 그 가격이 싸니까 [간]상수도를 썼지. 그런데 나라에서 간이상수도를 못 쓰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들 시수도를 쓰는거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썼어요. 물이 너무 좋고 가격 싸니까. 그걸 관리하는 간이상수도조합이 있었어요. 그때 가격이 10,000원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수도 안 먹지. 우리는 시수도가 옆에 들어와 있어도 간이상수도가 가격도 싸고 좋으니까 시수도를 안쓰고 간이상수도를 썼는데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범어사 정수장 전경[1954년]
1932년 준공되었으며, 현재는 금정구 일대 약 7,000여 세대에 공급되고 있다.

폐기하라고 해서 없애고 다 시수도를 쓰게 된거지.

당시 화장실은 어땠습니까?

재래식이었지. 우리 이사 오면서 그걸 이제 양변기로 바꿨죠. 그런데 이사는 그렇게 와도 그때만 해도 수세식이 안됐어. 내가 새집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왔는데 예전처럼 항아리를 묻고 하지는 않았지만 하얀 양변기 그것만 그냥 해놓은 정도였어. 그냥 재래식이었어. 화장실도 집 밖에 있었지. 근데 밤에는 무서워서 못 갔어. 마루에 요강 뉘놓고 불일을 봤지. 오랜만에 별 이야기 다 나오네.

새마을 운동과 애향단은 기억나십니까?

우리 새마을 운동하면 아침에 나와서 빗자루 들고나와서 청소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즐거웠어요. 음악만 나오면 나가야 하는 건가 그랬지. 그게 초등학교 때였어요. 음악이 나오면 자동으로 다 빗자루 들고 자기 집 앞 청소하고 또 초등학교때는 시골이니까 동별로 애향단이 있었거든. 남산동 깃발 앞에 세우고 최고 6학년 오빠들 따라서 자기 마을까지 가는 거죠. 그걸 애향단이라고 했는데 우린 남산동 애향단이었죠. 그때 깃발은 각 동에서 좀 리드하는 그런 사람이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하고 줄 서면 따라 거지. 그러다가 자기 집에 도착하면 들어가고.

주민들끼리 모임은 있었나요?

모내기를 다 해놓고 나면 좀 한가하거든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관광버스로 나들이를 가지. 계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봄놀이를 꼭 가셨어. 가시게 되면 아침에 어디 간다, 이리해서 보면 마을 회관 앞에 관광버스가 오거든. 그럼 옛날에는 뭐 먹을 거 준비해서 가득 한 차 태워 가셨다가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되면 와.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오면 뭐 사 오시려나?’ 관광을 갔으니까 기대를 하고 그 앞에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지. 그래가 오면 엄마도 관광지가 가셨으니까 뭐 먹거리랑 기념품 많이 사 오시거든. 그럼 그거 들고 엄마, 아버지는 안중에 없고 뭐 사서 왔지만 궁금해했단니까. 그리고 우리 세대는 반지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5만 원씩 내죠?

그러면 50만이잖아. 예를 들어서 금이 5만 원씩 했다면 열 명 같으면 50만 원이잖아. 그런데 번호 순서대로 타 가는 거야. 번호계를 해서. 이거 번호 1, 2, 3, 4 이래가 집어가 주워가지고 운 좋으면 1번 타고, 안 그러면 꼴찌에 타고.

예전에는 체육대회가 유명했다고 하던데요?

예. 가을 되면 동네별로 북면 남산동, 구서동, 청룡동 나눠서 운동 잘하는 사람 뽑아서 운동경기도 하고 축구대회도 하고 했지. 우리 둘째 오빠가 축구 선수라서 내 잘 알지. 동네별로 시합을 해서 결승까지 올라가고 우승하면 뭐 깃발 흔들고 그런 게 기억이 나. 우리 둘째 오빠가 축구를 잘했어. 그래서 그건 기억이 나.

예전에는 여가 시간에 주로 어디로 외출을 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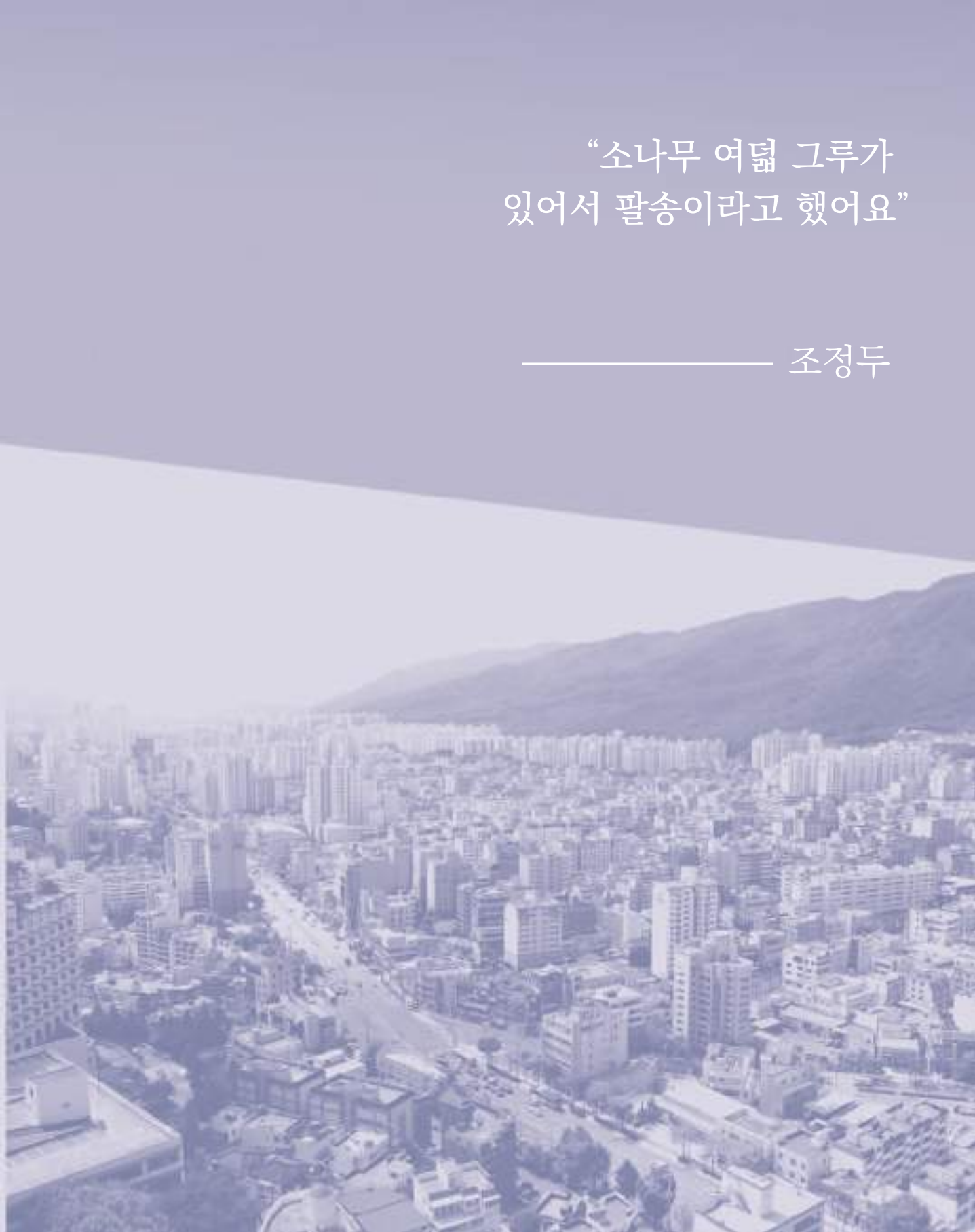
우리는 남포동에 항상 갔어. 그때는 좌석버스가 있었거든요. 그걸 타고 다녔어요. 남포동까지 한 시간 10분 정도 걸렸지. 서면도 노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남포동을 많이 갔어요. 그때 남포동에 부영, 부산, 대영시네마랑 제일극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먹거리도 많고.

요산문학관이 생길 때 어떠셨나요?

뭐,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동네에 그런 문학관이 있다는 거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릴 때도 그분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지금 문학관 그 집에 살던 어르신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 예전 집 모습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놀러 갔으니까 잘 알지. 지금은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축소된 거지. 그때는 진짜 대궐이었어요. 우리 놀러 가면 그 집이 넓고 엄청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소나무 여덟 그루가
있어서 팔송이라고 했어요”

조정두



조 정 두

- 1942년 남산리 마을 출생
- 9남매 중 장녀
-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요산 문학관 근무

조정두는 1942년 남산동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함안에서 반남산으로 이주했는데 조정두는 할아버지가 자식이 귀했기 때문에 남산동으로 왔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조정두의 아버지는 형제가 셋뿐이던 반면 자식은 9남매로 많았다고 한다. 조정두는 9남매 중 맏이로 태어났으며 막냇동생이 앞서 구술한 조성로이다. 조성로와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건너간 막냇삼촌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 조정두는 삼촌이 일본에서 보내온 돈을 어머니가 모아두었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결혼할 때 필요한 한복을 사주었다고 기억했다.

조정두는 팔송이라는 명칭에 대해 아버지께 전해 들었는데 당시 팔송 인근 야산에 묘지가 있고 소나무 여덟 그루 가 있어 팔송[팔송파출소 부근]으로 불렸다고 한다. 어린 시절 남산동에 있었던 마을의 명칭과 위치를 이야기했고 특히 지금 현대그레이스아파트가 있는 곳을 벽국산으로 불렸다고 했다. 6·25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남산동에는 ‘빨갱이’가 많이 내려와 경찰들이 빨갱이를 잡기 위해 조정두 집, 소 죽 끓이는 방에 숨어 있었다고 기억했다.

조정두는 형제가 많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점차 가세가 늘어 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조정두의 어머니는 키가 크고 덩치가 있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닮지 못하고 친할머니의 모습을 닮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친탁을 해서 키가 작았던 것도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줄줄이 달려있던 동

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키가 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스무 살에 중매로 결혼한 조정두는 당시 가마를 타고 시댁인 노포동을 갔던 것을 이야기하며 결혼하기 싫어했던 그때를 회상했다. 그리고 38살에 남편이 사망하고 이후 갖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추억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중매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혼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조정두는 1942년 출생했기 때문에 남산동의 과거 모습에 관해 이야기 들을 수 있었다. 여자였기 때문에 물을 길어 먹었던 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다. 특히 남산동에 있던 당산은 부모님이 오랫동안 당산제를 지냈다고 했다. 당산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부정을 타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당산제를 주관하는 동안 경조사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다음 날 마을 회관에 가져가서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고 한다. 당산제를 주관하는 사람에게는 마을에서 논 두 마지기를 주어 제사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산제를 지내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그만두고 싶었다고 기억했다.

자기소개와 어린 시절의 기억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산동 본동에 사는 조정두 할머니입니다. 윗대에 자식이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람[배낭의 변한] 말을 짊어지고 이곳으로 왔대요. 우리 할머니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세상을 버렸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쪽에 할머니 묘가 있었는데 학교가 들어오면서 묘를 팠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맨몸으로 여기 와서 큰아버지, 아버지, 고모, 막냇삼촌을 낳았는데. 근데 막냇삼촌이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9월 9일에 엄마가 제사를 지냈어. 삼촌 나간 날짜에.

일본에 간 삼촌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삼촌이 돈을 벌어서 엄마한테 보내줬는데 장롱에 노란 저고리, 빨간 치마를 보파리에 싸놔있어. 내가 그때 10살이라 신기해서 풀어보니까 옷이 있더라고. 나는 언니를 시집보내려고 그랬나 싶어 물어보니 삼촌이 일본에 갔는데 한국 오면 장가보내려고 시놓은 거래요. 삼촌이 내가 어릴 때 나갔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진을 보고 알지.

할아버지는 남산동에 오셔서 뭐로 생계를 유지하셨나요?

남의 집 일도 하면서 1년 세경을 받았어. 그때 세경은 소작농한테 주는 1년치 연봉이라고 합디다.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총각 때 김정한 씨 집에 머슴을 살았다고 하더라.

김정한 선생님을 직접 보기도 했나요?

김정한 씨는 명절 때 되면 가족가방 같은 걸 들고 엄마 보러 온다고 한 번씩 오는 걸 생전에 봤어요. 내가 조그마할 때. 부산대학교 나오고 그랬던데. 김정한 씨 엄마가 본동에 지금 그 건물에 살고 있었고 그 밑이 우리 집이었거든. 그 집에 감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쿠리[바구니]

작은 것을 들고 아침에 감을 주웠어.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감이 맛있잖아. 그래서 감을 주워 오다가 할머니한테 들켜서 뺏기고 그랬어.

해방에 대한 기억은 나시나요?

그때 나는 어렸으니까 기억이 안 나지. 언니가 하는 말로는 해방 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뺏기고 그랬다네. 일본 사람 경찰 모자같이 노란 테두리가 있는 걸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학교를 뺏겼다고 했어. 그리고 학교 앞에 지금 커피숍 있는 거기가 묘도 있었고 소나무가 여덟 개 있어서 '팔송'이라고 지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해줬어.

소나무가 여덟 그루라 그 지역을 '팔송'이라고 불렀네요.

청룡초등학교 앞에 집이 있었어. 지금 김밥가게가 있고 커피숍이 있는 자리 양쪽에 우리 어릴 때 야산이 있었어. 거기 묘가 있었고 소나무가 몇 그루 있었던 기억이 있어. 초등학교에서 조금 나오면 왼편에 커피숍 있는 자리가 야산이야. 거기 우리가 안으면 한 아름 되는 소나무가 여덟 개 있었던 거지. 왜 여기를 팔송이라 부르는지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초등학교 앞에 소나무 이런 게 여덟 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서 팔송이라고 마을 이름을 짓고 우리 본 동네 저기는 남산도 이렇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상마, 하마 되고 그래

어린 시절 마을의 풍경은 어땠나요?

지금이란 너무 다르지. 지금 하나로 마트 있는 그 뒤로는 본동이고 개울 윗쪽 빌라가 지어진 쪽은 전부 야산이고 논밭이었어.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소풍 갈 때 지금 영락공원 저기로 올라갔는데 이름을 '벽국산'이라고 했어. 현대그레이스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거기. 거기가 우리 클 때는 역수로[많이] 비탈졌어요. 그때는 마새[점성]이 없는 백토여서 한 걸음 올라가면 죽 내려오는 돌, 자갈이 있더라고. 또 소풍을 가면 범어사 절을 가기도 했어. 지금 노인들 밥 주는 거기가 4, 5학년 때 모심는 것 배우는 땅이야. 그런 기억이 나.



어린 시절 조정두의 단골 소풍지였던 벽국산



팔송 일대[이상 2021년, 이창섭 촬영]

마을 아이들은 뭐 하고 놀았을까요?

어릴 때 저 위 도랑에 가서 가재도 잡고 피라미도 많이 잡았어. 커다란 돌을 들치면 가재가 있었는데 제법 컸어요. 그 도랑이 엄청 깨끗해서 소라, 고동 같은 것도 있었고 깊은 곳은 엄청 깊었어요. 거기 빠져서 죽은 애들도 있었어. 지금은 계곡이 평평하지만, 그때는 층계 저서 폭포도 있었어.

전쟁과 피란민에 대한 기억이 나시나요?

피란민들이 우리 동네로 오기도 했어. 그대 한 50~60대 되는 아줌마가 남의 집에 방을 얻어서 사는 사람도 있었어. 아저씨들은 핫바지[고쟁이의 방언]를 입고 와서 그 사람을 ‘핫바지 아저씨’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런 아저씨들이 농사 많이 짓는 집에 머슴으로 살면서 뿌리박고 장가간 아저씨들도 있어요. 우리 집에 소죽 끓이는 방이 엄청 넓었는데 그때 밤이 되면 소죽 끓이는 방을 비워둬요. 거기에 젊은 사람 열댓 명씩 숨어서 시간 되면 마을 순찰하더라고. 한참 빨갱이가 많이 왔을 때 아마 경찰들이 당직 서듯이 밤을 새우고 순찰하였던 것 같아. 그때 밥 먹을 시간 되면 빨갱이들이 와서 “찬도 내놔, 쌀도 내놔, 같이 먹고 살자” 이러면서 안주면 총으로 쏜 죽인다니 까 쌀도 퍼주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그러니 그 사람들을 잡는다고 그랬겠지.

전쟁 때 학교는 어떻게 다녔나요?

학교 가면 반공 연습한다고 그랬지. 공부를 제대로 못 했지. 그리고 한 반에 5~60명씩 있으니 까 교실은 작고 학생은 많아서 역수로[많이] 좁은 거야. 치마 입고 보자기에 책을 싸서 들들 말아서 학교에 다녔지.

그 시절 여자들은 대부분 상급학교 진학을 못했나요?

여학생이라도 동래여중으로 갔던 애들도 많았어. 그러다가 금정중학교가 생겨서 남녀가 같이 다녔지. 나도 아버지한테 학교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 그땐 능력도 안 되고 우리는 형제도 많고 아버지도 남의 집 품팔이해서 사는데 학교를

못가지.

초등학교 졸업 후 뭐하셨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거지. 밑에 동생들이 많으니까. 동생들은 고등학교도 나왔어. 그때는 언니도 시집가고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엄마가 쌀가게를 하면서 애들을 공부시키기로 했어. 위에 애들 공부를 너무 못 시켜서 그랬나 봐.

부모님은 남산동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나요?

아버지가 논을 갈라 먹기 했지. 갈라 묵는다는 것은 저 집 논인데 농사를 지으면 주인이 많이 하고 우리는 좀 작게 가져오는 거야. 땅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땅도 조금 샀어. 아버지가 건실하게 일해서 땅을 좀 사서 우리가 결혼할 때쯤은 밥은 먹고 살았지. 1960년대 초반에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우리 식량은 됐어. 땅이 범어사 쪽에 한 다섯 마지기, 압구정 갈비[남산동에 있는 식당] 있는 데에 세 마지기 노포동 지하철 있는 곳에 세 마지기 정도 있었어. 그러니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했지.

결혼할 때 좀 살만했다면 중매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중매했지. 우리 시어머니가 중매받은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우리 동네가 한 100가구 되니까 “다른 집에 아가씨 많이 있는 집 없냐”고 하니 노인정에 모여 있는 할매들이 “아무개 집에 딸이 천지라는데 다 그렇게 일도 잘하더라”라고 해서 우리 친정엄마를 찾아온 거야. 우리 엄마가 두구동에서 열아홉에 남산동으로 시집왔는데 외갓집에 할아버지는 내가 조그마할 때 봤을 때 상투를 쓰고 갓을 쓰고 한문을 가르치러 다녔어. 엄마도 억수로[엄청]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한이 맺혔다 하더라고. 공부도 못하고 일찍 남산골에 시집와서 고생을 너무 했기 때문에 중매가 왔을 때 “우리 애들은 못 준다”라고 했어. 그래도 두 번, 세 번 와서 얼마나 우리 엄마를 꼬았는지... 우리 엄마는 키도 크고 등뽕[등치]도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나 봐.

막냇동생이신 조성로씨도 키가 크시잖아요.

그래. 그런데 나는 뭐 할머니 친탁[친가를 닮음]을 했는가. 우리 친정엄마 하는 소리가 “나는 꼭 할머니를 닮았다”고 했어. 그러면 나는 “엄마, 내 밑에 동생들이 많은데 그것들 업어 키운다고 키가 크겠냐”라고 하면 엄마가 말도 못 했어. 또 물을 이어다가 밥도 해야지, 키도 작은 게 여동생을 업고 부뚜막에 올라가서 밥을 퍼서 그랬는데 어찌 크겠어. 그래서 중매들어왔을 때도 내가 울고 달려들면서 “엄마는 내 밑에 동생을 그렇게 많이 낳아서 내가 키도 못 크고 고생만 시키고 결혼시키면 엄마가 가서 살아라. 나는 안 살 거다”하고 안 간다고 울고 그랬어.

그 시절 남산동 사람들의 결혼식 모습은 어땠나요?

웨딩드레스 입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 나는 타고 갔어. 우리 친정엄마는 택시를 부르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그랬지. 옛날에는 가마를 많이 탔는데 시집갈 때 타는 게 평생에 한 번이니까 가마를 타고 가라고 했어. 우리 집 마당에서 결혼식을 해서 그 날 시댁을 가야 해요. 그때 가마를 타고 신랑 집을 가거든.

과거 남산동의 모습

남산동 안에 여러 마을이 있었죠.

지금은 남산동이고 지금 여기가 남중이고 침례병원 맞은편이 신암이야. 우리 태어나고 큰 동네가 남산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남중. 팔송은 청룡초등학교 부근이 팔송이야. 반남산에는 큰집이 있었지. 그때 거기에 집이 열 채가 되었나, 안 되었나 모르겠어. 반남산은 산속이지.

마을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먹었나요?

웅덩이가 있는데 우리 어릴 때 추워서 걸레가 쫘쫘 얼어서 웅덩이에 넣어 놓으면 녹았어요. 그만큼 따뜻한 물이어서 김이 솔솔 올라왔지. 그 웅덩이가 아직도 있어요. 지금 농협에서 금샘 목욕탕 쪽에 샘이 있어. 그게 깨끗하고 엄청 넓었어요. 물이 많이 나와서 폭포같이 물이 많이 나와서 여럿이 퍼가도 금방 물이 찼어.

팔송에 무덤이 있었다고 하셨죠?

그 지금 청룡초등학교에서 그 화장품 가게 있는 그 뒤쪽으로 쭉 가면 야산이라. 그 야산에 있었지 마을 안에는 없어.

남산동 안에 당산도 있잖아요.

우리 클 때는 당산이 있었지요. 친정에서 한 10년을 지냈어. 당산이라는 것이 마을에 안정을 주고 평안하게 한다고 하잖아. 우리 어릴 때는 영감, 할머니가 다 있어야 하고 애들도 여럿이 있어야 당산에 제사를 지낼 수 있어. 우리가 자식이 많아서 당산에 제사를 지냈나 봐. 근데 엄마가 그걸 지내려고 하니까 초상집도 못가고 잔칫집도 못가고 손자들이 태어나도 못가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 밤 12시쯤 돼서 나물을 하고 밥을 지어서 올라가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다음 날 음식을 회관에 가져가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다 같이 먹었지.

당산제를 지내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논 두 마지기쯤 지어 먹으라고 주고 그랬어.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논이고 뭐고 그것도 엄마는 안 하려고 그랬어. 엄마가 10년 가까이 하면서도 계속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엄마가 그만두고 나서 지금은 당산제가 없어졌어요.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의 모습은 어땠나요?

세 칸 집이지. 위채에 부엌이랑 방 두 개 있고 아래채에는 소죽을 끓이고 아버지가 소죽 끓이는 방에서 주무셨지. 또 화장실을 밖에 따로 있었어. 어릴 때 첫 번째 집은 조그만 집이었고 엄마가 돈을 벌어서 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 한 100평짜리를 샀는데 거기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독을 묻어서 놓았는데 내가 거기 빠져서 죽을 뻔도 했어. 단디[단단히] 보고 발을 디벼야 했는데 급해서 발이 빠진 거야. 내가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쳤어. 그렇게 변소에 빠지니까 떡을 해주더라고.

마을에서 새마을 운동 같은 것도 했어요?

그런 그거하고 나면 밀가루도 주고 그랬어. 도로 넓히고 밭 같은 것 평지로 만들고 그런 일을 도와주면 돈은 안 줘도 밀가루를 줬어. 참가하려면 통장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가면 밀가루를 조금씩 주니까 가져와서 애들 빵도 찌주고 그랬지.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도 했다고 들었어요.

많이 했어. 청룡초등학교운동장에서. 여자들은 시간이 남고 이런 사람들은 참여했지만 나는 애들하고 먹고살기 바빠서 못 갔어. 여자들도 체육대회 하면 줄다리기도 했는데 나는 먹고살려니 일을 해야 해서 안 간 거지.

병원이 없었는데 아플 때는 어떻게 했나요?

대동병원을 가고 어지간하면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어. 마을에 약국은 세 개나 있었어. 포동약국, 중앙약국, 손씨약국이 있어서 약을 많이 사다 먹었지.

시장이 없었다고 하던데 어디로 장을 보러 갔나요?

시장은 동래나 온천 시장에 가야 했어. 여기 남산동 새벽시장[현 남산시장]은 20년 전쯤 생겼지. 지금은 건물을 지었는데 예전에는 가설 해서 알뜰게 지어져 있었어. 그리고 공원묘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채소 같은 것 가져와서 사람들이 팔고 그랬어. 나도 거기서 채소를 팔고 그랬지. 거기 장사를 내가 60대 돼서 그만뒀으니 2000년대 이후까지 있었지.



남산시장 내부 모습[2021년, 이창섭 촬영]

1985년에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이동이 편해졌겠어요.

지하철 들어서고 교통이 엄청 좋아졌지. 초반에 서면시장, 부전시장에 물건 하러 가면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 버스를 타고 가면 한참을 가야 하는데 지하철은 30분이 안 걸려. 근데 송도로 가는 직행 버스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20분 밖에 안 걸리긴 했어. 몇 번이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는 내가 삼신 버스 구내식당에서 일했어요. 40대 때.

남산동에서의 삶과 생계, 요산 문학관

삼신 버스 구내식당은 어떻게 들어가시게 되었나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엄마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줘서 들어갈 수 있었지.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월급을 한 달에 9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3개월마다 보너스가 나왔는데 얼마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 구내식당에 아줌마 넷이 있었고 각자 담당이 있었어. 나는 밥만 했는데 하루에 80kg 한 가마를 지었어. 연탄 여섯 개를 하루에 두 번씩 갈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골병이 들어서 팔을 쓰지 못한다. 연탄가스도 많이 먹어서 머리도 아프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해냈는데 한 가마니를 하루에 지었다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구내식당에 안내양, 기사, 반장, 사무실에 직원 이렇게 150명 정도가 세끼를 먹었지. 아침에 4시나 되면 밥하러 올라가야 해. 그래서 종일 구내식당에 있지. 아침 5시 10분에 송도 갔던 첫차가 들어오면 밥을 먹어요. 아침에 한두 시간 복작거리고 점심시간에 또 두 시까지 밥을 줘. 그때는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사람들이 서서 먹고 그랬어. 그리고 또 저녁에 다섯 시쯤 저녁을 해서 먹으면 집에는 8시

요산 문학로[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요산 김정한 생가 모습[2021년]

반쯤 들어가지. 종일 거기 있으니까 애들은 먹을 것만 집에 해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 먹었어요. 위로 딸이 넷이었기 때문에 먹을거리만 사놓으면 자기들끼리 해서 먹었어.

요산 김정한 선생님은 어떤 이미지였나요?

역수로 신사터라고 가죽가방 들고 한 번씩 엄마 보러 오는 걸 내가 봤지. 근데 그때 학교에서 뭘 한다고 대학교수를 한다고 했던가? 그래도 그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지. 그냥 마을 사람인 줄 알고 명절이 되니 엄마를 보러 오는 거로 생각했지.

그래도 마을 어른들은 대하는 게 뭐랄까 좀 윗사람, 높은 사람 대하듯 했어.

요산 생가의 복원되기 전 모습은 생각나나요?

문학관 들어가는 입구가 김정한 씨가 태어난 집이고 그 안쪽은 새로 지었지. 지금 모습이랑 조금 달라. 우리가 거기서 놀았을 때는 층계가 세 개가 있었는데 높아서 앉으면 다리가 안 닿았어. 근데 지금은 계단이 하나밖에 없거든. 마당에 다 묻혔지.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집이 역수로[엄청] 높아서 범어사 절 같이 생겼더라고. 그 높다란 집이 낮아지고 평수도 작아졌지.

현재 문학관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있죠?

아, 나도 거기서 일을 했네. 노인 일자리. 거기 가면 청소도 하고, 안에서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했는데. 저 복지관, 남광복지관에 거기서 신청을 해서. 저쪽에 노포동에 가면 남광복지관이라고 있어. 우리가 찾아가서 등본을 준비하고 이력서를 넣어서 신청을 직접 했지. 거기 지금도 올해도 신청을 해냈는데 노인 일자리 일하러 나옵니다.

김정한 선생님을 생전에 보기도 했는데 요산 문학관이 생길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래도 저기 '옛날에 좀 괜찮게 교수도 하고 했으니까 저래 하는 갑다, 그 사람 낮이라도 저게 하는 갑다' 그래 생각했지. 지금 가서 들여다보면 옛날에 안경 쓰던 거, 곰방대 물던 거, 그 안에 다 진열이 되어가 있어요. 저게 생기고 마을이 좋아진 건 잘 모르겠어. 내가 안 동네 거긴 안 살 아봐서 잘 모르지. 내 이 주위에만 살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저기에, 방학 때는 문학 쪽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오고 대학생들도 많이 와. 중고등학생도 많이 오지. 그렇지만 오고 안 오고 우리는 별로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

앞으로의 바람

점차 변화가는 마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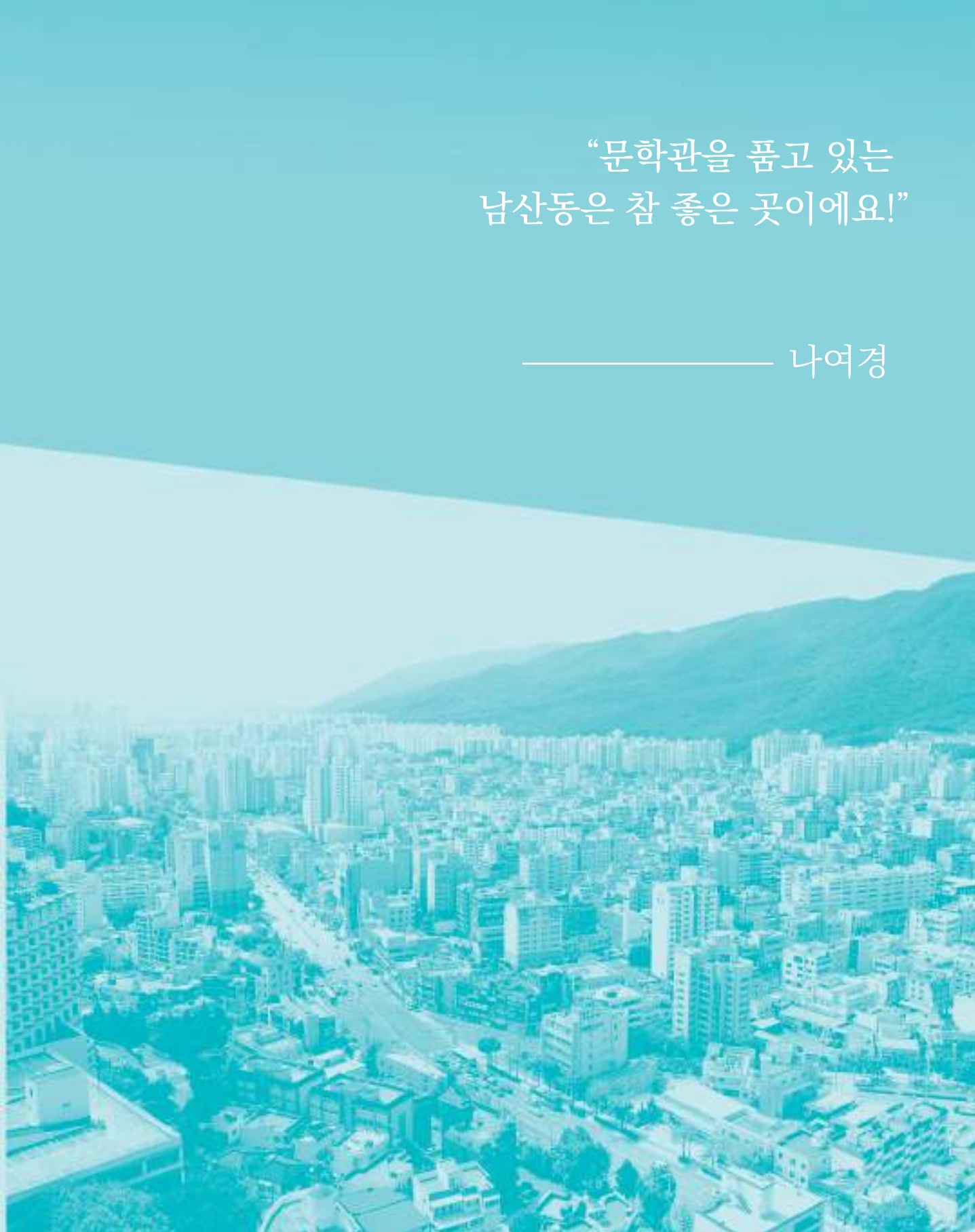
마을이 변하는 게 좀 심란하지. 위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클 때 소 몰고 다니고 산골짜기 놀러 다니고 했던 것들이 생각나는데.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살던 어릴 때가 더 좋았지. 남산동은 샘도 있고 물도 귀하지 않았어요. 샘이 세 군데나 있어서 클 때 물 곤란은 안 겪었어. 그리고 비가와도 집이 떠내려가고 그런 일도 없었어. 과거에 비하면 마을이 많이 깨끗해졌지만 그래도 옛날이 더 좋아. 지금 동네 안에 들어가면 너무 변해서 마음이 이상하더라.

깨끗해졌다면 지금이 더 살기 좋은 게 아닐까요?

내 생각에 이 주위에 남산 범어사 근처가 “공기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또래 할머니들이 다 여기로 와요. 여기가 공기 좋고 살기 좋다고 하면서 전부 여기로 이사 온다니까. 그러니 금정구에 노인이 많잖아요. 옛날 클 때 친구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지. 그래도 노인 복지가 참 잘 되어있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사를 어디로 가겠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안 좋은데. 우리는 이대로 살지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걱정이죠.

“문학관을 품고 있는
남산동은 참 좋은 곳이에요!”

————— 나여경





나 여 경

- 1966년 서울 출생
- 2014년부터 요산 문학관 사무국장으로 활동
- 저서 소설집 『불온한 식탁』, 『포옹』 산문집 『기차가 걸린 풍경』

나여경은 1966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2000년 부산 남구 용호동으로 이주하였다. 부산과 특별한 연고가 없던 나여경은 낯선 곳에 대한 염려가 컸는데 그녀를 아는 지인들도 그 부분을 걱정했다고 한다. 지금은 부산을 떠나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처음 2년 정도는 적응이 무척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지금은 소설가로 입지를 굳힌 작가이지만 나여경은 올곧이 문인으로의 길만을 걷지는 않았다. 잊고 있던 작가의 꿈을 일깨워준 것은 우연히 보게 된 학교 생활기록부였다. 고등학교 1, 2, 3학년 모두 장래희망이 작가인 것을 보고 새삼 자신의 꿈을 상기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여동생이 등단을 하자 소설을 쓰게 되었고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부경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그 인연으로 여러 단체에 몸담게 되었다. 나여경은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이 부산으로 온 것이라는 말을 하며 인터뷰를 이어나갔다.

요산 김정한의 그늘은 넓고 깊다.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에 맞서 싸운 시민운동가이며 부산의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소설가이다. 나여경 역시 부산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가 정도로 요산을 생각했으나 2014년 요산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맡게 되면서 김정han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요산 문학관의 현황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요산 문학관에서는 매년 문학 축전을 비롯해 창작반 운영, 인문학 강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초기에 활발했던 참여도가 점점 부산의 다른 행사들에 밀려 점차 저조해 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인력과 예산의 부족 때문에 문학관의 유지, 보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며 이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요산 김정han을 활용한 주차장이나 문학로가 조성되었지만 이름만 요산을 땀을 뺀 문학관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또 문학관 입구 ‘요산뜰’이 있어 활용을 하면 주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재원이 없어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데다 2020년부터는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아 문학관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나여경은 김정han을 기리는 요산 문학관을 품고 있는 금정구를 대단한 지역으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남산동을 투기성 아파트가 늘어난 공간이 아닌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아기자기한 마을이 되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앞으로 문학관이 마을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다.

자기소개와 작가의 삶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작가회의와 부산소설가협회 회원으로 소설을 쓰고 있고요, 요산 문학관에서 일한 건 2014년부터니까 올해로 7년째입니다. 요산기념사업회가 요산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부산은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부산에 오게 된 건 개인사가 있긴 한데... 그런 개인사까지 이야기하기엔 복잡하고 2000년도에 조금의 연고를 믿고 오게 됐습니다. 첫 정착지는 남구 용호동이었습니다.

금정구 남산동 전경[2017년,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제공]



처음 부산에 오셨을 때, 부산의 느낌은 어땠나요?

“제가 부산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이러저러한 정보를 줬는데 축약하면 “조심해라!”였습니다. 그들도 아마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부산에 온 후 어느 날 시장을 갔는데 전부 다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우지?’, ‘왜 맨날 싸우지?’ 했는데 그게 일상적인 언어더라고요. [웃음] 시장 상인의 말을 못 알아들어 난감했던 적도 있어요. 생선 파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구워 먹게? [꾸어 먹꾸로?]”였습니다. 이 말을 저는 못 알아듣고 “꾸꼬로 꼬꾸” 정도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시장이라는 장소성 때문에 그랬겠지만 부산의 첫인상이 강했죠. 지금은 웬만한 사투리는 다 알아듣고 부산 사람들 진국이라는 것까지 알게 됐지만 부산의 말과 잘못된 친구들의 조언으로 부산 인상이 한동안 좋지는 않았지요.

소설가가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동생이 먼저 등단을 했어요. 저보다 1년 먼저. 동생이 제 일기도 훑쳐보고 그랬던 친구데 등단을 하니 ‘어? 나도 소설을 한번 써볼까?’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그 작품으로 덜컥 등단을 해 버린 거예요. 운이 좋은 경우이기도 한데 준비 안 된 소설가였지요.

어렸을 때 꿈이 글 쓰는 일이었을까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연찮게 본 생활기록부 장래희망란에 단 한 번 기자로 적혀 있고 전부 다 작가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작가가 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 했죠. 친구도 많지 않고 책 읽는 걸 좋아했으니까... 책 읽고 생각나는 대로 끄적였겠죠. 낙서처럼. 그런 생활이 작가가 되는 밑바탕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부산으로 와서 삶이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제가 부산을 오지 않았으면 작가로 이렇게 살고 있진 않았을 거예요. 서울에서 하던

일이 있었으니 아마 그 일을 이어서 했겠지요. 2000년 9월에 제가 부산에 왔는데 그해 5월에 그 글을 쓰다 말았어요. 등단작을. 그러니까 쓰던 글을 가지고 와 부산에서 완성을 한 거죠. 12월에 원고를 투고하잖아요. 부산에 와서 저는 작가가 됐고, 음... 서울에 있었어도 아마 투고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활동을 안 했을 거라는 거지요. 부산에 와 등단 후에도 한동안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런데 대학원 다니면서 빈 부경대 남송우 선생님의 작가회의 가입 권유로 가입하게 됐고, 가입 하자마자 차장 일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작가의 길을 걷게 됐지요. 부산이 제게는 작가의 길을 걷게 해준 그런 땅이기도 하고... 각별하죠. 그런 면으로 보자면, 부산사람들도 그렇고요. 남송우 선생님이나 이상섭 선생님이나 부산에 와서 대학원 다니면서 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작가회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안 하셨더라면 글을 쓰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산 김정환과 요산 문학관

요산기념사업회와 연관성도 있었나요?

요산기념사업회는 요산 문학관이 세워질 때부터 문인들이 관여했어요. 부산작가회의 문인들이 관여를 많이 했지요. 종교인이나 정치인, 시민들도 관여했었지만 어쨌든 주축이 됐던 사람들이 작가회의 문인들이었지요. 저는 그때 작가회의 회원이었지만 행사 때나 가끔 참여하는 정도였고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2014년도 사무국장직을 맡게 되면서부터 깊게 관여하게 됐지요.

작가들에게 요산 김정환 선생님은 어떤 영향력이 있나요?

부산의 많은 문인들이 요산 선생님의 자장 아래 있죠. 요산 선생님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

대 모두 요산 선생님 자장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얼리즘[Realism] 소설인거죠. 요산 선생님은 ‘따라지[보잘것없거나 하찮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나 물건을 속되게 이르는 말], ‘민초’라고 표현하셨지만... 현재는 ‘약한 자’, ‘가지지 못한 이들’이겠지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쓴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산에 있는 거의 모든 소설가들이... 전부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직을 맡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아마 2004년도에 작가회의에 가입을 했을 거고, 2008년도 말, 차장에 내정이 되어있었는데 그것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부산 소설가 중에 저랑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상섭 소설가가 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전화해서 작가회의 차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못 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국장이 있으니까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 하라는 거예요. 이상섭 선생님과 국장님을 만났는데 근사한 밥집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밥을 잘 얻어먹고 나니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못 하겠어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웃음] 결국, 밥에 얽여 차장을 하게 됐지요. 차장하고 나니까 또 소설가협회 국장도 하게 되고 그 인연으로 이렇게 사무국장까지 하게 된 거죠.

일하면 소설을 집필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소설 안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항상 제가 “소설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고 말하는데 다 핑계죠 뭐. 마음과 소설 쓸 능력만 있으면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첫 창작집인 『불온한 식탁』을 낼 때 작가회의 차장이었어요. 차장 일도 있었지만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을 때라 정신이 없던 때였어요. 작품집을 내려면 8편 정도 들어가거든요. 요즘엔 6편도 넣긴 하지만, 그때는 8편 정도였는데 제가 작품이 세 개? 네 작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국제신문 조○권 기자가 “책 언제 나오니까?” 물을 때 “올해 낼 거예요” 하고 말을 해 버린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결국 책이 나오게 됐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떻게 책을 냈나 싶어요. 그건 시간이나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 써야겠다는 마음,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3편인가, 4편인가를 두세 달 만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못 한다는 건 핑계 같고 쓰려는 마음만 있으면

쓰는 데 안 쓰는 거죠. 게으른 거라고 생각해요.

소설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거든요. 그게 아니라 게으르고 능력이 없는 거지요.

작가회의에서 관여하고 요산 문학 축전이 조금 달라졌겠네요.

거의 비슷한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증사진이나 독서토론, 독서낭독대회 같은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생기게 됐지요. 기본적으로 고유제, 축전 일주일 전에 요산 묘소를 찾아가서 '축전합니다!'하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지요. 또 문학기행이나 심포지엄, 요산창작지원금, 개막, 폐막 뭐 그런 기본 틀은 거의 유지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문학기행을 못 했고, 백일장을 독후감으로 대체하기도 했지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꿉니다.

사람들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참여율은 초창기 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나 시민들 참여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백일장인데 갈수록 참여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다른 축제와도 겹칠 때가 많아 그렇지만 학생들이 문학 분야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관상이나 시장상 등의 특전이 없어지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학 진학 시 그런 상들에 대한 특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너무 겹으로 화려한 행사 즉, 부산 불꽃 축제가 저희 행사랑 겹치는 날이 많다 보니 백일장에 참여했다가 시상식도 참여하지 않고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심포지엄의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심포지엄 주제는 요산의 작품과 정신을 통해서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전개됩니다. 김정한 선생님이 부산을 바탕으로 밀양 삼랑진, 원동 화제 이런 곳들을 배경으로 글을 쓰셨잖아요. 오키나와까지. 그런 장소와 공간에 관한 이야기, 또 요산의 생애와 관련된 문학을 비롯한 시민



요산 문학관 내부[2021년]
문학관에는 요산 김정한에 관한 각종 자료 등이 비치되어 있다.



의식, 리얼리즘, 생명성, 저항문학, 한민족 디아스포라, 요산 문학을 확장하고 있는 부산작가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산 문학과 동아시아, 미발표작을 통해서 본 요산 문학의 새로운 지평, 올해는 김정한 소설의 정치·경제민주주의까지. 이렇게 요산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고 또 계속 연구하고 있지요. 이러한 작업들은 어쨌든 요산 선생님의 소설이라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확장해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이 여러 방면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연구할 과제들이 많이 있고, 연구자들이 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누가 참여하나요?

문학관 강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글 쓰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이미 등단하신 분들도 꽤 있고요. 지역은 화명동 쪽에서도 오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세요. 어디서든 누구라도 오시면 들을 수 있는 수업이긴 한데... 남산동 주민들이 연세가 높은 분들이 많아

그런지 오히려 다른 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죠?

그렇지요. 워낙 어르신들이 각 구마다 많으시니,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요산 문학관 역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했었지요. 이쪽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사실 고정된 그런 프로그램 하나 정도 있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 요즘 핸드폰 기능이 많아 어르신들은 잘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 핸드폰 활용법, 노래수업,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요. 노래수업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부산의 지명이 등장하는 노래는 정말 좋아하시고 잘 부르시더라고요. 춤까지 추시면서. 너무 어렵고 지루한 프로그램보다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게 안타깝지요. 어쨌든 지원금이 부족하고 받아도 3개월 정도 수업할 수 있는 액수니까. “요산 문학관에 가면 1년 365일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난 요산 문학관 가야 해” 이런 콘텐츠들을 좀 만들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죠.

요산 문학관과 남산동 사람들

요산 문학관이 건립될 때 관여를 하셨나요?

그때 당시 저는 요산 선생님 생가 복원이나 문학관 건립 등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나 바람결에 스치듯이 들었지 관여하지 않았지요. 뭘 모르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었지요. ‘문학관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정도였어요. 요산 생가 복원되고 문학관 건립되고 나

서 요산 탄생 100주년 행사 그러니까 2008년 행사에 처음 참여했어요.

작가들에게 요산 문학관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뿐 아니고 문학관, 이 자체가 저희 문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머니의 집 같고, 고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문학인이 그럴 거예요. 타 도시의 문학관을 방문해도 문학하는 이들에겐 그 공간이 특별하게 다가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문학관이니 요산 문학관은 더 특별하지요. ‘어머니 집에 온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진다’, ‘마당에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어 눈이 시원하다’,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 등등의 각별한 감정은 문학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인데 글을 쓰는 문인들의 느낌은 더욱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산 생가와 요산 문학관 입구[2021년]



문학관과 남산동 김해 김씨 세거 씨족과 관계가 있나요?

요산은 1908년 현재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에서 7남매의 맏이로 태어났습니다. 요산의 출생 당시 남산동은 경남 동래군 북면에 속했지만 이후 부산시 동래구에 속하다 금정구로 변경 되었는데 현재 복원한 생가가 요산 선생이 태어났던 본가지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이 남산동에 김해 김씨 씨족들이 모여 살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생가 옆에 건립된 문학관과 김해 김씨와는 깊은 관련이 있지요.

문학관이 건립될 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문학관이 내가 사는 동네에 생긴다고 했을 때 흐뭇하고 좋지 않았을까요? 문학관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기대가 더 컸을 것이고요.

마을 주민들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시나요?

처음 제가 택시를 타고 여길 왔는데 그 전에 몇 번 외렸는데도 길치라 올라오는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택시 기사님도 모르시고 지나가는 몇 분께도 여쭙봤는데 다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 사는 분들도 모르는 문학관이 문제가 있다 싶었어요. 그래서 학습 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김정환 작품과 더불어 소설 속 공간이나 부산 관련 강의도 많이 편성하고 홍보에 힘을 썼지요. 문학관 입구에 ‘요산 뜰’이 있는데 ‘조성을 잘해서 마을 주민들이 언제라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요산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나 관장님을 비롯해 이 사님들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생각하는 바는 많은데 그에 따른 재원이 부족하니... 마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항상 고민은 많은데 여의치 않네요.

현재문학관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문학관이 지은 지 오래되었고 그동안 보수를 잘하지 못해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곳곳에 누수도 살펴야 하고 옥상 방수, 들뜬 바닥 시공, 마당과 각층 베란다 조경 같은 일들이요. 외양도 그렇고 문학관의 일들이 많은데 인력도 부족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

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홍보도 하고 관리하며 그 일을 집행할 텐데... 모든 면이 열악한 환경의 문학관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문학관 안에 활용 공간은 많은 것 같았는데요.

요산 문학관 마당 얼마나 좋아요. 강당도 있어요. 3층에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생가 쪽에 온돌이 있어서 한옥 체험을 해도 되고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들이예요. 일단은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해야 해요. 옥상 방수와 누수 공사, 3층 같은 경우는 냉난방이 안 되니까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서 오픈을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도서관도 있는데 지금까지 해주던 도서관 지원금을 문학진흥법 생겼다고 문학관 지원금으로 돌리고 도서관 지원금은 하나도 없어요. 매년 500권 정도 구입하던 도서 구입도 못 하게 된 거지요. 요산 뜰의 경우도 힘닿는 대로 국화를 심어 뜰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람객들이 안락하고 기분 좋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문학관을 잘 살려 놓으면 금정구 뿐 아니라 문화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텐데 아주 안타깝지요.

문학관에서 보유한 주차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없고 일단은 들어오는 입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문 있죠? 정문 바로 옆으로 펜스 쳐져있는 그 밑이 요산 뜰입니다. 거길 내려가는 계단을 넓게 만들어 벤치로 이용하고 방부목이나 그런 걸로 원형 무대를 만들어 시 낭송도 하고 관람객들에게 해설하는 자리로 사용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되는 공간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금정구에 있는 공간이니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요산 뜰을 그럴싸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면 좋겠어요. 문학로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건 그다음인 것 같아요. 문학관 안의 사정이 그런데 겉만 꾸미면 뭐 하겠어요.

금정구청에서 공원 조성에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문학관 홍보도 되고 관람객도 많이 찾을 텐데... 문학관에 대한 좋은 인상은 금정구와 부산시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과 남산동의 미래

부산의 다른 문화관과 요산 문화관이 차별성을 띠고 있나요?

있죠. 이주홍 문화관은 유족분들이, 추리 문화관은 김성중 선생님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유족이나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문화관보다는 요산 문화관이 여러 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인의 집이고 유족이 기거하고 계시니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하는 생각인 거지요. 그와 달리 요산 문화관은 기념사업회에서 운영을 전적으로 맡고 있으니 어느 정도 구와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 문화관 건립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좀 걱정되는 면이 있긴 한데 그런 건 차후 일이고 일단은 당연히 건립되어야 하는 일이고 생긴다면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화관이 있는데 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문화관 3개 있는 것도 지금 서로 연대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문화관이 생기면 그 문화관이 허브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 문화관과도 연계하고 또 다른 문화단체와도 연결해서 부산에서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인들도 힘을 더... 당연히 부산 문화관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따로가 아니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받는 거지요.

문화관이 있는 남산동의 느낌은 어떤가요?

남구는 굉장히 젊잖아요. 유동 인구들이 젊고 또 새벽까지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그런지 정체되어 있다고 하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그 남구 쪽에서 갖지 못한 최대의 명소, 문화콘텐츠죠. 근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워요. 남구가 대학들이 많고 젊은 유동 인구가 넘쳐도 문화관을 품고 있

는 금정구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금정구청장은 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문화관을 가지고 있는 구의 청장을 하려면 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금정구의 주민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남산동과 문화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금정구를 얘기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 많은 분이 ‘요산 문화관이 자리한 이쪽 지역은 땅값이 저렴하고 구서동 쪽, 저쪽으로 넘어가면 땅값이 비싸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전 그게 굉장히 못마땅해요. 문화관이 우뚝 선 남산동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야 하는데 그저



1994년 범어사 문화의 거리에 건립된 요산 김정한 문학비[2021년]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기존 아파트가 즐비한 저쪽 지역을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선호하고 좋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요.

아무리 땅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남산동은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들어오지 말고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좀 문화관과 어울리는 주택들이 지어지면 좋겠어요. 이 문화관 벽에 붙은 빨간 벽돌, 이런 것과 잘 조화되는... 또 문화관에 관람 오셨던 분들이 '참 정겹네!' 하면서 들어가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고풍스러운 찻집과 작은 책방, 문화 공간들이 들어선 남산동을 그려봅니다. 문화관의 활성화를 위해 저희 요산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나 관장님, 이사님들이 노력하고 계시기도 하고 아직 미진하긴 하지만 문학진흥법이 생겼고 부산시도 그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디더라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지하수 같은 문화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걸 중국에는 깨닫게 되거든요.

원고 집필 심현호 한국국학진흥원
 김혜진 경성대학교
기획·편집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사진 제공·촬영 개인 | 송진모, 남산동마을 구술조사팀, 이창섭
 기관 |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8

남산에 살았었다

남산동마을 사람들 이야기

발 행 부 산 광 역 시
발 행 처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T.051)888-5057
발 행 일 2021년 5월 30일
인 쇄 대성인쇄사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454-14
ISBN 979-11-85308-35-7
ISBN 979-11-85308-12-8(세트)

원문공개
부산시(www.busan.go.kr) 부산소개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www.bssisa.com)

이 책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부산광역시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